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한

충남 인물사 연구

-요약보고서-

2002. 12.

충청남도 충남발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및 서문위원회

제 출 문

충청남도지사 귀하

본 보고서를 [충남인물사 연구] 과업의 요약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2. 12

충남발전연구원장 (직)

김 대 길

참여연구진 및 자문위원

연구총괄 이 해 준 충남역사문화연구소장
연구책임 임 선 빈 충청학연구부장
연구참여 오 석 민 충청학연구부 연구위원
강 종 원 문화재연구부 연구위원
곽 승 훈 목원대학교 강사
이 춘 진 충청학연구부 연구원
홍 제 연 충청학연구부 연구원

자문위원 김 영 한 충남향토연구회장
윤 용 혁 공주대학교 교수
이 성 무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최 근 목 충남대학교 교수
허 흥 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황 의 동 충남대학교 교수

행정지원 최 일 용 충청남도 정책담당관
양 창 업 충청남도 정책총괄담당
추 욱 충청남도 지방행정주사

목 차

I. 연구의 개요	1
1. 연구명	1
2. 연구의 배경	1
3. 연구의 목적	1
4. 연구의 내용과 범위	1
1) 연구 내용	1
2) 연구의 범위	2
5. 연구 방법	2
1) 인물 선정에 위한 기초 조사	2
2) 선정 인물에 대한 자료 조사 및 집필	2
3) 집필 방식	2
6. 연구의 진행과정	3
1) 대상인물 선정	3
2) 대상인물 선정 기준	3
3) 연구기간 및 진행일정	4
 II. 대상인물 현황	 5
1. 대상인물 간략정보	5
2. 대상인물의 분석	10
1) 시대별 분포	10
2) 분야별 분포	10
3) 지역별 분포	11
 III. 서술원칙과 사례	 12
1. 보고서의 서술체계	12
1) 서술 원칙	12
2) 서술항목	12
3) 분량 및 수록 인물 수	12
2. 편집체계	13
1) 분류체계	13
2) 기타	13

3. 시술 사례	14
백제 충전의 상징 개백	15
형님면지, 아우면지 이상만 형제	25
이지함과 영원한 베스트 세러 토정비결	32
천주교 내포의 사도 이존창	39
조선왕조의 마지막 선비 면암 최익현	45

IV. 관련자원의 현황 및 과제	52
1. 관련자원의 현황 및 과제	52
1) 전통시대 충남 관련 인물의 특징	52
2) 대상인물 및 관련유적 관리 현황분석	59
2. 개발 방향	79
1) 기본방향	79
2) 관련 추진 사업 (예시)	82
3) 답사 코스 (예시)	83
4) 교육·문화 프로그램	101
5) 충남인물 사이버 전시관 운영 (예시)	106
3. 관련 시설사업 계획 (예시)	106
1) “충남 인물 테마파크” 조성 (예시)	106
2) “충청문화타운” 조성 (예시)	108

<별첨 자료> 답사 코스 관련 자원 현황	110
---	------------

I. 연구의 개요

1. 연구명

- ▶ 충남 인물사 연구(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한 충남인물사 연구용역)

2. 연구의 배경

- ▶ 충남은 예로부터 충과 예의 고장, 양반(선비)의 고장이라 일컬어져 왔듯이 타 지역에 비해 충신·열사와 기라성 같은 훌륭한 학자들이 많이 배출되었음.
- ▶ 1989년에 '충남 5대정신(충효정신·절의정신·선비정신·예의정신·개척정신)'이 연구되면서 충남의 인물에 주목하였으나, 구체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임
- ▶ 충남정신의 기반은 충남이 배출한 걸출한 인물들과 그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전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물에 관한 연구와 활용이 시급한 실정임.

3. 연구의 목적

- ▶ 충남을 대표하고 상징할 수 있는 인물의 생애와 그 업적을 조명함으로써,
- ▶ 도민의 자긍심을 높임과 동시에 충청남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 ▶ 청소년에 대한 교육자료 및 문화관광의 대상으로서 가능성을 모색함.

4. 연구의 내용과 범위

1) 연구 내용

- ▶ 충남에서 출생, 성장, 거주했던 인물들을 망라한 가운데 대상자를 선정하고,

- ▶ 개별 인물의 생애와 업적을 개괄한 보고서를 CD로 제작하며,
- ▶ 중간 및 최종보고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 ▶ 추후 계속 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하고,
- ▶ 전서관의 건립, 사적공원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2) 연구의 범위

- ▶ 지 역 : 충청남도 전역(대전광역시 포함)
- ▶ 시 기 : 전통시대 및 근대이전 중점

5. 연구 방법

1) 인물 선정을 위한 기초 조사

- ▶ 기존 학계의 연구업적, 『충청남도사』 및 각 시·군지의 인물편 검토
- ▶ 전통시대의 문헌기록(역대 사서, 인물지, 윤리서, 읍지류, 행장, 금석문, 족보 등)에서 대표적인 충남인물 보완·조사

2) 선정 인물에 대한 자료 조사 및 집필

- ▶ 문중 소장 관련 유품, 관련 유적지, 전설 등의 현지조사
- ▶ 일반인에게 쉽게 읽힐 수 있는 수준으로 집필

3) 집필 방식

- ▶ 자료 조사 및 정리 : 원내 연구진
- ▶ 초고집필 : 원내 연구진(일부 외부 비상임 연구위원 위촉)
- ▶ 윤문 및 보완 : 외부 전문가

6. 연구의 진행과정

1) 대상인물 선정

- ▶ 기초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학계 원로를 포함한 자문회의(5월 27일)에서 대상 인물 선정
- ▶ 선정 인물(시대·분야별 수), 분류 체계, 서술항목, 집필방식 등 확정
- ▶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상인물 추가 선정 → 100명내외로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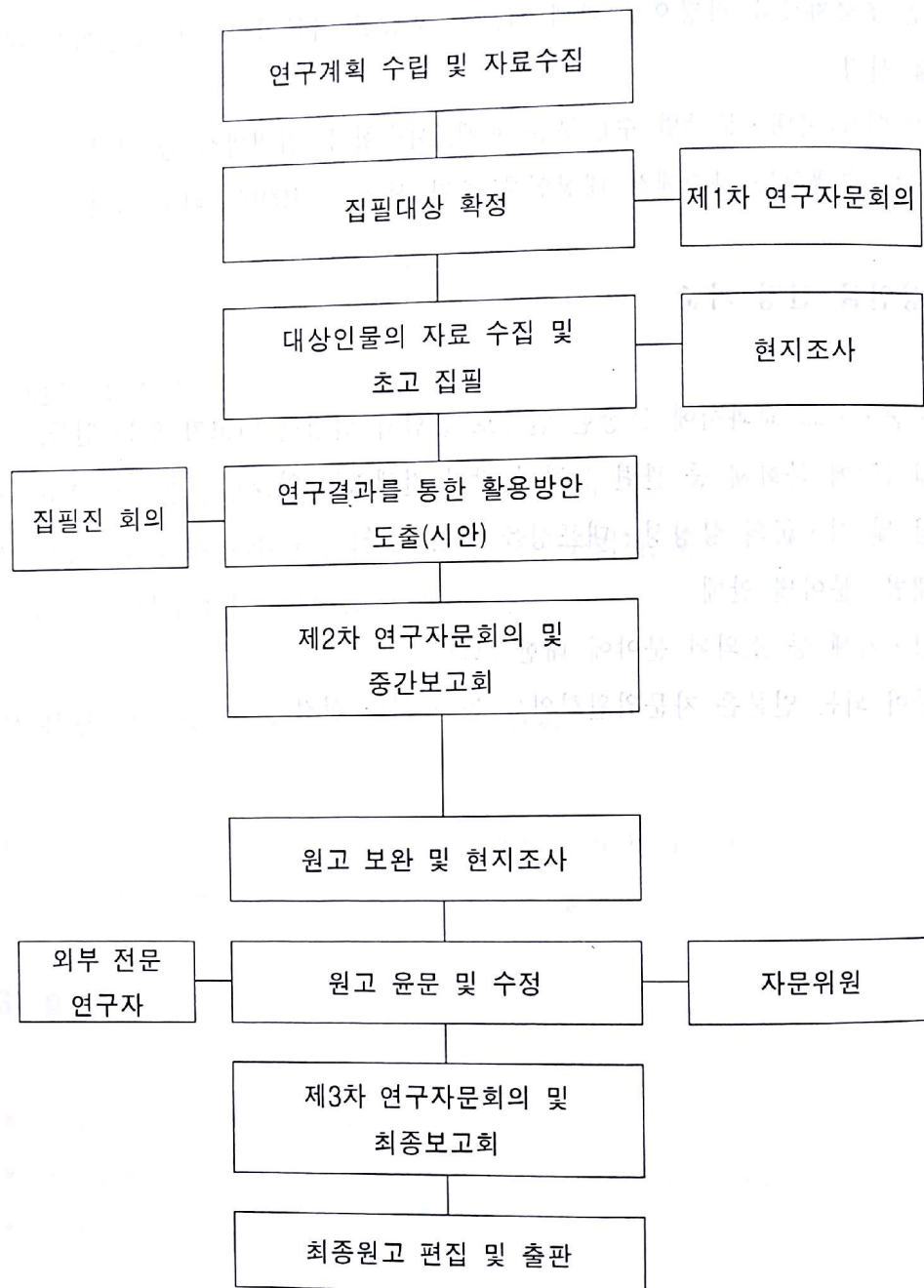
2) 대상인물 선정 기준

- ▶ 초·중·고교 교과서에 등장한 인물로 충남과 밀접한 연고가 있는 인물.
- ▶ 충남지역에 문화재 등 관련 유적이 많이 전해지는 인물
- ▶ 충남 및 시·군의 상징성·대표성을 지닌 인물
- ▶ 시대별·분야별 안배
- ▶ 여성·기예 등 소외된 분야에 대한 고려
- ▶ 논란이 되는 인물은 자문위원회의를 통해 최종 선정

3) 연구기간 및 수행 방법

▶ 연구기간 : 2002. 3. 30. ~ 2002. 12. 29. (270일간)

▶ 연구 수행 방법



II. 대상인물 현황

1. 대상인물 간략정보

연번	성명	생몰	주요행적 및 관련 유적
1	武寧王	461~523 (재위 501~523)	백제의 왕, 국권회복, 한강유역으로의 진출, 중국 남조와 교류를 통한 문화발전, 공주 무령왕릉.
2	聖王	?~554 (재위 523~554)	백제의 왕, 체제정비, 불교진흥, 한강유역 회복, 천도(웅진→사비).
3	武王	?~641 (재위 600~641)	백제의 왕, 42년간 재위, 국권회복, 서동요의 주인공. 부여 궁남지, 왕흥사, 익산 미륵사 창건.
4	義慈王	?~660 (재위 641~660)	백제의 마지막 왕, 부모를 효로써 섬기고 형제와 우애하여 '해동증자'로 불림. 신라 대야성 등 40여성 회복, 나당군을 막지 못해 결국 항복하고 당에서 사망. 역사상 재평가가 진행중임.
5	豊	미상	의자왕의 아들로 왜에 파견, 사비성 함락후 귀국하여 백제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사실상 백제의 마지막 왕.
6	階伯	?~660	백제 장군, 『三國史記』 열전에 수록됨, 결사대 5천명과 황산벌에서 전사, 부여 팔총리(탄생지), 논산 충곡리(묘소), 부여 삼충사, 의열사, 논산 충곡서원 등에 배향.
7	成忠 · 興首	?~656 미상	백제의 충신, 의자왕의 실정에 직간을 하다 옥사하거나 귀양감. 나당군의 진격로를 예상하고 방비를 건의.
8	黑齒常之	?~689	백제의 장군, 『三國史記』 열전에 수록됨, 임존성에서 최초로 부흥운동을 일으킴, 당에서 위명을 떨쳤으며, 묘지명이 전해짐, 예산 임존성.
9	阿非知	미상	백제의 장인, 경주의 황룡사 9층탑 건립.
10	福信	?~663	백제의 왕족, 의자왕의 사촌동생으로 무왕대 당에 사신으로 파견, 사비도성 함락후 부흥군 지휘, 은산 별신당.
11	道琛	?~661	백제의 승려. 주류성을 근거로 부흥운동 전개, 사비성을 포위할 정도로 위세를 떨침, 은산 별신당, 수덕사 승려?
12	都彌婦人	미상	백제 개로왕 때 정조를 지킨 인물로 『三國史記』 열전에 수록됨. 보령 도미 사당
13	謙益	미상	백제의 승려, 백제 율종의 시조. 인도에 유학, 귀국시 가지고 온 인도의 율문을 번역.
14	惠聰	미상	백제의 승려, 일본에 부처사리 전달, 일본 불교 포교에 노력.
15	觀勒	미상	백제의 고승, 삼론에 정통, 일본에 최초로 승직제도를 만듦, 초대 승정이 됨.

16	向德	미상	통일신라 경덕왕대의 효자. 웅천주(공주) 板積郷 사람. 공주 신기동 정려.
17	朗慧	미상	통일신라 고승, 성주산문 개창, 보령 성주사.
18	憬興	미상	통일신라 신문왕 때의 고승. 熊川州(공주) 출신.
19	朴述熙	?-945	고려초 무신, 고려의 후삼국 통일, 개국공신, 면천박씨 시조, 당진 면천
20	卜智謙	미상	고려 무장. 고려의 후삼국 통일, 고려 개국 1등 공신, 면천 복씨 시조, 당진 면천
21	坦文	900~975	고려 고승, 서산 보원사지
22	姜民瞻	?~1021	고려 무장, 姜邯贊의 부장으로 출전하여 興化鎭에서 거란을 대파
23	韓文俊	?~1190	고려 문신, 寶文閣大學士判禮部事, 政堂文學, 예산 대흥
24	亡伊 · 亡所伊	?~1177	공주 명학소 민중봉기 주도
25	鄭仁卿	1237~1305	고려의 문신. 鄭臣保의 아들, 瑞州(서산) 출신.
26	白頤正	1247~1323	고려 유학자, 안향의 제자, 성리학 연구, 보령 남포의 신안원에 제향
27	冲鑑	1274~1338	고려 고승, 광종대의 국사
28	李齊賢	1287-1367	고려말 성리학자, 성리학의 수용·발전에 기여
29	白文寶	?~1374	고려말 문신, 政堂文學, 稷山君에 피봉.
30	普愚	1301~1382	고려말 고승. 공민왕 왕사, 홍성출신.
31	崔瑩	1316~1388	고려말 무장, 재상. 홍성 사당.
32	柳淑	1324~1368	고려말 문신, 홍건적 때의 공으로 서령군에 봉해짐.
33	李穡	1328~1396	고려말 문신·학자. 三隱의 한 사람. 李齊賢 문인, 서천 문헌서원에 배향.
34	李存吾	1341~1371	고려말 학자, 1366년 辛旽의 횡포를 탄핵하다가 좌천, 공주(현재의 부여) 石灘에서 은둔.
35	李詹	1345~1405	고려말 문신, 金震陽사건에 연루되어 結城에 유배, 예문관 대제학,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많은 시를 남김, 당진.
36	吉再	1353~1419	고려말과 조선초의 학자, 삼은의 한 사람, 금산 청풍사 배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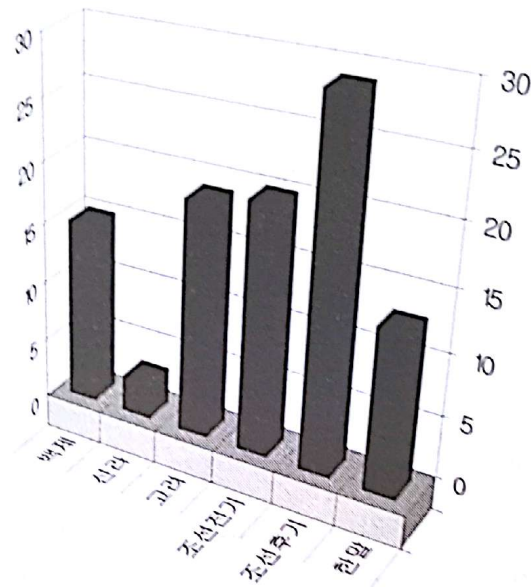
37	李成萬	미상	고려말 조선초 효자, 대흥 출신, 현존하는 最古의 우애비, 예산 대흥 효제비.
38	安堅	미상	조선초기 화가, 서산출신, 서산 안건기념관.
39	無學	1327~1405	고려말 조선 초기의 승려, 조선의 왕사, 서산 간월암.
40	孟思誠	1360~1438	조선 초기 명신·청백리, 온양 맹씨 행단.
41	金宗瑞	1390~1453	조선 초기 장군·학자, 4군 6진 개척, 공주출신, 숙모전, 공주 의당 묘소.
42	崔楊善	미상	조선초기 풍수지리가.
43	蔣英實	미상	조선 세종 때의 과학기술자, 아산.
44	梁誠之	1414~1482	조선초기 학자, 세종조부터 성종조까지 6조에 걸쳐 文敎上 큰 공을 세움, 『팔도지리지』 편찬, 금산 구암사 배향.
45	成三問	1417~1456	조선 초기 문신, 사육신의 한 사람, 홍성 노은단, 유허비, 박팽년(연기, 대전), 이개(서천 한산).
46	李塏	1417~1456	조선 초기 문신, 사육신의 한 사람(서천 한산).
47	朴彭年	14~1456	조선 초기 문신, 사육신의 한 사람, 연기 사우, 대전 유허비
48	徐居正	1420~1488	조선초기 문장가, 세종에서 성종대까지 23년간 대제학 역임, 『동문선』 편찬
49	金時習	1435~1493	조선 초기 문신, 생육신의 한 사람. 『금오신화』의 저자, 부여 홍산 무량사의 부도와 영정
50	李之菡	1517~1578	조선 중기 학자·기인, 『토정비결』의 저자로 알려짐, 보령출신
51	徐起	1523~1591	조선 중기 학자, 공주 충현서원 배향, 홍성 출신, 공주 묘소
52	宋翼弼	1534~1599	조선 중기 학자, 선조대 8문장가의 한 사람. 당진 묘소·사당.
53	洪可臣	1541~1615	조선시대 문신, 이몽학의 난 평정, 仁山書院과 靜退書院에 제향, 홍성 홍가신 사당.
54	趙憲	1544~1592	조선시대 문신, 공주목 제독관, 금산전투에서 순절, 금산 700의충.
55	靈圭	?~1592	조선시대 승려, 임진왜란 의병장, 공주출신, 공주 갑사 표충원.
56	李舜臣	1545~1598	조선시대 장군, 임진왜란의 명장. 아산 현충사

57	金長生	1548~1631	조선후기 학자, 예학의 대가, 논산 돈암서원
58	金時敏	1554~1592	조선후기 장군, 임진왜란 진주성 싸움에서 공을 세움, 천안 출신.
59	申欽	1566~1628	조선중기 문장가, 선조에서 인조대 4대 문장가의 한 사람. 대전
60	金集	1574~1656	조선후기 학자, 예학의 대가, 논산 돈암서원
61	南平曹氏	1574~1645	남이응의 부인으로 한글 필사본 『병자일기』를 남김, 공주 반포.
62	南以興	1576~1627	조선후기 무장, 이괄의 난 평정에 공을 세움, 당진 대호지면.
63	鄭忠信	1576~1636	조선후기 장군, 이괄의 난 평정으로 진무공신에 오름, 서산 정충사.
64	趙翼	1579~1655	조선후기 학자, 성리학의 대가로서 예학에 밝았으며, 경학·병법 등에 뛰어남, 아산 도산서원, 예산 묘소와 사당.
65	李參平	?~1655	조선후기 도공,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가 일본의 도조로 추앙
66	姜栢年	1603~1681	조선후기 청백리, 온양 정퇴서원 배향
67	權認	1604~1672	조선후기 학자, 기호학파로 예학에 밝음, 대전 도산서원 배향
68	宋時烈	1607~1689	조선후기, 학자, 정치가, 예학의 대가로 노론의 영수, 대전 남간정사, 송준길, 이유태, 윤순거, 유계.
69	宋浚吉	1606~1672	조선후기, 학자, 정치가, 대전 동춘당
70	尹鐸	1617~1680	조선후기 문신, 예론의 대가, 경신환국에 연루되어 사사, 공주 우거.
71	尹拯	1629~1714	조선후기 학자, 소론의 영수, 논산 윤증고택, 유봉영당, 노강서원
72	金萬重	1637~1692	조선후기 문신, 『구운몽』을 지음, 대전 영정
73	浩然齋	1681~1722	조선후기 여류문인, 『호연재유고』를 지음, 대전.
74	韓元震	1682~1751	조선후기 학자, 강문 8학사의 한 사람, 이간과 호락논쟁, 홍성 양곡사, 이간(아산), 윤봉구(예산), 채지홍
75	李柬	1677~1727	조선후기 학자, 강문 8학사의 한 사람, 한원진과 호락논쟁, 아산 외암마을
76	李重煥	1690~1752	조선후기 실학자, 『택리지』의 저자, 공주
77	朴文秀	1691~1756	조선후기 문신, 암행어사, 천안 출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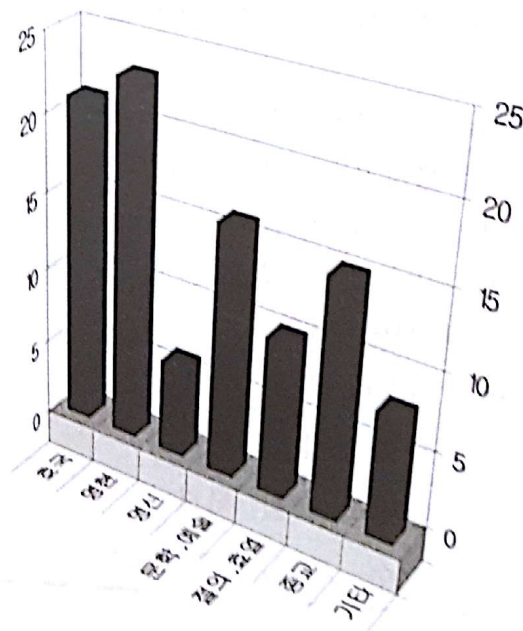
78	任聖周	1711~1788	조선후기 학자, 기철학의 대가, 공주
79	申光洙	1712~1775	조선후기 문장가, 서천출신
80	姜世晃	1713~1791	조선후기 문인서화가, 평론가.
81	蔡濟恭	1720~1799	조선후기 학자, 정치가, 남인의 영수, 獨相 10년, 청양.
82	任允摯堂	1721~1793	조선후기 여류 문인, 『윤지당유고』 저자, 공주
83	洪大容	1731~1783	조선 후기 과학자, 자전설 주장, 천안 홍대용시비, 천안출신.
84	貞純王后	1745~1805	영조의 계비, 수렴청정을 하면서 정치적 영향력 발휘, 서산 정순왕후 생가
85	李存昌	1752~1801	천주교 순교자, 천주교 내표의 사도, 예산 여사울 생가터
86	姜完淑	1760~1801	천주교 최초의 여성 회장, 내포 출신.
87	金正喜	1786~1856	조선 후기 예술의 대가, 추사체를 창시, 예산 추사고택.
88	崔良業	1821~1861	천주교 신부, 홍성 다락골 출생
89	金大建	1822~1846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신부, 당진 솔외성지
90	金恒	1826~1898	조선후기 학자, 한국역학의 대가, 논산출신.
91	崔益鉉	1833~1906	한말의 애국지사, 대마도에서 순절, 청양 모덕사
92	金福漢	1860~1924	조선말기의 문신·의병장. 홍성출신, 홍성 인지서재, 추양사
93	閔宗植	1861~1917	한말의 의병장, 홍성 홍주의사총
94	宋秉璿	1836~1905	한말 애국지사, 을사조약의 소식을 듣고 순국, 회덕출신.
95	李商在	1850~1927	한말 정치가·민권운동가·청년운동가, 서천.
96	金玉均	1851~1894	한말 정치가·개화운동가, 갑신정변 주도, 공주.
97	李南珪	1855~1907	한말 순절한 애국 지사, 예산 평원정.
98	李鍾一	1858~1925	한말 언론인·독립운동가, 3·1운동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 태안
99	高壽寬	미상	한말 판소리 명창, 서산.
100	李東伯	1867~1950	한말 판소리 명창, 서천.
101	金昌龍	1872~1935	한말 판소리 명창, 서천.
102	韓成俊	1875~1941	한말 고수·무용가. 홍성출생.

2. 대상인물의 분석

1) 시대별 분포



2) 분야별 분포



3) 지역별 분포

시·군명	관 련 인 물	인원
천안시	白文寶 · 金時敏 · 洪大容 · 朴文秀	4
공주시	武寧王 · 向德 · 亡伊 · 金宗瑞 · 徐起 · 靈圭 · 李參平 · 南平曹氏(南以雄) · 尹鏞 · 李重煥 · 任聖周 · 任允摯堂 · 金玉均 · 高壽寬	14
보령시	都彌婦人 · 朗慧 · 白頤正 · 徐居正 · 徐起 · 李之菡	6
아산시	孟思誠 · 蔣英實 · 李舜臣 · 洪可臣 · 趙翼 · 李柬	6
서산시	柳淑 · 鄭仁卿 · 無學 · 安堅 · 鄭忠信 · 貞純王后 · 崔楊善 · 高壽寬	8
논산시	金長生 · 金集 · 尹拯 · 金昌龍 · 金恒	5
금산군	吉再 · 梁誠之 · 趙憲	3
연기군	朴彭年, 成三門	2
부여군	聖王 · 武王 · 義慈王 · 豐 · 階伯 · 成忠 · 興首 · 福信 · 道琛 · 阿非知 · 李存吾 · 金時習	12
서천군	李穡 · 李塏 · 申光洙 · 李東伯 · 金昌龍 · 李商在	6
청양군	蔡濟恭 · 崔良業 · 崔益鉉 · 閔宗植	4
홍성군	崔瑩 · 普愚 · 成三問 · 洪可臣 · 韓元震 · 金福漢 · 閔宗植 · 韓成俊	8
예산군	黑齒常之 · 姜民瞻 · 韓文俊 · 李成萬 · 徐居正 · 趙翼 · 金正喜 · 李存昌 · 姜完淑 · 崔益鉉 · 李南珪	11
태안군	權認 · 李鍾一	2
당진군	卜智謙 · 朴述熙 · 李詹 · 宋翼弼 · 南以興 · 金大建	6
대전시	申欽 · 宋時烈 · 宋浚吉 · 姜栢年 · 權認 · 浩然齋 · 金萬重 · 宋秉璿	8
미상	謙益 · 惠聰 · 觀勒 · 憬興 · 坦文 · 冲鑑 · 李齊賢 · 姜世晃	8
합계		113

III. 서술원칙과 사례

1. 보고서의 서술체계

1) 서술 원칙

- ▶ 일반 도민을 독자층으로 상정하여 평이하게 서술(중·고교생 수준).
- ▶ 전문 분야의 업적은 너무 깊이 다루지 않고, 핵심적인 내용만 기술(특히 인물의 사상 분야).
- ▶ 장기적인 활용을 염두에 둔 연구이므로, 활용 잠재력이 큰 부분을 부각(예컨대 문화관광자원)

2) 서술항목

- ▶ 생애 : 출생, 성장, 경력, 사후 조치 등
- ▶ 시대적 상황 : 정치·경제·사회·사상 등
- ▶ 사회적 배경 : 가계(선대, 혼맥, 묘역), 학통, 당색, 지역에서의 활동 등
- ▶ 주요 업적 : 시대적 여건, 주요 활동상 및 그 의의 등
- ▶ 관련 유적 현황, 구전되는 일화 등

3) 분량 및 수록 인물 수

- ▶ 전체 분량 : 500쪽(4×6배판 기준) 내외
원고 : 400~430쪽, 관련 사진자료 등: 70~100쪽
- ▶ 선정 인물 수 : 102인
- ▶ 1인당 평균 5쪽 내외

2. 편집체계

1) 분류체계

분 류 안	해 당 인 명
나라를 구한 꽃꽂한 기상 (護國, 愛國)	階伯, 黑齒常之, 豐, 朴述熙, 卜智謙, 姜民瞻, 崔瑩, 李舜臣, 金時敏, 鄭忠信, 靈圭, 趙憲, 南以興, 閔宗植, 崔益鉉, 金福漢, 李南珪, 金玉均, 宋秉瓚, 李商在, 李鍾一(21명)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학문의 빛 (名賢)	李存吾, 白頤正, 鄭仁卿, 白文寶, 韓文俊, 柳淑, 李詹, 李齊賢, 徐起, 宋翼弼, 李之菡, 趙翼, 姜栢年, 宋時烈, 金長生, 金集, 宋浚吉, 尹拯, 金正喜, 任聖周, 洪大容, 權認, 韓元震, 李束, 尹鑑, 李重煥(25명)
백성을 위한 벼품 (名臣)	孟思誠, 金宗瑞, 洪可臣, 梁誠之, 朴文秀, 蔡濟恭(6명)
영원히 전해질 명인의 솜씨 (技藝)	阿非知, 安堅, 申欽, 徐居正, 李參平, 任允摯堂, 申光洙, 姜世晃, 浩然齋, 南平曹氏, 金萬重, 李東伯, 金昌龍, 高壽寬, 韓成俊(15명)
바른 행실의 등불 (孝烈, 節義)	成忠, 興首, 福信, 道琛, 都彌婦人, 向德, 李穡, 吉再, 李成萬, 成三問, 朴彭年, 李塏, 金時習(12명)
구원을 향한 바람 (宗教)	謙益, 惠聰, 觀勒, 朗慧, 憬興坦文, 冲鑑, 普愚, 無學, 金大建, 崔良業, 李存昌, 姜完淑, 金恒(14명)
기타	聖王, 武寧王, 武王, 義慈王, 亡伊, 崔楊善, 蔣英實, 貞純王后(8명)

2) 기타

- ▶ 개별 인물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연관 인물을 묶어서 서술한다. ('성충과 홍수')
- ▶ 숨겨진 인물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3. 시술 사례

백제 충절의 상징, 계백

『삼국사기』 계백 열전 / 부여 팔총리에서 태어난 계백 / 계백, 그는 누구인가? / 계백의 출생 설화 / 혼란했던 계백의 시대 / 황산벌의 결전 / 되살려지는 계백의 혼 / 계백을 기리는 유적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성만 형제

이성만 형제는 ‘의좋은 형제’의 실존 인물 / 21세기에도 실천 가능한 이성만 형제의 효행 / 현존 최고(最古)의 효행비 : 효제비인가, 우애비인가

이지함과 영원한 베스트 셀러 ‘토정비결’

기인 이지함, 다양하고 개방적인 학문 / 꿈많은 ‘경제 사상가’ / 애민의 실천가, 현감 이지함 / 새해의 베스트 셀러 『토정비결』

천주교 ‘내포의 사도(使徒)’ 이존창

이존창은 누구인가? / 이존창의 입교와 복음 전래 / 내포 교회의 설립 / 신앙의 시련을 딛고, 이존창 생가터

조선왕조의 마지막 선비 면암 최익현

정도를 지키고 이단을 물리치자 - 위정척사 / 도끼를 들고 상소하다 / 오랑캐 세상이라 하늘도 무심한데 - 대마도 유배 / 그를 기리는 유적들

백제 충절의 상징, 계백

『삼국사기』 계백 열전

「계백(階伯)은 백제인이다. 벼슬은 달솔(達率)에 이르렀고, 의자왕 20년(660)에 당나라 고종이 소정방을 신구도대총관(神丘道大總管)으로 삼아 군대를 이끌고 바다를 건너 신라와 더불어 백제를 칠 때 계백은 장군이 되어 결사대 5천 명을 뽑아 이에 대항하였다. 이 때 계백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이제 당나라와 신라가 연합한 대군을 맞아 싸워야 하니 국가의 존망과 나의 목숨이 어찌될 지를 예측할 수가 없다. 혹여 내 처와 자식들이 포로로 잡혀 노비가 될 지 모르는데, 살아서 욕을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쾌히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면서 가족을 모두 죽였다. 황산벌에 이르러 세 진영을 설치하고 신라의 군사를 맞아 싸울 때 못 사람에게 맹서하기를 “옛날 구천(句踐)은 5천 명으로 오나라 70만 군사를 격파하였다. 오늘은 마땅히 각자 용기를 다하여 싸워 이겨 국은에 보답하자”고 하였다. 드디어 힘을 다하여 싸우니 한 사람이 천 사람을 당해냈다. 신라 군사가 이에 물러났다. 이처럼 진퇴를 네 번이나 하였다. 그러나 마침내 힘이 다하여 죽었다.”

『삼국사기』에 실린 백제 충신 계백의 행적을 기록한 열전의 내용은 매우 짧지만, 애석하게도 사실상 우리가 아는 한 계백 장군에 대한 가장 상세한 기록이다. 백제가 멸망하면서 역사에서 잊혀진 계백에 대한 기록과 사실들은 참으로 아쉬울 따름이다.

그러나 계백은 되살아나서 우리에게 백제의 정신을 전해주는 상징이 되고 있다. 패장이지만, 백전백승의 장수보다도 잘 알려진 명장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으며, 백제 후예들의 그에 대한 애정은 자못 크고 또 크다.

三國史記卷第四十七
夫知之拔劍斬比軟首投之城外乃告軍士曰
忠臣義士死且不屈勉哉努力城之存亡在此
一戰乃奮拳一呼病者皆起爭先登而士氣疲
乏死傷過半賊乘風縱火攻城突入匹夫與上
千本宿謀支齊等向賊對射飛矢如雨支體穿
破血流至踵乃仆而死大王聞之哭甚痛追贈
級食
階伯百濟人仕為達率唐顯慶五年唐高宗
以蘇定方為神丘道大總管率師濟海與新羅
伐百濟階伯為將軍簡死士五千拒之曰以
一國之人當唐羅之大兵國之存亡未可知也
恐吾妻孥沒為奴婢與其生辱不如死快遂盡
殺之至黃山之野設三營遇新羅兵將戰誓衆
曰昔句踐以五千人破吳七十萬衆今之日宜
各奮勵決勝以報國恩遂鏖戰無不以一當千
羅兵乃却如是進退至四合力屈以死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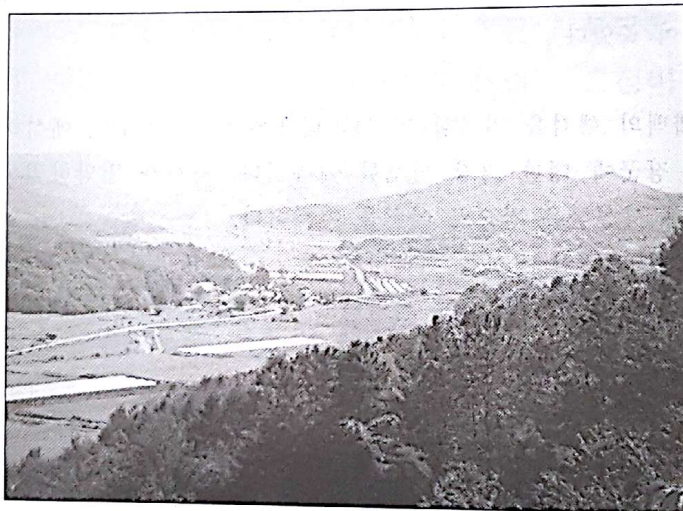
『삼국사기』에 기록된
계백전

부여 팔충리에서 태어난 계백

계백(階伯, ?~660)은 의자왕 20년(660) 나·당 연합군이 탄현을 넘어 쳐들어오자 결사대 5천명을 거느리고 황산벌에서 적을 맞아 싸우다 전사한 명장이다. 계백은 비록 전투에서는 패배했지만 승리한 장수 못지 않은 대단한 지휘관이었다. 10배가 넘는 적을 맞아 4차례나 승리하고 안타깝게도 힘이 모자라 패할 수밖에 없었다.

계백에 대한 기록이 최초로 보이는 것은 『삼국사기』에서이다. 『삼국사기』에는 계백이 벼슬에 나아가 ‘달솔(達率)’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을 뿐 그가 언제, 어디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가계가 어떠했는지도 불분명하다.

다만 계백의 출신에 대해서 고종 2년(1865)에 김정호가 편찬한 『대동지지』 「사원조」에는 ‘이름은 승이며 백제동성이다(名升 百濟同姓)’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그에 대한 기록 중 가장 자세한 『삼국사기』 계백열전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이름과 성을 기록하고 있는데 주목된다. 이것으로 백제 동성이란 바로 백제의 왕성인 부여씨와 같은 성이라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근거는 모두 불명확한 실정이다. 실제로 『대동지지』를 편찬한 김정호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기록했는지도 확실치 않다.



<사진>

계백이 태어났다고 전해지는 충화면 팔충리 일대

그러나 그가 부여 태생이었음은 분명하다. 그것은 『신증동국여지승람』·『동국여지』·『충청도읍지』·『호서읍지』 등 각종 읍지류에 계백이 부여현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욱 흥미로운 것은 『여지도서』와 『호서읍지』의 임천군 「고적조」에는 아예 “팔충면은 세간에 전해지는 얘기로 백제의 충신 성충·계백 등 팔충신이 여기에서 태어나 그렇게 불리었다(八忠面 俗傳 百濟忠臣 成忠·階伯等 八人 生於此土 故仍名焉)”고 하여 지금의 충화면 팔충리를 그의 태생지로 못박아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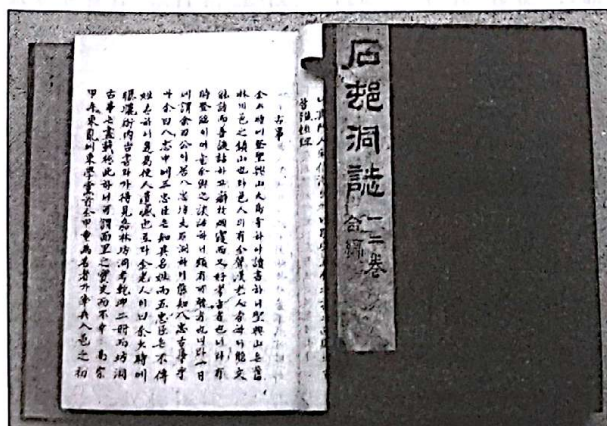
이것은 팔충면 일대에 전승되던 전설과 구전들이 조선시대 읍지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팔충리 일대에는 계백 장군이 전장에 나갈 때 자신이 사용하던 우물 안에 그런 돌을 넣어 표시하고 떠났다 하여 ‘표뜸’이라고 이름 붙여진 천등산 상천마을, 그리고 계백 장군이 수련할 때 바위에 자국이 생겼다는 장수 발자국 바위 등 계백과 관련된 많은 지명과 설화들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

계백, 그는 누구인가?

한편 계백은 벼슬길에 나아가 달솔(백제 16관등 중 제 2등, 달솔은 중앙에서는 5부의 책임자였으며, 지방에서는 五方의 장관적인 方領을 역임할 수 있었음) 벼슬까지 지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왕족이 아니면 최고의 관직에 오른 것이라 보여지는데, 현재로서는 계백의 출신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벼슬이 귀족출신으로 당연히 그렇게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능력을 바탕으로 출세했던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팔충리 일대에 전해지는 설화적인 이야기를 통해 이같은 계백장군의 출신기반에 대한 이해를 추가할 수는 있다. 충화지역에는 계백의 출생에 대한 전설이 지금까지 전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계백의 출생 설화

「계백은 부여의 충화(忠化)에서 태어나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낮에는 백충(百忠) 천등산(天燈山)을 달려 오르내리며 무술을 연마하고 밤에는 글을 읽었다. 어머니는 아들의 무술 공부에 큰 과제를 주었는데, 그것은 “백충제에서 천등산 마루의 과녁을 향하여 활을 쏘고 그 화살보다 빨리 달려가서 화살이 과녁에 꽂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야 조정에 나아가 벼슬길에 오르라”는 분부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명을 좇아 매일같이 궁도를 닦으며, 활을 쏜 후면 재빨리 말을 몰아 천등산에 올랐으나 화살보다 빨리 갈 수는 없었다. 고심하고 있는데 하루는 이변이 생겼다.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나 말을 물어 죽이고 제 등에 탈 것을 권하였다. 장군은 호랑이의 등에 앉아 천등산 꼭대기를 향해 활을 쏘니 호랑이는 순식간에 달려서 과녁 판에 이르렀으며, 화살은 그 후에야 명중되었던 바 이 호랑이가 바로 비호였다고 한다. 백제의 궁성에서 왕이 밤마다 서편 하늘에 매달린 듯 반짝이는 불빛을 보며 이상히 여겨 하루는 신하를 보내어 살펴보고 오도록 명하였다. 명을 받은 신하가 말을 달려 천등산에 이르러 등불이 반짝이는 곳에 도달하였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그는 아주 놀라운 광경을 발견하였으니, 건장하고 잘 생긴 장사 한 사람이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를 데리고 앉아서 열심히 글을 읽고 있는 것이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의자왕은 곧 이 장사를 조정에 불러 장군을 삼았다.」 (『논산군지』 1994)



<사진>

계백과 관련된 고사가 전해지는
지석동지

계백의 신분은 전설의 내용으로 보아 그의 집안이 한미하였거나 또는 몰락한 귀족이었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궁술 및 비호와의 관계 등에서 그의 무예가 뛰어났음을 생각하게 한다. 이 내용을 그대로 신빙할 수는 없지만 당시 백제 귀족들의 출신이 유력한 재지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점과 비교해 볼 때 계백은 그들과 정치기반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즉 출신기반보다 계백은 자신의 뛰어난 능력에 의해서 관직에 진출하여 달솔의 관등까지 승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되는 것이다.

혼란했던 계백의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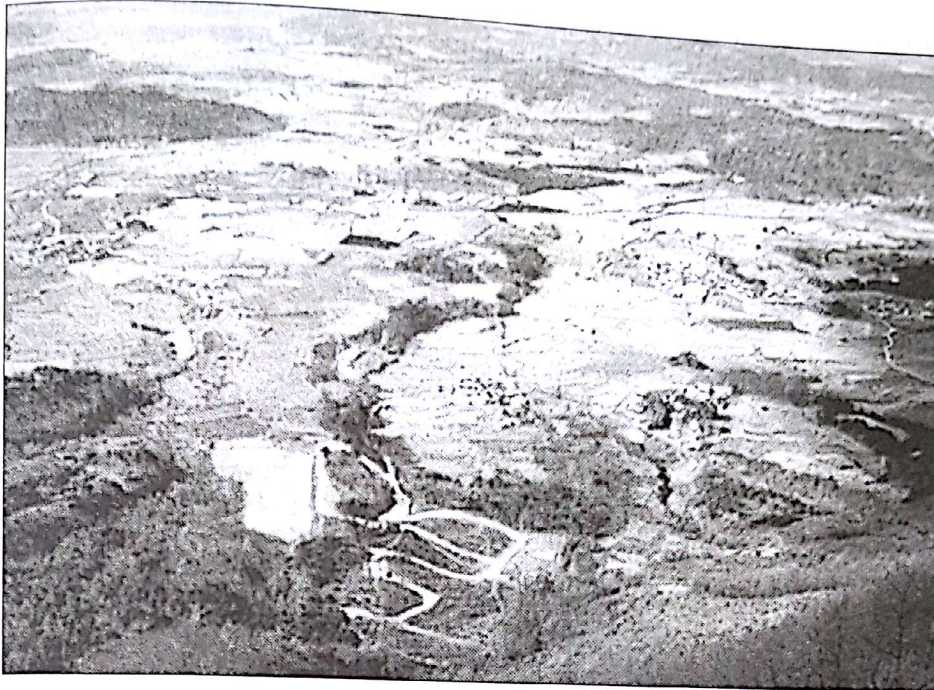
의자왕이 처음 즉위했을 때 백제는 큰 발전이 있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의자왕은 태자 때부터 효로써 부모를 섬기고 형제와 우애하여 해동증자(海東曾子)로까지 칭송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의자왕은 안으로 귀족의 발호를 적절히 제어하고 왕권을 강화시키는 한편 밖으로는 신라를 공격하여 곤경으로 몰아넣었다.

한반도 내에서 고립에 빠진 신라는 당나라와 연합하고, 백제의 혼란을 틈타 결국 의자왕 20년(660) 동맹군은 백제를 침략하게 된다. 당나라 장군 소정방(蘇定方)은 13만 대병을 이끌고 산둥반도를 출발하여 덕물도에 정박하였으며, 동시에 신라측에서는 김유신이 5만의 병력을 거느리고 동부전선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같이 황급한 지경에 이르러서도 백제의 조정은 철저한 방어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의견 통일이 되지 않은 와중에 결국 당나라 군대는 백강을 통해 상륙하여 사비도성으로 진격해오고, 신라군도 탄현을 넘어 다가오고 있었다. 이에 왕은 급히 계백을 시켜 결사대 5천명을 거느리고 황산으로 가서 신라군사와 싸우게 하였다.

황산벌의 결전

급히 나아가 신라군을 막으라는 명령을 받은 계백은 5천 결사대를 이끌고 전선으로 나갔다. 그때 그는 처자를 모두 죽이고 나가는데 앞에서 잠시 소개한 것처럼 당시의 상황을 『삼국사기』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계백은 장군이 되어 결사대 5천 명을 뽑아 대항하면서 말하기를 우리 백제국 혼자서 당나라와 신라의 대군을 당해내야 하니 국가의 존망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 내 처와 자식들이 포로로 잡혀 노비가 될 지 모르는데, 살아서 욕을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패히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하고는 그의 처자를 모두 죽여 앞으로 있을지 모를 후환의 염려를 미리 없애고,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것을 각오하였다.」
비장한 각오를 한 계백은 5천의 결사대를 이끌고 지금의 충남 논산시 연산면 신량리 일대인 황산벌(黃山野)로 나아갔다. 황산벌은 금강 북쪽의 논산평야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금강에 연하여 큰 산들이 이어져 있는 국방상의 요지였다.
우선 계백은 황산벌에 도착한 후 중요한 지형에 병력을 셋으로 나누어 3영을 설치했다.



<사진> 황산벌 전경

이때 설치한 3영은 계룡산 줄기가 남쪽으로 뻗어 나온 황룡재에 있는 황룡산성(黃龍山城)에 좌군을, 그리고 산직리산성(山直里山城)에 중군을, 오른쪽에 있는 신흥리산성(新興里山城)에 우군을 각각 배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 계백의 3군영 설치의 지형지세를 이용한 전략의 수법이었다. 수적으로 적은 군대를 이용한 군사력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것이었다. 계백은 적은 병력을 세 갈래로 배치해 적군을 유인하면서 대병력의 분리·분산을 시도했던 것이다. 이러한 용병술에 대해 조선시대 후기의 학자인 안정복은 『동사강목(東史綱目)』에서 “계백이 험한 곳에 의지해 군영을 설치한 것은 지(智)의 표상이다”라고 하여 높이 평가했다.

『삼국사기』 계백열전에는 그가 군사의 배치를 마친 후, 신라군과의 전투에 앞서 병사들에게 “옛날 구천(句踐)은 5,000명으로 오나라 70만명의 군사를 무찔렀다. 오늘은 모두 다 기운을 내어 열심히 싸우고, 마지막 승부를 가려 국에 보답하자”고 하며 맹세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 구절은 군사들에게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불어넣는 것인데, 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히 대적하게끔 사기를 격발시키고 있는 대목이다. 계백은 전쟁에 임하게 될 군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한편 비장감을 갖도록 해서 불리한 형국이었지만 심리적으로 승리를 유도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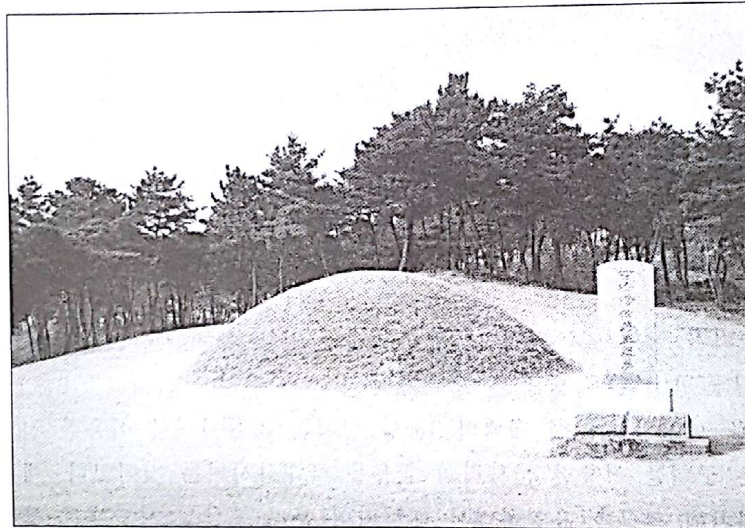
보다 유리한 지형을 먼저 확보하고, 드높은 사기를 바탕으로 한 계백의 5천 결사대는 신라의 5만 대군을 상대하여 매우 효과적이면서 강력한 대응을 하였다. 그래서 네 번 싸워 네 번 모두 이길 수 있었다. 이에 신라군사들은 모두 기진맥진하였다. 신라는 이러한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 반굴과 관창을 출전시켰다. 반굴은 죽고 관창은 계백에게 사로잡히게 되었는데 『삼국사기』 「관창전」에 이 내용이 전한다. 계백은 사로잡혀온 관창의 갑옷을 벗겨본 후 그의 나이가 어리고, 용감함을 아껴 살려보내었다. 이때 그는 “신라와는 대적할 수 없겠

구나. 소년도 오히려 이런 정도이니, 하물며 장사들은 어떻겠는가!"라고 탄식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살려서 돌려보낸 관창이 다시 달려 들어오자 사로잡아 이번에는 목을 베어 돌려보냈다. 계백의 넉넉한 성품이 드러나는 이 일화는 지금도 유명하다.

하지만 백제군은 반굴과 관창 등 어린 화랑의 전사로 사기가 오른 신라의 대군과 대적하기에는 그 수가 너무 적었다. 결국 백제군이 패하여 계백은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

되살려지는 계백의 혼

계백의 충절 행적과 일화는 후대인들의 높은 칭송의 대상이 되었고, 특히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에게는 충절의 표본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처음부터 계백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사진>

계백 장군 묘소

조선 초기 성리학자인 권근(權近, 1352~1409)은 그의 문집 『양촌집(陽村集)』에서 그를 가리켜 “첫째 무도하고, 둘째 도의에 어긋나고 잔인하다”고 평했다. 게다가 “먼저 사기(士氣)를 떨어뜨려 싸우기도 전에 남에게 굴복하게 됐다”는 비난을 쏟았다. 계백이 전장에 나가기도 전에 자신의 처자를 먼저 죽였음은 패할 줄 알았다는 것이요, 병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만들었다는 아주 부정적 평가를 내렸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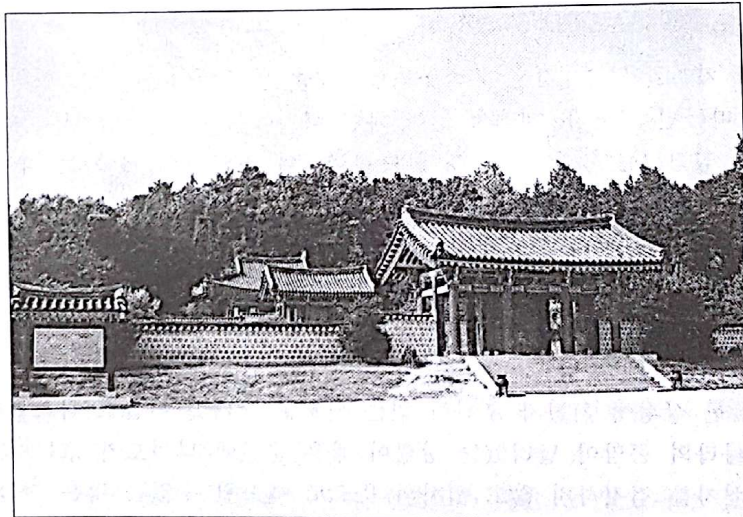
그러나 서거정(徐居正, 1420~1488) 등이 성종 16년(1485) 왕명을 받아 완성한 『동국통감(東國通鑑)』에서는 계백의 행동을 높이 평가하여 말하길, “당시 백제가 망하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기에 자신의 처자가 욕을 당하지 않도록 몸소 죽이고, 자신도 싸우다가 죽은 그 뜻과 절개를 높이 사야 한다”고 하였다. 더구나 백제가 망할 때에 홀로 절개를 지킨 계백이 야말로 옛 사람이 이른바 “나라와 더불어 죽는 자”라고 칭송하였다. 이러한 칭송이후 조선 시대 유학자들간에는 계백을 충절의 표본으로 여기는 평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조선 중기의 학자인 최부(崔溥, 1454~1504) 같은 이는 그의 문집 『금남집(錦南集)』에서

「사람을 논함에 지조와 절개를 가지고 논해야 하는데, 계백은 나라가 반드시 망할 것

웅이취사(熊魚取捨, 좋은 것을 선택한다는 뜻)는 바로 이때 있는 것이니 어찌 한가닥 목숨을 차마 끊지 못하여 끝없는 치욕을 당할 것인가. 이것은 그렇지 않다. 대체 장수가 되는 도(道)는 무엇보다 내 집과 내 몸을 잊은 뒤라야 사졸들의 죽을 결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니, 만약 조금이라도 내가 먼저 살고자 하는 마음을 둔다면 군심(軍心)이 해이해져 각각 제 살 궁리와 처자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법이다. 이것이야말로 더없이 사기를 저상(沮喪)시키는 것이다. 권씨[권근]는 계백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방법도 몰랐다」

라고 권근의 의견을 반박했다. 그리고 안정복은 『삼국사기』에 계백의 관창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계백이 관창을 잡았다가도 죽이지 않은 것은 인(仁)이며, 두 번째 잡았을 때 죽여 그 시체를 돌려보낸 것은 의(義)요, 중과부적으로 마침내 죽은 것은 충(忠)”이라고 평가했고, 계백을 장수로서의 이상적 덕목을 모두 갖춘 불세출의 영웅으로 보았다. 그랬기에 안정복은 “삼국시대에 충신과 의사가 물론 많았지만 사전(史傳)에 나타난 것으로 말한다면 마땅히 계백을 으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양촌(陽村, 권근)은 일세의 유종(儒宗)인데도 그 말이 이리하였으니, 후인들이 정말로 그런 것이라고 믿지나 않을까 하는 까닭에 (계백을 위해) 변론해 두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

의열사 전경

계백을 기리는 유적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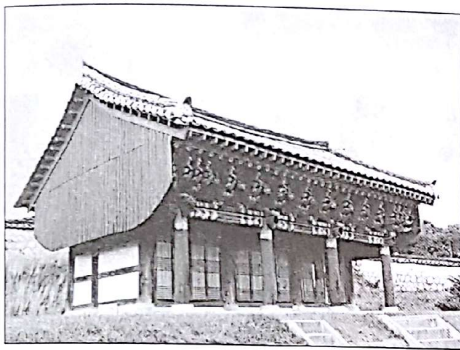
계백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조선시대 들어서 여러 서원과 사우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부여의 의열사, 삼충사, 팔충사, 그리고 논산의 충곡서원이 그것이다.

의열사는 선조 8년(1575)에 당시 현감이던 홍가신(洪可臣)의 주도하에 세워진 사우이다. 그가 사우를 건립하게 된 경위는 유성룡의 『서애집』에 실린 「의열사기(義烈祠記)」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여는 옛 백제의 도읍한 터이다. 그 신하들 중에 죽음으로써 직간을 한 사람은 좌

평 성충이요, 궁액을 치르면서도 원망함이 없이 위업을 무릅쓰며 충성을 다한 사람은 좌평 홍수요, 생명을 버리고 충절로써 나라를 지키 간 사람은 장군 계백이었다. ...중략... 서 부서(簿書)와 문안(文案)을 정리하는 여가에 지도를 참고하고 역사를 열람하다가 네 사람(성충·홍수·계백·이존오)에 대한 기록을 발견하고는 길이 감탄하면서 말하기를, “아! 이것이 어찌 수령된 사람의 책임이 아니겠는가?”하였다. 이에 현의 부노들과 상의한 결과 사당 건립을 도모하게 되었다.»

라고 하여 홍가신이 의열사를 세워 계백을 비롯한 충신들을 제향하게 된 연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의열사가 처음 창건될 당시 계백과 관련된 일화가 『대동야승(大東野乘)』에 전



<사진> 삼충사(좌)와 충곡서원(우) 전경

하고 있다. 이는 처음 사우를 건립할 당시의 일화로 서애 유성룡(柳成龍)의 「서원기(書院記)」에도 전하고 있다. 사우가 처음 세워진 후, 성충을 비롯한 홍수, 계백, 이존오 등의 제향 인물들이 홍가신과 집사의 꿈속에 나타나 감사의 뜻을 전한다는 일화이다.

또한, 최근 들어 삼충(三忠)에 대한 개념이 자리잡고 확산되면서 부여에는 삼충사라는 백제의 삼충신인 성충(成忠), 홍수(興首), 계백(階伯)을 모신 사우도 건립되었다. 이 사우는 본래 청마산성(靑馬山城)내 의열사(義烈祠)에 봉안되어 있던 삼충신의 위패를 1956년에 지방유지들이 삼충신의 위패를 부소산 남중북에 별도의 사우를 건립하여

제향하기로 하였다. 사우건립에는 유진설(兪鎭高)이 삼충사 봉건기성회를 조직하여 책임을 맡고, 군수 박흥양(朴興陽)과 교육감 이만승(李萬承)이 협력하였으며, 건립비용은 관민의 의손금(義損金)과 국도비의 협조를 얻어 1957년에 준공하고 개천절에 위패를 봉안하였다.

팔충사는 계백과 성충, 홍수, 승장 5인 즉 팔충신을 모신 사우로써 1980년에 삼충사 목조 건물을 옮겨 건립하였다. 이밖에 계백과 관련된 것으로는 부여군청 앞 네거리에 계백의 동상이 있고, 계백 관련 행사로는 백제문화제 기간중 실시되는 팔충제와 삼충제 그리고 오천결사대충혼제가 있으며 최근 부여군에서는 화지산에 계백장군 오천결사대 충혼탑이 건립되어 있다.

<참고문헌>

- 盧忠熙, 1965, 「黃山벌의 孤魂 階伯」, 『人物韓國史』 1, 人物韓國史編纂會:博友社
- 洪思俊, 1967, 「炭峴考-階伯의 三營과 金庾信의 三道-」, 『역사학보』, 역사학회
- 成周鐸, 1990, 「百濟 炭峴 小考; 金庾信將軍의 百濟攻擊路를 中心으로」, 『백제논총』, 백제문화개발연구원
- 閔東根, 1994, 「百濟의 節義精神」, 『百濟의 宗教와 思想』, 忠淸南道
- 부여군, 2000, 『백제 계백 및 팔충신 학술조사보고서』, 부여군·충남발전연구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성만 형제

이성만 형제는 ‘의좋은 형제’의 실존 인물

이성만 형제의 우애에 대한 에피소드는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이 이야기가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옛날에 실제 있었던 실화라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가 대흥 이성만 형제 이야기라는 사실은 알려져 있지 않았다. 1964년 이후 초등학교 2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에 실린 이성만 형제 이야기는 <의좋은 형제>라는 제목으로, 어린이들 수준에 맞추어 각색되어 있다.

이성만 형제는 고려말 조선초 예산 대흥출신의 유명한 효자이다. 이들 형제가 특별히 오늘 우리의 시대에 관심을 끄는 것은, 이들의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성과 함께 특별하였던 형제 우애의 사실이 기록과 구전의 형태로 오늘에까지 전하기 때문이다. 한밤중에 벼단을 서로 지고 나르던 초등학교 교과서에서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성만 형제의 우애라고 하는 사실은 지역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는 일이다.

이성만 형제의 효성과 우애에 대해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하여 조선조의 각종 자료와 읍지 등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의 효행과 우애를 기리는 비석이 지금도 대흥면 동서리 대흥현 관아의 앞에 위치하고 있다. ‘예산 이성만 형제 효제비’라는 이름으로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02호로 지정되어 있는 비석이 그것이다. 이성만 형제의 우애는 금석문 자료에 의해서도 입증되고 있어서, 지역에 있어서 대단히 큰 자긍심을 가질만한 자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삽화> 달밤에 맞닥뜨린 ‘의좋은 형제’(2차 교육과정 초등 국어 삽화)



<사진>

대홍면사무소 앞
이성만 형제상

이성만 형제의 행적중 보다 중요한 것은 이성만과 이순 두 형제간의 우애이다. 전통적인 우리의 가정윤리에서는 효(孝)와 열(烈) 등 상하관계에서의 윤리가 강조된 반면, 형제간의 우애와 같은 상대적으로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윤리는 덜 중요시되었다. 이는 수직적 윤리가 잡히면 이에 따라 자연히 수평관계에서의 윤리도 함께 안정된다는 생각에서였을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충·효·열의 무수한 사례에도 불구하고 형제 우애에 대한 사례는 별로 기록에 남지 않게 되었다. 이성만 형제의 우애도 따지고 보면, 그의 효행 때문에 남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그의 효행에 대한 언급에 형제간의 우애 이야기가 덧붙여 전해지게 된 것이다.

이성만과 이순, 이들 형제간의 우애에 대한 이야기는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나는 아침 저녁으로 서로 간에 집을 찾았다는 것이다. 아침에는 형이 아우의 집에, 저녁에는 아우가 형의 집을 찾았다는 것이다. 『동국여지승람』에서는 이를 바꾸어서 아침에는 동생이, 저녁에는 형이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침에 형이 먼저 아우의 집을 찾았다는 『세종실록』이나 우애비의 기록이 이른 기록일 뿐아니라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의 형제간의 우애와 애정의 한 전형인 것이다. 또 하나는 이들 형제가 음식을 항상 함께 나누었다는 것이다. 아침 저녁 식사를 항상 함께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은 형제의 집이 그렇게 먼거리가 아니었음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어떻든 음식을 함께 함으로써 형제간의 정을 항상 확인하고 너와 나의 구별이 없는 일체된 생활을 영위하였던 것이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동국삼강행실도』에는 이성만의 효행과 우애를 그림으로 그린 것이 있는데, 이 그림은 형제가 서로 아침 저녁으로 아우네, 형네를 각각 찾아간 모습인 것이다. 그림에 그려진 이 두 체의 집중 왼쪽이 동생 순의 집이고, 오른쪽이 형인 성만의 집일 것이다. 오른쪽 형의 집에서는 형 성만이 방 가운데 팔을 소매에 넣고 정좌한 반면, 동생은 무릎을 꿇고 있어 여기가 형의 집이며 저녁에 동생이 형의 집에 찾아온 모습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왼쪽은 두 사람이 모두 밖에 서있지만, 동생 순이 좀더 안쪽에 위치하여 소매에 손을

넋은 모습으로 서있어, 여기가 동생의 집이며 아침에 형이 방문한 것임을 보여준다.
 문헌기록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성만 형제의 우애에 대해서는 밤중에 벗가리를 서로 물
 래 가지다 놓는 유명한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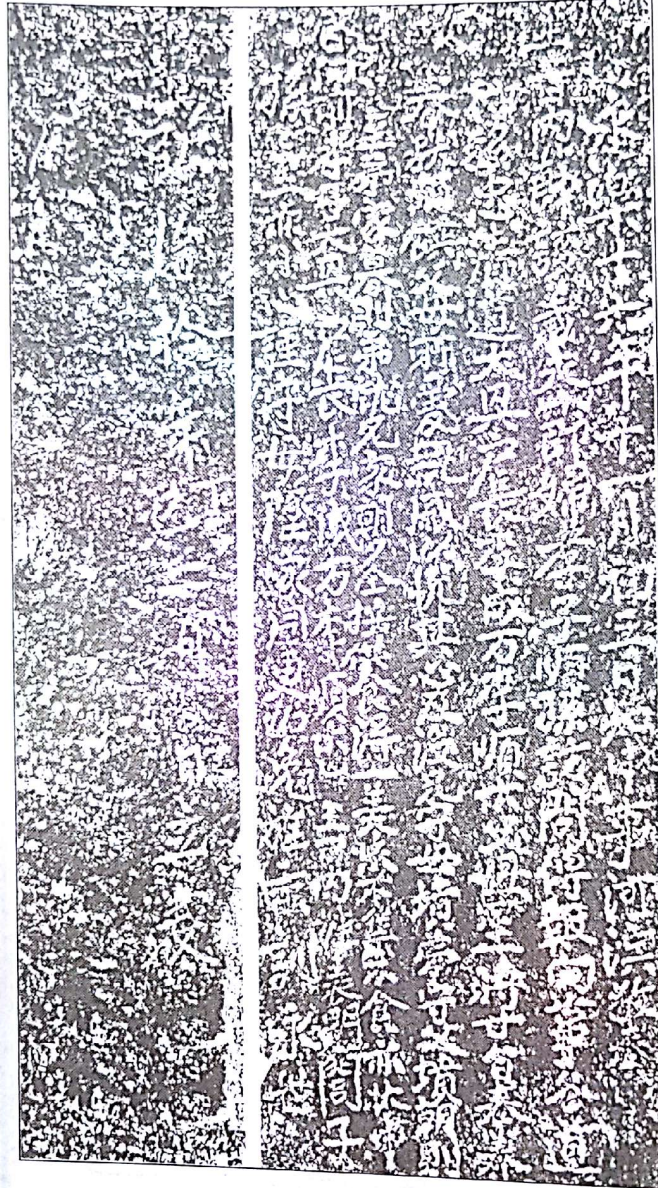
“옛날이 어기 그 참 우애좋은 성제(형제), 이성만 성제가 살았다는 기. 근디 서루
 (서로)를 생각해 보니 아무래두 자기보다는 성이 부족할 기 같구, 또 성은 동생이 부족
 할 기 같구 허니, 서로 벗가리를 갖다가 날랐다는 거. 그리 서루 그러니까, 하루는 내
 벼를 갖다가 성의게 뒀으니게 내가 죽을(적을)텐데, 되려 많어지구, 형은 또 내가 아우
 게 갖다 뒀는디 또 자기 벼가 많어지구 이상하거든. 서루 바꿔치기를 했던 말여. 그런
 짓을 반복되게 했다 이거여. 그러니까 인지 그런 짓을 몇번 서루 반복되다가 서루 만
 났어. 벗가리를 줌어지구, 벼짐을 줌어지구 서루 만났어. 달밤이 만나니, 이렇기 보니까,
 한 사람은 형이요, 한사람은 아우라 이거여. 그 때서 그 두 성제가 말이지, 우애 깊은
 (깊은) 성제덜이 마주 붙잡구, 지계를 줌어진 채 서루 붙잡구 눈물을 흘리면서, 정다운
 우애지심을 갖다 베풀었다는 얘기여.” (1999.6.29. 대흥면 동서리 거주 79세 윤호영 구
 술)



<그림> 정성들여 시묘하는 이성만 형제 모습(위)
 아침 저녁 서로의 집을 찾는 이성만 형제 모습(아래)

21세기에도 실천 가능한 이성만 형제의 효행

이성만과 이순 형제가 역사에 남게 된 것은 그들의 우애 때문이라기보다는, 효행 때문이었다. 이 점에서 우선 이성만 형제의 효행에 대하여 먼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성만 형제의 효행에 대한 옛 문헌에서의 기록을 먼저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탁본>

이성만 형제 우애비

탁본

대흥 호장 이성만은 그 아우 順과 더불어 부모를 잘 섬겨 마음을 다하여 맛있는 음식으로 봉양하고, 매양 봄 가을에는 술과 음식을 갖추어 부모의 아끼는 친구들을 모시고 잔치를 베풀어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하였다. 돌아가신 뒤에는 형은 어머니의 무덤을 지키고, 아우는 아버지의 무덤을 지켰다.(大興戶長 李成萬 與其弟順 事父母 盡心 甘旨奉養 每春秋 具酒食 致父母所愛親舊宴樂 以悅其心 及沒兄守母墳 弟守父墳)『세종실록』 (세종2년 정월 경신)

충청도 대흥호장 이성만과 李順 등은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맛있는 음식으로 봉양하고 돌아가실 때는 맛있는 음식으로 부모님이 아끼는 친척으로 함께하여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다. 돌아가신 뒤에는 형은 어머니의 무덤을 지키고, 아우는 아버지의 무덤을 지켰다. (忠淸道 大興戶長 李成萬李順等 父母生時 甘旨奉養 春秋滋饌 父母所愛親戚 以悅其心 及沒兄守母墳 弟守父墳) **대흥 이성만 형제 우애비** (연산군 3년, 1497)

위의 기록에는 이성만 형제의 효행이 두 가지로 크게 정리되어 있다. 즉 부모님 생전에는 부모의 친지를 초청하여 정기적으로 잔치를 베풀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것이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수분(守墳)' 즉 부모의 산소를 지키는 여묘(廬墓)를 행했다는 것이다. 부모 사후 부모의 묘소를 지키는 여묘는 조선시대라면 '효자'의 필수과목이라 할만큼 일반화된 행위이다. 여묘는 묘소 옆에 초막을 짓고 일정기간(보통 3년의 喪期)을 슬피하며 지내는 것인데 그 기간동안 사회생활을 중단하는 것이어서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이성만 형제의 수분은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3년의 상기(喪期)동안 행해진 전형적인 여묘(廬墓)의 사례였다.

『동국삼강행실도』는 전통윤리의 대표적 사례를 모아 그림으로 정리한 조선시대의 흥미있는 자료인데, 여기에 이성만 형제의 행적이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다. 비록 당대의 것이 아니고 다분히 도식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이성만 형제의 인물과 행적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흥미있는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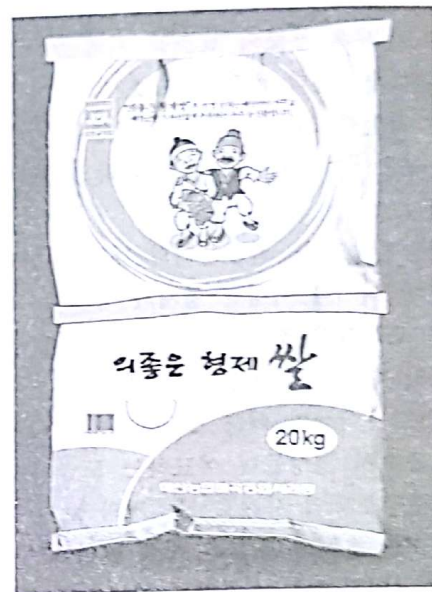
이 그림에는 이성만 이순 두 형제의 모습이 그림으로 묘사되어 있고, 이들이 3년상 기간 중 부모묘소에서 정성들여 여묘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런데 앞에 언급한 부모 친지에 대한 잔치는 '효행'의 사례로서는 거의 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례이다. 고려 조선조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효행의 유형은 여묘 이외에 부모 간병(看病)이 있다. 간병의 방법으로 허벅지살을 베어 봉양하거나, 손가락을 자르거나, 환자 상태의 진단을 위하여 대변의 맛을 보거나, 난치병을 기도로 치유하는 사례들이다. 간병 이외에는 전란시에 부모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던진 사례, 부모 원수에 대한 복수 등이 있다. 이러한 유형에 비추어 볼 때 대흥 이성만 형제의 효행은 고려 혹은 조선시대 다른 이의 효행사례와는 그 유형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우선 주목하게 된다.

부모 생전 부모의 친지들을 춘추로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 이성만 형제의 효행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주목된다. 첫째 전통적인 '효행'의 일반적 유형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극히 이례적인 사례라는 점이다. 이같은 효행이 가능했던 배경의 하나로서는 이성만 형제가 경제적으로 비교적 여유가 있는 집안이었기 때문일 것임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둘째는 이 효행례는 매우 생활적이고 자연스러운 효행사례여서, 오늘날 사는 현대의 우리들에게도 바로 적용 가능한 효행사례라는 점이다. 옛날의 효행사례 대부분은 그 정신적 측면을 논외로 한다면 거의 오늘날 실행 불가능한 사례들이다. 사회생활을 전폐하는 여묘 3년이나, 간병을 위하여 허벅지를 베고 손가락을 자르거나, 기도하여 한겨울에 잉어나 딸기를 구한다는 이야기는 말하자면 오늘날의 우리에게 현실성 없는 전설적 이야기에 불과한 때문이다. 그러나 이성만 형제의 효행은 극히 생활적이며, 오늘에 있어서도 일반화할 수 있는 극히 현실적인 사례라는 점이다.

이성만 형제의 효행 사례, 특히 친지들을 초청하여 종종 잔치를 베풀으로써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많다. 남에게 베푸는 것을 통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행복한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다. 호장 이성만의 가족이 선대로부터 극히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인격적으로도 극히 성숙한 부모와 가족, 말하자면 모범 가정이었음을 짐작하게 된다. 한가지 덧붙인다면 이성만의 부모중 아마 모친이 먼저 작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성만이 모친의 무덤을, 그리고 동생 순이 아버지 무덤을 여묘한 것에서 이를 짐작할 수 있다. 만일 아버지가 먼저 작고하였다면 형인 성만이 선친의 묘를 면제 지키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흥호장 이성만 형제는 그 효행으로 인하여 세종임금으로부터 포상을 받게 된다. 그 내용은 “마을에 정문(旌門)을 세워 포창하고, 그 집의 요역을 면제”케 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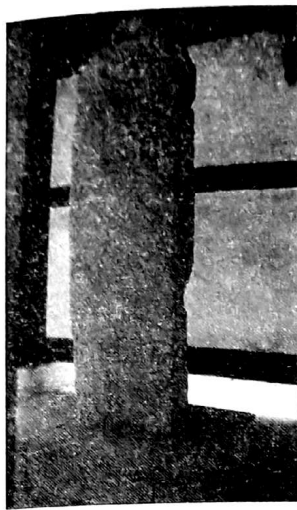


<삽화> 이성만 형제를 이용한 캐릭터와 활용 사례

현존 최고(最古)의 효행비 : 효제비인가, 우애비인가

1497년(연산군 3)에 세워진 이성만 형제 우애비는 현재 예산군 대흥면 동서리, 대흥관아 바로 앞에 세워진 비각 안에 안치되어 있다. 1978년 현재의 위치로 옮겨진 것이라 하며, 1983년 9월 29일자로 ‘예산 이성만형제 효제비’라는 명칭으로 충청도유형문화재 102호로 지정되었다. 동서리 우애비의 바로 가까운 곳(대흥면 상중리)에 거주하고 있는 이수 여사의 증언에 의하면, 이 우애비는 원래 상중리, 지금 감나무골 예당저수지변에 세워져 있었다고 한다. 비석의 실측치는 전체 높이 145cm, 비의 몸돌 110cm, 이수 35cm로 보고되어 있다.

석질은 화강석재이며 비신과 이수의 구분은 있으나 이를 별석(別石)으로 만든 것은 아니다. 이수의 뒷쪽에 북발 형태의 부조를 하였고 마모로 인하여 잘 보이지는 않으나 원래는 이수에 연꽃 무늬를 조각하였다. 비석의 돌은 다소 부정형하며 후면 측면 일부는 균열로 인하여 다소 손상되어 있다.



<사진> 이성만 형제 우애비(왼쪽)와 비각(오른쪽)

한편 이 비석의 건립은 세종 2년(1420) 이성만 형제의 포상으로부터 거의 80년이 지난 연산군 3년(1497)에야 이루어졌다. 비석의 건립자, 글쓴이, 지은이 등의 기록도 없이 건립 연대만 표시되어 있고, 글씨체는 형식에 덜 구애되어 자유롭게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글자의 크기가 고르지 않으며 글자체도 정자 대신 간자(약자)가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이두식 표기도 보이고 있다.

대흥의 마을사람들이 과거 이성만 형제의 효행을 기려 이를 기념하고 동시에, 효가리로서의 자부심을 확인하고 후손들을 교훈하기 위하여 건립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성만 형제 효제비는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효행비이다. 효행관련 사적으로는 신라효자로서 공주에 향덕 관련 유적, 그리고 경주에 손순 관련 유적이 있지만, 손순 유허는 단순히 공간을 기념으로 지정한 것이고 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공주의 향덕비는 18세기에 제작된 비석이다. 안동의 김자수는 고려말 조선초의 인물로서 '고려도관찰사'운운의 비가 있지만, 건립시기가 불분명하고 또 비석이라기보다는 마을의 표석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산청의 효감전은 조선초의 인물과 관련이 있지만, 샘에 관련된 설화일 뿐, 실제 샘의 조성 시기는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이성만 형제비는 건립 시기가 분명하고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효행비로서는 가장 오래된 문화재로 생각된다. 효행 관련 사적은 많지만, 우애비 혹은 형제 우애에 관한 구체적 자료는 많지 않다. 더욱이 형제 우애를 칭송하는 우애비로서는 현존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문화재로서 판단된다. 건립시기가 분명한 점, 그 시기가 조선초기로서 비교적 이른 시기의 자료라는 점도 중요하다.

<참고문헌>

『세종실록』, 『동국삼강행실도』, 『여지도서』

이항복, 1999, 『예산-예산의 문화유적탐방기』, 내포문화연구원

윤용혁, 2002, 「대흥 이성만 형제의 효행과 우애비」, 『예산군의 효행과 우애』, 예산군

이지함과 영원한 베스트 셀러 '토정비결'

기인 이지함

이지함(李之菴, 1517~1578)은 『토정비결(土亭秘訣)』의 저자로 유명하지만, '기인'으로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김시습·정림 등과 더불어 조선시대 3대 기인의 한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기인으로 또는 이인으로 불렀다.

그는 대지팡이 하나를 뱃삼아 방방곡곡을 누비고 다녔다. 그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걷다가 졸음이 오면 두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몸을 의지해 고개를 수그리고 잠을 잤다. 이렇게 잠을 잘 때에는 코고는 소리가 우뢰와 같았고 마소도 그 길을 지나가다가 부딪치면 도리어 물러섰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꿈쩍도 않고 잠을 깨지도 않았다고 한다. 또한 한서(寒暑)와 기한(飢寒)을 잘 참고 혹은 10일간이나 음식을 먹지 않아도 병이 나지 않았다고 전한다. 그의 기이한 행동은 야사류 자료에 풍부하게 전해져 민간에 친숙한 그의 면모를 알 수 있다.

『대동기문(大東奇聞)』에는 이지함이 스스로 상업행위에 종사한 일과 거지 아이에게 옷을 벗어 준 일화 등이 소개되어 있으며 『동패낙송(東碑洛誦)』에는 이지함이 괴상한 행동을 하다가 노인의 놀림을 받았다는 이야기와, 계집종의 유혹을 물리친 일화, 간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했다는 이야기, 고창 서기, 동주 성제원과 함께 한라산에 올라가 남극노인성(南極老人星)을 구경한 일 등이 기록되어 있다.



<사진> 이지함을 배향한 보령의 화암서원

언제가 그는 한 심에 들어가 박을 심 가득히 심었다. 박이 익자 모두 기두어서 저자에 내다 팔아 곡식을 사니 곡식이 몇 천섬이었다. 이 곡식을 마포로 싣고 와 마포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마포 빈민굴 한 가운데 토굴을 짓고 밤에는 토굴 속에서 잠을 자고 낮에는 토굴 위에 나와 지냈다. 그리하여 그때부터 마포 사람들이 그를 흠정자에 산다고 하여 '토정(土亭)' 선생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또한 전국을 산천을 두루 다니며 명당과 길지를 점지하였으며, 『농아집(耕啞集)』을 저술하여 어진 자에게 전하여 난을 구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당대 성리학의 대가 조식(曹植)이 마포로 찾아와 그를 도연명(陶淵明)에 비유하였다는 이야기도 유명하다. 토정 이지함은 세속적 욕망에 얽매이지 않고 몸과 마음의 평화를 추구한 자유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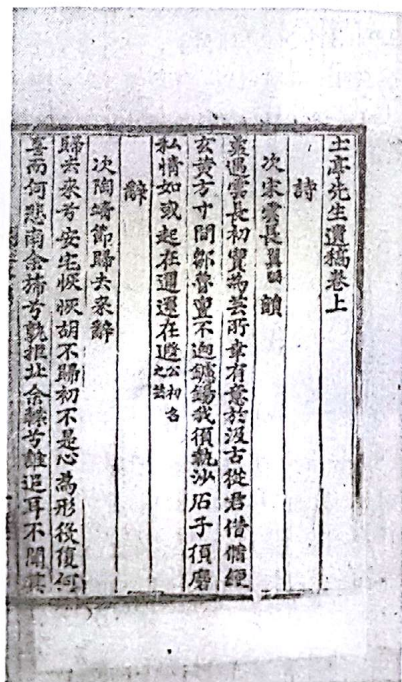
이러한 일화는 모두 이지함이 민간에서 격의 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 자신의 도움이 필요할 때 응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지함은 스스로에게는 철저히 엄격했으나 일반 사람을 접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온화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기질 또한 민중들을 쉽게 만나는 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다양하고 개방적인 학문

이지함은 '기인'이기 이전에 학자였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명문가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신분이 미천한 사람들을 문인으로 삼고 민중들과 거리낌없이 접촉하는 개방적 학풍을 견지했으며 당대의 여러 학문과 사상을 흡수하는 다양한 학풍을 보였다. 그의 이러한 학풍은 16세기 대표적인 학자인 조식이나 서경덕의 처세와 학풍과도 매우 유사한 면

을 보인다. 조선의 성리학은 주리론(主理論)과 주기론(主氣論)의 두 계통으로 발달하였다. 주리론은 이언적(李彦迪)에서 시작되어 이황(李滉)에 이르러 대성하였는데 이 학설을 따르는 학자들이 영남학파를 형성하였다. 한편 주기론은 서경덕(徐敬德)이 처음으로 주자의 학설을 비판하고 이기일원론(理氣一元論)을 주장함으로써 비롯된 것으로 이이에 의해서 대성을 보았고 이 학설을 따르는 학자들에 의하여 기호학파를 형성하였다. 이지함은 바로 기호학파에 속하는 보령지역 출신으로 16세기에 들어와 이 지역의 사람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그가 태어난 16세기는 사화와 함께 시작된다. 즉 16세기 중·후반의 조선사회는 사림파와 훈구파의 대립에서 발생한 사화의 여파로 말미암아 정치적·사상적으로 그 후유증이 큰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상황 속에서 출사의 뜻을 포기하고 산림에 은거하면서 학문에 전념하는 학자들이 나타났다.



<사진> 토정유고 내용

이들은 당대에 은일(隱逸), 유일(遺逸), 은사(隱士), 일사(逸士), 처사(處士) 등으로 칭해졌으며 조선정부의 적극적인 인재등용책으로 인사 관직에 임명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생애는 산림(山林)에서 자신의 학문적 이상을 실천하면서 문인들을 양성하는 것을 본업으로 삼았다. 이러한 학자들 중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지함이다.

이지함은 수리(數理)·의학·복서(卜筮)·천문·지리·음악·술서(術書) 등에 달통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이는 당시의 주류인 주자성리학만을 고집하지 않은 그의 학문적 다양성과 개방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그는 후생(後生)을 가르치기를 좋아하였으며 이지함의 명성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문인 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인물은 조현과 서기이다. 조현은 이지함을 가장 존중하는 스승으로 생각했으며 또한 스승인 이지함에게 관작을 내려줄 것을 청하였다. 조현의 『중봉집』에는

동방의 남아로 스스로 옥망의 구렁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는 이지함·성혼·이이 외에 몇 사람이나 더 있겠습니까 신이 이 세상에 스승으로 섬긴 이는 이지함·성혼·이이 세분 뿐입니다. 이 세분은 학문의 성취한 바는 다르지만 그 청심과 과욕, 지극한 행실로 세상의 모범이 되는 것은 같았습니다. 신은 그 중 만분의 일이라도 본받으려 했으나 이루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여 스스로의 학문을 평하고 있다.

서기는 이지함과 가까운 지역에 살다가 그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 제자가 되었다. 서기는 충청도의 남포에서 출생했으며 홍주에 거주할 때 이지함의 집과는 불과 20여리 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있었다. 서기는 누대로 집안이 한미했으나 어려서부터 학문에 전념하여 제자백가를 섭렵하였고 특히 선학(禪學)에 경도되었으나 20여 세에 이지함을 사사하면서 비로소 유학이 정도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서기는 이지함과 함께 한라산에서 돌아온 후 이지함의 소개로 이중호(李仲虎)의 문하에 들어갔으며 3년간 『대학』, 『중용』 등을 배우고 고향에 돌아왔다. 서기나 이중호는 모두 천인출신으로 서경덕의 학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으며 이처럼 신분이 미천한 사람들과도 기꺼이 교유관계를 형성한 것에서 신분에 구애되지 않는 이지함의 학문적 개방성을 짐작할 수 있다.

꿈많은 '경제 사상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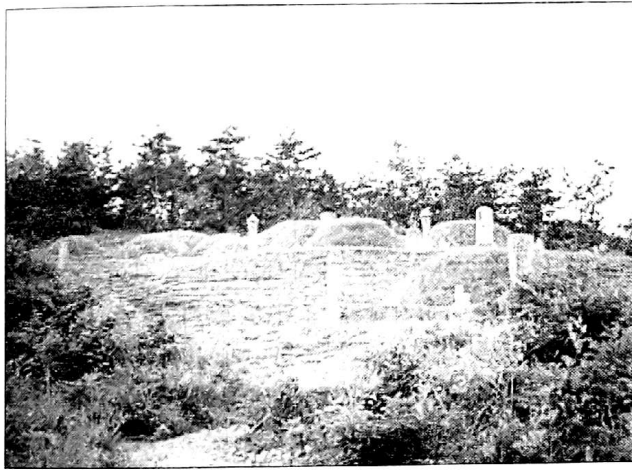
이처럼 이지함에 대해서는 그 인물의 역사적인 위상보다도 그은 저술로 잘 알려진 『토정비결(土亭秘訣)』에 관심이 집중되거나 그의 기인적인 풍모만이 야사의 주된 소재가 되었다. 또한 『임격정』, 『토정비결』 등 소설 속의 주요인물로 등장하여 당대의 학자들인 서경덕, 조식과의 교분이 언급되었으며 대중들에게 친숙한 인물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인 또는 이인(異人)으로만 널리 알려진 것과 달리 그의 행적을 통해 보면 그는 인륜에 돈독한 사람이었다. 또한 그는 기인이기 전에 출중한 주기파의 성리학자였으며 훌륭한 경제사상을 확립하고 있던 정치가이며 사상가였다.

이지함은 생애의 대부분을 처사적인 삶을 살면서 전국 각지를 돌아다녔다. 그리고 이러한 유랑생활을 통하여 생활고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접하였다. 그의 사회경제사상의 핵심이 민생문제 해결에 있었던 것도 이러한 경험 바탕 위에서 나온 것이다. 특히 신분이 미천한 사

랍이라도 능력이 있으면 문인으로 받아들여는 그의 개명성은 신분이 미천하고 빈한한 사람들과도 지스름없이 섞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즉 이지함의 사상은 사방을 유람하다가 만난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적극적으로 옹한 경험이 바탕이 된 것으로 일상생활을 통하여 체득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양반이었지만 순수 고기를 잡고, 소금 만들며, 상업활동에 종사한 그는 실학의 선구자였다. 길인칭을 설립해 길인들을 구제했고, 그들에게 새끼 꼬는 방법, 짚신 삼는 방법등을 가르쳐 재환의지를 북돋았다. 이지함은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경제 사상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자급과 국부의 증대로 백성들 누구나가 생산활동에 전념하여 재화와 부를 창출할 것을 주장했다.

이지함의 경제사상은 국부의 전체적인 증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지함은 새로운 국부의 증대없이 미봉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근본적인 치유책이 아니며 결국 나라 전체의 곤궁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어업이나 상업, 수공업, 광업 등에 관심을 기울려 육지건 해양이건 국토에서 산출된 자원을 적극 개발, 이를 통해 국부를 증대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이지함은 단지 구상에 그친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구상한 방안을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전라도 만경현의 양초(洋草)라는 곳을 임시로 포천현에 소속시켜 이 곳에서 고기를 잡아 곡식과 바꿀 수 있도록 요청했고 황해도 풍천부의 염전을 임시로 포천현에 소속시켜 염전으로 환용하여 소금을 곡식과 바꿀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청하기도 하였다. 그는 이러한 방법으로 백성들 모두가 부유해질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지함의 이러한 건의는 반영되지 않았다.



<사진> 주포면 고정리에 있는 묘소와 묘비

이지함은 처사로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현실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학문과 사상을 정치에 구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으나 결국 현실정치의 높은 벽만을 느끼고 사직을 했다. 그러나 그의 사회경제사상은 민간의 실상을 직접 목격한 바탕위에서 끌어낸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러한 시도는 실학자나 북학자로 지칭되는 후대 학자들의 이념과 합치되는 부분이 많다. 민생에 도움이 되고 실용에 필요한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도입하자는 이지함의 사상은 당대의 학자인 유몽인 등에게서도 나타났으며, 후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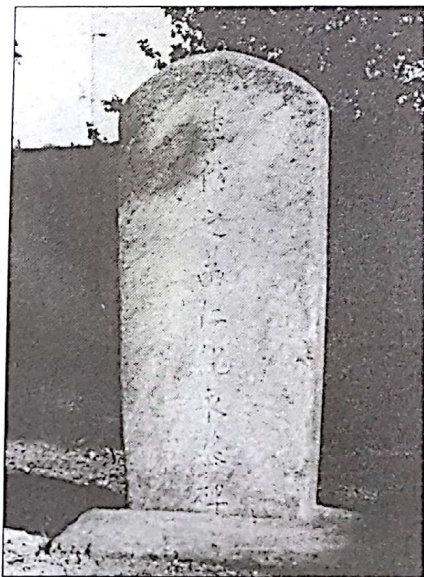
유흥원이나 박제가 등 북학과 학자들이 제기한 사회경제사상의 원류가 되었다. 박제가의 경제 사상에는 이지함이 제시했던 부국의 논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규경은 유흥원의 논지를 인용하여 이지함이 해외통상론을 제시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애민의 실천가, 현감 이지함

이지함은 말년에 그의 이상을 실현할 기회를 갖게 된다. 즉 그 이름이 나라에까지 알려져 1573년 포천현감에, 1578년 아산현감에 부임하게 된 것이다. 포천현감으로 부임할 때 그는 배웃에 쪼신 차림이었다고 한다. 저녁때가 되어 그럴 듯하게 밥상을 차려 내오자 그는 멀거니 밥상을 내려다보다가 먹을 것이 없다고 상을 밀어냈다. 사령이 더 결판지게 밥상을 차려 내왔는데 또 먹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밥상을 맡은 구실아치가 나와 잘못된 죄를 청하자 “우리의 민생이 어려운데 모두 앉아서 먹으면서도 절개가 없구나”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잡곡밥과 나물국 한 그릇씩만 가져오게 하여 맛있게 먹었다.

현감으로 부임한 이지함은 자신의 정치이상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포천현감으로 있으면서 올린 상소문에는 그가 지향한 사회경제 사상이 집약되어 있다. 현실의 문제점을 타개할 수 있는 방책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먼저 제왕의 창고는 세 가지가 있음을 전제하고 도덕을 간직하는 창고인 인심을 바르게 하는 것이 상책이며, 인재를 뽑는 창고인 이조와 병조의 관리를 적절히 하는 것이 중책이며 백가지 사물을 간직한 창고인 육지와 해양개발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하책으로 정의했다. 이중 상책과 중책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간파하고 하책을 실시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채직중 임진강의 범람을 미리 알아서 많은 생명을 구제한 것은 유명한 일화이다.

이후 포천현감을 사직하고 고향에 돌아갔으나 1578년 아산현감으로 다시 등용되었고, 부임한 즉시 백성의 가장 큰 고통이 관가에 고기를 바치는 것임을 알고 양어장을 물어버렸다. 그리고 절인청(乞人廳)을 만들어 일정한 정착지가 없는 절인들을 구제하였으며, 노약자와 기인(飢人)은 쪼신을 삼게 하여 그 판 돈으로 쌀을 사서 먹게 했다.



그러나 그는 아산현감 재직시 62세의 나이로 죽었다. 1578년(선조 11) 경연관 홍적(洪迪)이 그에 대한 작위를 청하였으나 시행되지 못하다가 1705년(숙종 31) 판윤 민진후(閔鎭厚)가 포증(褒贈)하기를 청하여 1713년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문강(文康)이다. 죽은 뒤 1642년 보령의 화암서원(華巖書院)에 배향되었고, 1668년(현종 9)년에는 아산의 인산서원(仁山書院)에도 배향되었다.

<사진>

아산에 있는 이지함 영모비

새해의 베스트 셀러 『토정비결』



그의 호 '토정(土亭)'은 '흙으로 만든 정자'라는 뜻으로 마포 강변에 흙담 움막집을 짓고 밤에는 그 속에서 자고 낮에는 지붕을 정자 삼아 글을 읽는데서 유래한 것이다. 토정이 의학과 복서에 밝다는 소문이 점차 퍼지게 되자 그를 찾아오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고 일년의 신수를 보아달라는 요구가 심하여짐에 따라 책을 지었는데, 그것이 『토정비결』이라고 알려져 있다.

토정비결은 1년 열두달의 신수를 판단하는 술서(術書)이다. 조선 후기부터 수백년간 정월 초승이면 으레 『토정비결』로 그 해 신수를 알아보는 일은, 조선 민간의 세시풍경이다.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주역의 패로써 풀이한 것이지만 주역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첫째, 『주역』의 패는 64패인데 이 책은 48패로 16패가 적으며, 둘째, 주역은 하나의 패에 본상(本象)이 하나, 변상(變象)이 여섯, 도합 일곱 상으로 총 424개의 패상인데, 이 『토정비결』은 144패이다. 셋째, 패를 만드는 방법도 연·월·일·시 중에서 생시가 제외된다는 점이다.

작패법(作卦法)을 보면, 백단위(상패), 십단위(중패), 일단위(하패)가 합해서 하나의 완성된 패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얻은 세 단위의 숫자대로 책에서 찾으면 맨 처음에는 패상이라 해서 그 해 전체의 운수를 개설하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 월별 풀이가 나온다.

『토정비결』은 4언시구(四言詩句)로 이루어지고 그 밑에 한줄로 번역되어 읽기 쉽게 되었으며 다른 점서와 마찬가지로 비유와 상징적인 내용이 많다. “북쪽에서 목성을 가진 귀인이 와서 도와주리라” “꽃이 떨어지고 열매를 맺으니 귀한 아들을 낳으리라”는 희망적인 구절이 많고, 좋지 않은 내용도 “이 달은 실물수(失物數)가 있으니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화재수가 있으니 불을 조심하라”는 식으로 되어 있어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때문에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을 갖게 하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조심스럽게 생활을 하도록 독려한 것으로 평가된다.

토정비결은 상공업을 천시하는 풍토를 고치고 귀천을 가리는 사회를 꾸짖고 나태를 막고 근면을 권장하면서 찌든 민중들에게 한가닥 위안을 주려는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유의해두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姜聖祚, 1983, 「土亭 李之菡 研究」, 『論文集』 제5집, 인천대학

- 申順熙, 1996, 「土俗 茶之儀의 源流과 社會경제사상」, 『藝文』 129, 서울大學校書院
 崔福熙, 1997, 「假學地에서의 經濟學 受容과 그 學說」, 『大東文化』 46號, 大東文化研究會
 李基永, 2000, 「土俗 茶之儀의 消費觀의 變遷 研究」, 『韓國傳統經濟研究』 第16卷, 韓國
 傳統經濟學會
 李基永, 2000, 「朝鮮의 茶의 土俗의 모습」, 『茶語錄 歷史』, 藝文堂

2001, 『茶語錄』

2002, 『茶語錄』

2003, 『茶語錄』

2004, 『茶語錄』

2005, 『茶語錄』

2006, 『茶語錄』

2007, 『茶語錄』

2008, 『茶語錄』

2009, 『茶語錄』

2010, 『茶語錄』

2011, 『茶語錄』

2012, 『茶語錄』

2013, 『茶語錄』

2014, 『茶語錄』

2015, 『茶語錄』

2016, 『茶語錄』

2017, 『茶語錄』

2018, 『茶語錄』

2019, 『茶語錄』

2020, 『茶語錄』

2021, 『茶語錄』

2022, 『茶語錄』

2023, 『茶語錄』

2024, 『茶語錄』

2025, 『茶語錄』

2026, 『茶語錄』

2027, 『茶語錄』

2028, 『茶語錄』

2029, 『茶語錄』

2030, 『茶語錄』

2031, 『茶語錄』

2032, 『茶語錄』

2033, 『茶語錄』

2034, 『茶語錄』

2035, 『茶語錄』

2036, 『茶語錄』

2037, 『茶語錄』

2038, 『茶語錄』

2039, 『茶語錄』

2040, 『茶語錄』

2041, 『茶語錄』

2042, 『茶語錄』

2043, 『茶語錄』

2044, 『茶語錄』

2045, 『茶語錄』

2046, 『茶語錄』

2047, 『茶語錄』

2048, 『茶語錄』

2049, 『茶語錄』

2050, 『茶語錄』

2051, 『茶語錄』

2052, 『茶語錄』

2053, 『茶語錄』

2054, 『茶語錄』

2055, 『茶語錄』

2056, 『茶語錄』

2057, 『茶語錄』

2058, 『茶語錄』

2059, 『茶語錄』

2060, 『茶語錄』

2061, 『茶語錄』

2062, 『茶語錄』

2063, 『茶語錄』

2064, 『茶語錄』

2065, 『茶語錄』

2066, 『茶語錄』

2067, 『茶語錄』

2068, 『茶語錄』

2069, 『茶語錄』

2070, 『茶語錄』

2071, 『茶語錄』

2072, 『茶語錄』

2073, 『茶語錄』

2074, 『茶語錄』

2075, 『茶語錄』

2076, 『茶語錄』

2077, 『茶語錄』

2078, 『茶語錄』

2079, 『茶語錄』

2080, 『茶語錄』

2081, 『茶語錄』

2082, 『茶語錄』

2083, 『茶語錄』

2084, 『茶語錄』

2085, 『茶語錄』

2086, 『茶語錄』

2087, 『茶語錄』

2088, 『茶語錄』

2089, 『茶語錄』

2090, 『茶語錄』

2091, 『茶語錄』

2092, 『茶語錄』

2093, 『茶語錄』

2094, 『茶語錄』

2095, 『茶語錄』

2096, 『茶語錄』

2097, 『茶語錄』

2098, 『茶語錄』

2099, 『茶語錄』

2100, 『茶語錄』

2101, 『茶語錄』

2102, 『茶語錄』

2103, 『茶語錄』

2104, 『茶語錄』

2105, 『茶語錄』

2106, 『茶語錄』

2107, 『茶語錄』

2108, 『茶語錄』

2109, 『茶語錄』

2110, 『茶語錄』

2111, 『茶語錄』

2112, 『茶語錄』

2113, 『茶語錄』

2114, 『茶語錄』

2115, 『茶語錄』

2116, 『茶語錄』

2117, 『茶語錄』

2118, 『茶語錄』

2119, 『茶語錄』

2120, 『茶語錄』

2121, 『茶語錄』

2122, 『茶語錄』

2123, 『茶語錄』

2124, 『茶語錄』

2125, 『茶語錄』

2126, 『茶語錄』

2127, 『茶語錄』

2128, 『茶語錄』

2129, 『茶語錄』

2130, 『茶語錄』

2131, 『茶語錄』

2132, 『茶語錄』

2133, 『茶語錄』

2134, 『茶語錄』

2135, 『茶語錄』

2136, 『茶語錄』

2137, 『茶語錄』

2138, 『茶語錄』

2139, 『茶語錄』

2140, 『茶語錄』

2141, 『茶語錄』

2142, 『茶語錄』

2143, 『茶語錄』

2144, 『茶語錄』

2145, 『茶語錄』

2146, 『茶語錄』

2147, 『茶語錄』

2148, 『茶語錄』

2149, 『茶語錄』

2150, 『茶語錄』

2151, 『茶語錄』

2152, 『茶語錄』

2153, 『茶語錄』

2154, 『茶語錄』

2155, 『茶語錄』

2156, 『茶語錄』

2157, 『茶語錄』

2158, 『茶語錄』

2159, 『茶語錄』

2160, 『茶語錄』

2161, 『茶語錄』

2162, 『茶語錄』

2163, 『茶語錄』

2164, 『茶語錄』

2165, 『茶語錄』

2166, 『茶語錄』

2167, 『茶語錄』

2168, 『茶語錄』

2169, 『茶語錄』

2170, 『茶語錄』

2171, 『茶語錄』

2172, 『茶語錄』

2173, 『茶語錄』

2174, 『茶語錄』

2175, 『茶語錄』

2176, 『茶語錄』

2177, 『茶語錄』

2178, 『茶語錄』

2179, 『茶語錄』

2180, 『茶語錄』

2181, 『茶語錄』

2182, 『茶語錄』

2183, 『茶語錄』

2184, 『茶語錄』

2185, 『茶語錄』

2186, 『茶語錄』

2187, 『茶語錄』

2188, 『茶語錄』

2189, 『茶語錄』

2190, 『茶語錄』

2191, 『茶語錄』

2192, 『茶語錄』

2193, 『茶語錄』

2194, 『茶語錄』

2195, 『茶語錄』

2196, 『茶語錄』

2197, 『茶語錄』

2198, 『茶語錄』

2199, 『茶語錄』

2200, 『茶語錄』

2201, 『茶語錄』

2202, 『茶語錄』

2203, 『茶語錄』

2204, 『茶語錄』

2205, 『茶語錄』

2206, 『茶語錄』

2207, 『茶語錄』

2208, 『茶語錄』

2209, 『茶語錄』

2210, 『茶語錄』

2211, 『茶語錄』

2212, 『茶語錄』

2213, 『茶語錄』

2214, 『茶語錄』

2215, 『茶語錄』

2216, 『茶語錄』

2217, 『茶語錄』

2218, 『茶語錄』

2219, 『茶語錄』

2220, 『茶語錄』

2221, 『茶語錄』

2222, 『茶語錄』

2223, 『茶語錄』

2224, 『茶語錄』

2225, 『茶語錄』

2226, 『茶語錄』

2227, 『茶語錄』

2228, 『茶語錄』

2229, 『茶語錄』

2230, 『茶語錄』

2231, 『茶語錄』

2232, 『茶語錄』

2233, 『茶語錄』

2234, 『茶語錄』

2235, 『茶語錄』

2236, 『茶語錄』

2237, 『茶語錄』

2238, 『茶語錄』

2239, 『茶語錄』

2240, 『茶語錄』

2241, 『茶語錄』

2242, 『茶語錄』

2243, 『茶語錄』

2244, 『茶語錄』

2245, 『茶語錄』

2246, 『茶語錄』

2247, 『茶語錄』

2248, 『茶語錄』

2249, 『茶語錄』

천주교 '내포의 사도(使徒)' 이존창

이존창은 누구인가?

충남 예산군 여사울에서 태어난 이존창(李存昌, 1752~1801)은 초기 교회 창설자의 한 사람인 권일신으로부터 교리를 배워 입교했다. 충청도 천주교 전파는 바로 이존창(루도비코 곤자가)의 고향인 '여사울'(餘村, 예산군 신암면 신종리)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열렬한 신앙심과 학구심으로 초기 교회의 가정직단(假聖職團)의 일원이 되어 충청도지방을 맡아 전교에 힘쓴 결과 '내포(內浦)의 사도'로 불리기까지 하였다.

경주 이씨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25세 되던 1776년에 양근 지역의 유명한 남인 학자 권철신(암브로시오)의 문하에 들어가 수학하였다. 그러다가 권철신의 아우 권일신(프란치스코 하비에르)과 중인 김범우(토마스)에게 교리를 배워 입교한 뒤, 여사울로 내려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다.

이존창은 '루도비코 곤자가'라는 세례명으로 영세를 하고, 자기 스승(권일신)에게 고향에 돌아가 이번에는 자기 스스로 전교하라는 사명을 받았다. 그는 고향에 돌아가 잠깐 동안에 자기 가족과 친척과 친구, 그리고 그의 지식과 덕행의 평판에 끌려오는 많은 사람들을 입교시켰다. 저 유명한 내포 천주교회의 기초는 이렇게 다져졌다. 그때부터 내포 지방은 천주교 인들과 훌륭한 순교자들의 못자리가 되었다.

1791년(정조 15)신해박해 때 체포되어 혹심한 고문에 못 이겨 한때 배교하여 홍산으로 이사가기도 했으나 전날의 배교를 뉘우치고는 더욱 열심히 전교함으로써, 내포와 그 인근지방은 다른 어느 고장보다도 천주교가 가장 성하였다. 그 결과 내포 지방은 다른 어느 지방보다도 교세가 커져 갔고 이에 따라 박해 때마다 수많은 순교자를 배출하게 됐다. 우리나라 최초의 방인 사제인 김대건 신부의 집안도 그의 전교로 입교했는데, 김 신부의 할머니는 그의 조카딸이 되며, 최양업 신부도 그의 생질(甥姪)의 손자이다. 오늘날 조선 교우의 거의가 그가 개종시킨 교우들의 자손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그가 전교 활동에 끼친 공헌은 지대하다.



<사진> 여사울의
이존창 생가터와 송덕비

이존창의 입교와 복음 전래

우리나라에서 천주교 교리에 대해 폭넓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성호학과에 의해서부터다. 물론 성호학과도 처음에는 천주교 신앙을 단지 서양의 학문으로만 인식하였다. 그러다가 이익이 만년에 얻은 제자인 녹암(鹿菴) 권철신(權哲身, 1736~1801)과 그 제자들에 의해 점차 새로운 신앙으로 이해되기 시작하였다. 이존창은 25세 되던 1776년 권철신(암브로시오)의 문하에 들어가 같은 예산 출신인 홍낙민(洪樂敏, 1751~1801)과 함께 수학하였고, 젊은 학자들과 교류하게 되었다.

만천(蔓川) 이승훈(李承薰, 1756~1801)은 부친을 따라 북경에 갔다가 그곳 선교사들에게 교리를 배운 뒤 이듬해 초에는 예수회 그라몽(Grammont, 梁棟材) 신부로부터 '베드로'라는 세례명으로 영세를 하게 되었다. 1784년 3월 조선으로 귀국한 이승훈은 중국에서 가져온 천주교 서적들을 이벽에게 전해 주었다. 그리고 이벽은 이승훈과 의논하여 세례식을 이 땅에서 갖기로 하여 1784년 겨울 수표교 인근에 있던 이벽의 집에서 한국의 첫 번째 세례식이 베풀어 졌다. 여기에서 이벽(세례자 요한), 정약용(사도 요한), 권일신(프란치스코 사베리오) 등이 이승훈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었다. 이 첫 세례식이 바로 '한국 천주교회의 창설'이었고, 여기에서 이존창(무도비코 곤자가)도 영세를 하였다.



<사진>

보령 영보리 순교지

이존창과 권철신의 문하에 들어가 일찍부터 천주교 서적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특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권일신이나 김범우(토마스)에게서 교리를 배우고 천주교 서적을 빌려 읽은 뒤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에 대해 샤를르 달레의 기록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 때(1784년 천주교회 창설 무렵) 권일신(프란치스코 사베리오)의 집에는 이존창이라고도 부르는 '단원'이란 청년이 있었다. 그는 넓고 기름진 내포 평야의 접경에 있는 천안군 여사울 양민의 농가에서 태어났다.…… 그때 권씨 집안 학자들의 평판은 한창 높았다. 단원(이존창)은 그들을 찾아가 제자가 되었다. 권일신 사베리오의 자기 세 제자의 좋은 자질과 훌륭한 품성에 매혹되었다. 권일신 사베리오의 이미 얼마 전부터 그에게 마음을 쓰고 있던 중에 천주교인이 되는 행복을 얻었다. 권일신 사베리오의 이내 천주교를 그(이존창)에게 알려 주었고 믿어야 할 중요한

교리의 조복뿐만 아니라 특히 천교교인의 분분과 그 설전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온갖 희망을 초과하는 성공을 거두었다. 이단원은 '루도비코 곤자가'라는 세례명으로 영재를 하고 자기 스승으로부터 고향에 돌아가 이번에는 자기 스스로 전교 하라는 사명을 받았다.

이와 같이 이존창은 한국 천주교회가 창설될 무렵에 입교하게 되었다. 그 입교 시기는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사실로 미루어볼 때 1784년 겨울 아니면 1785년경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는 즉시 고향으로 내려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내포 교회의 설립

고향으로 돌아간 이존창의 활동은 참으로 눈부셨고, 그 결과는 곧 내포 공동체의 설립으로 이어져 차령 산맥 동쪽으로 복음이 확대되어 나갔다. 또 이존창은 한국 천주교회의 지도층에 끼여 1786년 이래 약 2년 동안 지속된 가성직제(假聖職制) 아래 신부로 임명되어 성사를 집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사울 이존창의 집은 자연스럽게 교우들의 집회소이자 숙소가 되었다.

이에 대해 당시의 기록에서는 '이존창은 고향에 돌아가 잠깐 동안에 자기 가족과 친척과 친구, 그리고 그의 지식과 덕행의 평판에 끌려오는 많은 사람들을 입교시켰다. 저 유명한 내포 천주교회의 기초는 이렇게 다져졌다. 그때부터 내포 지방은 늘 열심히 천주교인들과 훌륭한 순교자들의 못자리가 되어 왔다. 고 설명하였다. 이것이 곧 내포 신앙 공동체 즉 '내포 교회의 창설'이었다.

내포 지역의 중심지인 아산 공세리 일대는 어업과 소금 장사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고 하였다. 또 이 지역은 충청도 조운의 중심지로서 각처에서 거두어진 세곡들이 일단 공세리의 공진창(貢津倉, 일명 貢稅串倉)에 모아졌다가 한양으로 운반되던 곳이었다. 뿐만 아니라 아산만의 간만의 차가 커서 밀물 때는 배가 예산의 삽교천(插橋川, 온양의 曲橋川), 신창의 무한천(無限川)까지 갈 수 있으므로 내륙 수로가 일찍부터 발달하였다.

이러한 내포 지역의 특성은 복음의 전파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이존창은 고향 인근에서 시작하여 점차 내포 전역으로 천주교 신앙을 전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소문은 편리한 교통로를 타고 생각보다 빠르고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되었다. 반면에 조선의 지식층 사이에서는 적사론이 고도되어 가고 있었으며, 마침내 1785년 봄에는 명례방 사건(明禮坊事件)이 발생하여 김범우(토마스)가 유배형에 처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포 교회는 이 사건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았으니, 훗날의 교회의

기록에서는 사건 직후에도 이존창의 전교 활동이 좋은 결실을 거두고 있었음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이존창(루도비코 곤자가)은 내포 평야에서 복음 전파를 계속하였다. 그는 위대한 재능에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특별한 재주까지 겸하여 가졌으므로 날마다 새로운 청중이 그에게 이끌려 왔다. 그의 전교 활동에 저항하는 자는 극히 적었다. 그러므로 이 지방의 천주교인 숫자는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양반과 신비 집안뿐만이 아니었고, 농부, 노동자, 서민, 가난한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았다. 그들은 기쁜 소식을 듣기 위해 멀리서 떼를 지어 왔고 종종 여러 날을 머물러 신자를 집에서 먹고 자고 하였다.



이처럼 내포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복음은 양반과 평민·천민층으로 확산되어 갔는데, 그 신분 계층이 다양했던 이유는 이존창이 중인 또는 하층 양반이었던 탓에 신분에 관계 없이 두루 교류하기가 용이했던 때문이 아니었나 추정된다. 그러나 그 주류를 이루고 있던 것은 양인 즉 일반 평민층과 천민들이었다. 이 사실은 훗날 전승지(前承旨)였던 이수하(李秀夏)가 1791년에 말하기를 '저의 집은 충청도에 있는데, 사대부들이 서학을 한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다만 염전의 일꾼이나 농부들이 많이 천주교에 빠져 있다는 말을 듣고는 마음으로 크게 놀랐지만 그 형세는 금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라고 한 데서도 잘 알 수 있다.

<사진> 여사울 공소

또 이존창은 명례방 사건으로 영향을 받지 않았으므로 그 다음해인 1786년 교회 지도층에서 교회 재건을 위해 조직한 가정직단(假聖職團)안에서 성직자 즉 신부로 선임되어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다. 이 가정직단은 당시 신부로 임명되어 전라도에서 활동하던 류항검(柳恒儉, 아우그스티노)이 1788년경 그 잘못을 지적할 때까지 약 2년간 지속되었다. 그러므로 이존창은 이 기간동안 충청도 신자들에게 고해성사를 받고, 미사를 집전하거나 견진성사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그 또한 1788년부터는 신부로서의 활동을 중지하게 되었다.

당시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은 직접 만나 교리를 설명해 주거나 천주교 서적들을 통해 교리를 스스로 이해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었다. 이존창이 활동한 충청도 서부 일대에는 한문으로 된 교회 서적뿐만 아니라 한글로 번역한 교리서들이 널리 전파되고 있었다. 그 결과 이러한 사실을 지방 관아에서 알게 되었고 마침내는 조정에서까지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면 이존창이 복음을 전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교회측 기록과 훗날의 문초 기록을 통해 분명한 경우를 종합해보면 양반 4명, 중인 1명, 평민 10명, 그리고 천민 2명 등 모두 17명에게 직접 복음을 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는 박해로 인해 체포되어 문초를 받거나 순교한 기록상의 숫자일 뿐이다. 따라서 이들은 이존창이 복음을 전한 신자들 가운데서도 그 활동이 활발했던 일부로 추정된다.

신앙의 시련을 딛고

이러한 전교 활동 결과 이존창은 교회 안에서 '내포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으며, 초기 교회에서 총회장 역할을 했던 최창현(崔昌顯, 요한)은 훗날 체포되어 문초를 받으면서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교회 인물로 이존창을 비롯하여 양근의 유명한 신자인 권일신, 명도회의 초대 회장이던 정약종이라고 손꼽을 정도가 되었다. 또 정북측 기록에서는 이존창을 가리켜 '호중의 사학 우두머리', '사학의 교주' 등으로 기록하였다.

그러나 박해가 시작되면서 이존창은 자주 시련과 좌절을 감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존창은 신해박해가 일어난 지 얼마 안되어 공주에서 체포되어 감영의 옥에 갇히게 되었다. 이때 충청 감사 박종악(朴宗岳)은 조정에 올린 장계에서 “친안에 사는 이존창을 공주 감영에 체포해다가 임히 곤장을 쳤으나 죽일지라도 복종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여러 날을 옥에 가두어두고 여러 가지로 효유하였더니 그가 황연히 깨닫고 사학을 요술이라 부르며 배척하면서 마음을 고쳐 바른 데로 돌아올 뜻을 말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그가 배교하였다는 보고를 들은 정조는 그를 평민으로 만들어 방면하라고 명하였다. 이렇게 석방된 이존창은 즉시 회두하여 다시 교리를 실천하기로 작정하고 홍산(鴻山) 땅으로 이주하였으며, 그 후 전라도 금산과 고산(高山)으로 이주하여 신앙 생활을 계속하였다.

이처럼 신해박해로 인해 내포 교회는 일시 타격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포 교회는 꾸준히 유지되었고, 복음은 인근 지방으로 계속 전파되어 나갔다. 내포 교회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예산·면천·덕산·당진 등 서해안 지역으로부터 점차 내륙 지역인 홍주·청양·정산 등지로 확대되어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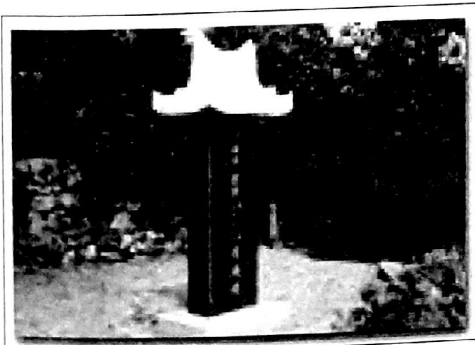
그러나 1795년 말에 이르러 그는 다시금 지방 관리들에게 체포되고 정조의 명으로 천안으로 옮겨져 6년 동안 연금 생활을 하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1801년 다시 체포돼 서울로 압송된다. 그리하여 그 해 4월 10일(음력 2월 28일)에 정약종과 함께 사형 선고를 받고 충청도의 감사가 있는 공주(公州)로 호송되어 황새 바위에서 50세를 일기로 참수된다. 이 때 그의 목은 여섯 번째 칼날을 받고서야 떨어졌는데, 친척들이 그의 시체를 거둘 때는 머리가 목에 단단히 붙어 있었고, 단지 실날같은 흉터만 남아 있었다고 한다.

이존창 생가터

여사울의 이존창 생가터는 1984년 가을 구전을 토대로 하여 발견되었다. 그런 다음 서울 정릉 본당의 협조를 얻어 생가 터를 발굴한 결과 중국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고상, 성모상, 성의패들이 나오으로써 생가터가 분명함을 입증할 수 있었다. 이 때 발굴된 유물들은 절두산 순교 기념관으로 옮겨져 보관되어 오고 있다.

‘내포의 사도’라 불리는 이존창의 생가 터가 있는 여사울은 현재 신례원 본당의 공소가 있으며, 주민의 80퍼센트 이상이 천주교 신자로 구성되어 있는 선교의 요람이다. 생가 터에서 다시 서쪽으로 가다 보면 두 개의 첨탑으로 유명한 합덕 성당이 나오며, 성당을 조금 지나 왼편으로 십리쭈름 가다 보면 신리 교우촌이 나온다. 이처럼 이 지역에서는 한국 천주교회에서도 유명한 사적지들을 자주 만날 수 있으니, 바로 이곳이 내포(內浦)라 불리던 충청도 교회의 요람지였다.

이 지역은 이존창을 비롯해 김진후(金震厚), 성김대건 신부 등 많은 순교자를 배출해 낸 곳이다. 김대건의 출생지인 합덕, 이존창의 출생지인 여사울 등 유서 깊은 교우촌과 본당들 그리고 해미, 덕산 등의 순교자들이 이 지역에 산재해 있다.



<사진> 이존창 송덕비

<참고문헌>

- 朱明俊·俞炳基, 「忠清道の 天主教 傳來; 李存昌의 活動을 中心으로」, 崔奭祐神父 華甲紀念 韓國教會史論叢, 1982, 한국교회사연구소
- 金一煥, 「조선後期 海美地方의 天主教 迫害」, 1992, 공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중동 본당 100년사』, 1997, 중동 본당 100년사 편찬위원회

조선왕조의 마지막 선비 면암 최익현

정도를 지키고 이단을 물리치자 - 위정척사

면암(勉庵) 최익현(崔益鉉, 1833~1906)이 살다간 시대는 동아시아를 '천하'로 인식하던 조선인들에게 의식의 지각변동을 요구하던 격변기였다. 서양이 포함된 새로운 세계질서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18세기 문화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조선왕조는 19세기 외척 세도정치로 이행되면서 쇠퇴기에 봉착하였다. 이러한 내부적 위기상황에 밀어닥친 이질적인 서구문명의 강압 속에서 조선 문화의 정체성을 지키려던 지식인들은 심각한 지적 고민에 직면하였다.

최익현은 그러한 혼란기에 누구보다도 자신의 신념에 충실하고 그 신념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갖은 시련을 겪은 조선 선비였다. 유교문화권의 동양은 농경사회를 기초로 평화 공존하는 국제질서, 즉 중화(中華)문화 질서를 형성하고 있었던데 반해 서양의 제국주의는 무력을 앞세운 약육강식의 논리로 세계를 제패하였다. 이에 대응하는 지식인 사회의 노선은 개화사상과 위정척사사상으로 나뉘게 되었다.

개화사상은 18세기 북학사상에 뿌리를 두고 지배층의 자기 변화논리로 기능하면서 새로운 문명의 수입 통로를 중국에서 일본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서양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질서에 편입하려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일찌감치 서양에 편입한 일본을 배우자는 방법론이었다. 또한 그러한 현실론적 성격에 의해 친일파로 변신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기도 했다.

반면 위정척사사상은 재야학인(在野學人)인 유림(儒林)이 중심이 되어 자기 문화 보존논리로 제몫을 다하였다. 이들 유림은 조선왕조가 5백년동안 문치주의를 지향한 결과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던 성리학자들로, 일반지식인 군단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들은 조선왕조에 실현된 성리학적인 사회체제를 수호하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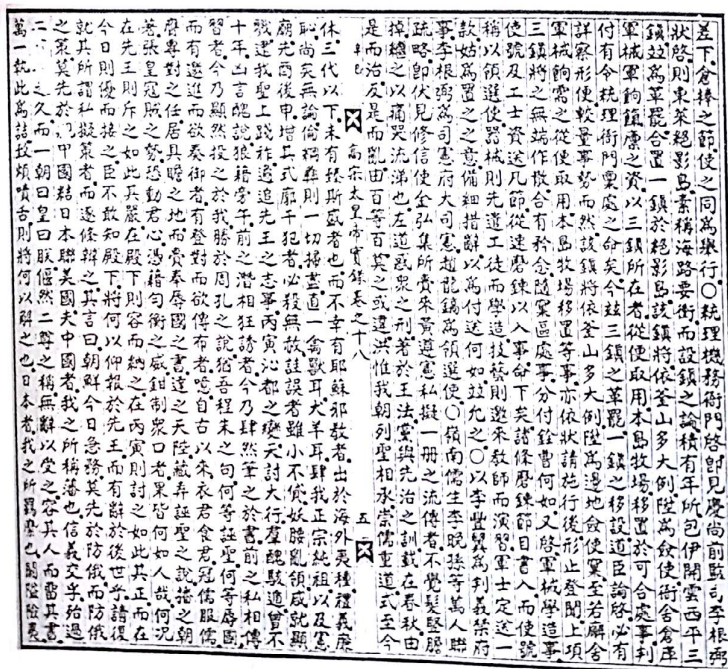
<사진>

최익현 영정(51.5 x 41.5cm), 1905년 채용신(蔡龍臣)이 그린 초상화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서양화풍의 수용에 따라 명암법의 구사가 인물의 얼굴 묘사는 물론 옷주름의 처리에도 두드러지게 나타난 조선 후기 초상화의 대표작이다.

위정 척사는, 정학(正學)과 정도를 지키고, 사학(邪學)과 이단을 물리친다는 뜻이다. 성리학을 정통 사상으로 신봉하였던 조선 사회에서, 위정이란 정학인 성리학을 수호하는 것이고, 척사란 성리학 이외의 모든 종교와 사상을 배격하는 것이었다. 개화 정책과 외세의 침략에 대한 반발은, 먼저 유생층에 의하여 위정 척사(衛正斥邪) 운동의 형태로 나타났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천주교가 전래되자, 이질적인 서구 종교, 서양 문화가 배격의 주요 대상이 되었다. 초기의 위정 척사 운동은 이항로, 기정진 등에 의해 주도되었고, 특히 이항로의 문인들에 의해 계승되었다. 최익현은 바로 조선의 주리적 성리학을 대표하는 화서(華西) 이항로(李恒老, 1792~1868)의 문인이다. 조선의 성리학은 퇴계와 율곡 이후 주리론과 주기론으로 갈라져 내려왔다. 주기론은 율곡에 근원을 두고 송시열을 거쳐 남당 한원진 대에서 호락논쟁으로 내적 분열을 보이다가 임성주에 이르러 유기론(唯氣論)으로 결산되었다. 주기론은 퇴계에서 출발하여 이현일, 이상정, 이진상을 거쳐 심화되었으며, 기정진(奇正鎭, 1798~1879)은 이를 유이론(唯理論)으로 결론지었다.

이항로는 이와 같은 성리학의 양대 흐름 사이에서 주리론에 입각하여 독자적인 자신의 학문체계를 이루었다. 그의 학문은 호락(湖洛) 학파의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체계를 형성하였다. 또한 그는 남북(南北), 노소(老少)의 어느 당파에도 소속되지 않는 입장을 지켰다. 이같은 학문적 위상을 가지는 이항로의 문하에 최익현이 들어가 수학한 것은 14세였다. 그는 이항로(李恒老)의 문하에서 『격몽요결(擊蒙要訣)』 · 『대학장구(大學章句)』 · 『논어집주(論語集註)』 등을 통하여 성리학의 기본을 습득하였으며, 이항로의 ‘애군여부우국여가(愛君如父 憂國如家)’의 정신, 즉 애국과 호국의 정신을 배웠다. 최익현은 이때 이항로의 학문을 계승하여 자신의 학문적 골격을 이루게 되었다.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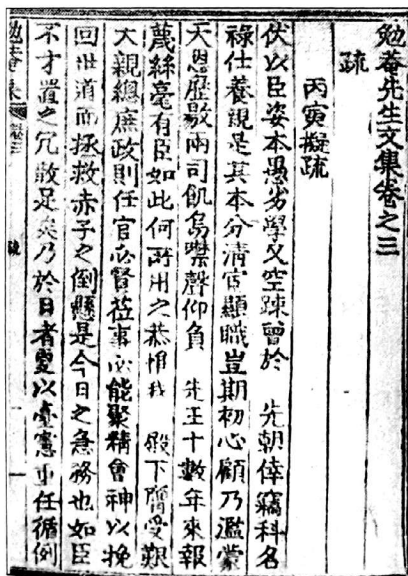
위정척사 사상을
잘 보여주는 만인소

도끼를 들고 상소하다

최익현(崔益鉉, 1833~1906)은 1855년(철종 6) 명경과에 급제하여 승문원부정자로 출사한 이후 순강원수봉관(順康園守奉官)·사헌부지평·사간원정언·신창현감·성균관직강·사헌부장령·돈녕부도정 등의 관직을 두루 역임하고 1870년(고종 7)에 승정원동부승지를 지냈다. 수봉관·지방관·연관으로 재직시 불의와 부정을 척결하여 자신의 강직성을 발휘하였고, 특히 1868년 대원군의 경복궁 중건으로 인한 국가재정의 파탄을 논한 것도 사헌부 장령(掌書·감찰 등을 담당하던 벼슬)으로 연관직을 수행한 것이다. 이는 대원군 집정기에 막혔던 언론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대원군이 세도정치로 인해 약화된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최익현은 왕권의 진제화에 반대하는 조선 사대부의 기본적인 의식을 대변한 것이다.

1873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를 비판한 '계유상소(癸酉上疏)'는 유학자로서 유림의 기반을 송두리째 뽑아 버리려는 대원군의 의지에 반기를 든 것이다. 이 상소로 인하여 대원군의 10년 세도가 무너졌다는 것은 최익현이 일반 지식인인 유림의 위기의식을 대변한 것이며 그들의 반발이 그만큼 치열하였다는 입증이다.

1873년부터 3년간의 제주도 유배생활을 계기로 왕도정치적 명분이 상실된 관직생활을 청산하고 우국애민의 위정척사의 길을 택하게 되었다. 그 첫 시도로서 1876년 <병자지부소(丙子持斧疏)>를 올려 일본과 맺은 병자수호조약을 결사 반대하였다. 1876년 일본의 압력으로 강화도 조약의 체결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일본과의 조약 체결을 일본이 서구의 자본주의 침략 세력을 대신해서 우리 나라에 침략하는 것으로 보고, 일본과의 수교와 개항을 반대하는 병자지부소(丙子持斧疏)를 올렸다. 그는 왜양 일체론(倭洋一體論)에 의한 5 불가소(五不可疏)를 통해 일본은 서양 오랑캐에 편승하는 나라로, 청나라보다 더욱 위험한 존재라 규정하였다.



즉 5 불가소(五不可疏)는

- ① 이 강화는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는 눈앞의 고식일 뿐 그들의 탐욕을 당해 낼 수 없을 것이다.
- ② 일단 강화를 맺으면 물자를 교역하게 되는데, 저들의 상품은 모두 음식기완한 것이고 또 수공업품이므로 무한한 것이나, 우리의 물화는 필수품이며 땅에서 생산되는 유한한 것이므로 이내 우리는 황폐해질 것이다.
- ③ 그들이 비록 왜인이나 기실은 바로 양적(洋賊)이므로 강화가 한번 이루어지면 사교(邪敎)의 서적들이 교역을 타고 끼여들어와 온 나라에 퍼지고 인륜이 쇠퇴할 것이다.

<사진> 면암의 사상을 잘 보여주는
최익현의 문집 『면암집』

④ 일본인이 왕래하여 우리의 재산을 탈취하고 부녀자를 능욕하는 등 인간의 도리가 땅에 떨어지고 백성이 인주할 수 없을 것이다.

⑤ 왜적들은 물욕만 높을 뿐 조금도 사립된 도리가 없는 금수와 마찬가지로 인류가 금수와 더불어 살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일본과의 조약 체결로 우리에게 다가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의 위기를 통찰한 주장이며, 한편으로는 조선의 우월한 문화 의식의 표현인 것이다. 최익현의 왜양 일체론은 단순히 일본과 서양이 동일하다는 각도에서 나타난 배타적인 척사론이 아니라, 일본이 서양의 침략 세력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므로 이에 대해 그들보다 우수한 역사적, 문화적 전통과 자주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면암은 일본과의 강화도조약(병자수호조약) 체결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1876년부터 3년간 흑산도에서 유배되었으나 그 신념과 신조는 꺾이지 않았다. 유배생활을 하는 동안 서당을 차려 학생들을 가르치고 폐습을 타파하는 데도 많은 힘을 기울였다. 이후 20여년간 침묵으로 일관하던 그는 1895년 국모인 명성황후가 시해 당하는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의병활동을 일으켰다. 대한제국 출범후 고종으로부터 여러 번 관직을 제수 받았지만 사퇴하고 계속 상소를 올려 국정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사진>

생전의 최익현 사진

오랑캐 세상이라 하늘도 무심한데 - 대마도 유배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창의토적소(倡義討賊疏)>를 올려 조약의 무효를 국내외에 선포할 것과 망국조약에 참여한 박제순(朴齊純) 등 오직을 처단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언론수단에 의한 위정척사운동은 집단적·무력적인 항일의병운동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8도 사민(士民)에게 포고문을 내어 항일투쟁을 호소하며 납세 거부, 철도 이용 안하기, 일체의 일본상품 불매운동 등 항일의병운동의 전개를 촉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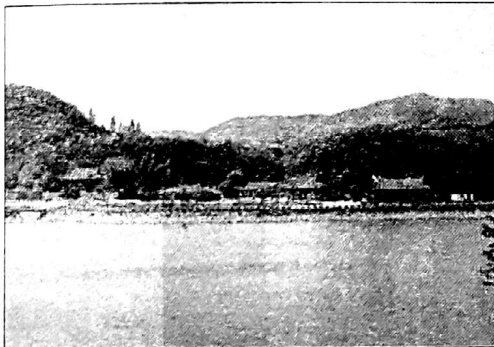
나아가 74세의 고령으로 임병찬(林秉瓚) 임락(林樂) 등 80여 명과 함께 전북 태인(泰仁)에서 의병을 모집, <기일본정부(寄日本政府)>라는 일본의 배신 16조목을 따지는 '의거소략(義舉疏略)'을 배포한 뒤, 순창(淳昌)에서 약 400명의 의병을 이끌고 관군 일본군에 대항하여 싸웠으나 패전, 체포되어 대마도에 유배되었다. 유배지 대마도에서 지은 유형시(流刑時)

에서 그의 비통한 심정을 읽을 수 있다.

만리 길 행색은 범의 굴을 이웃했고
백년이나 품은 생각 용천점을 어루만짐이여,
국치를 못 씻고 몸이 먼저 늙었구나.
바람 앞에 다다라 탄식하고 휘파람 부네.

불행한 나라 운수에 온 누리 곤궁함에
실낱 같은 선비의 기운 다같이 일어섰네.
때 만났다고 나온 서양 놈들이
손아귀에 잡아 놓고 조종을 하네.

오랑캐 세상이라 하늘도 무심한데
늙은 이 몸이 잡혀왔다 무엇이 부끄러우리.
소매 속에 가득히 연하(煙霞)를 주워 담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손님에게 자랑 마오.



<사진> 모덕사 전경(왼쪽)과 사우(오른쪽)

이 같은 그의 항일의병운동은 일제하 독립운동의 원천이 되었다. 최익현은 국가적 위기를 당하여 선비의 마지막 선택인 무력항쟁으로 애국을 실천하였다. 그는 타협과 굴절을 외면하고 망국의 고통을 구국항쟁으로 승화시킨 조선 선비의 전형이었다. 행동하는 지성으로서 저항과 투쟁으로 점철된 그의 치열한 생애는 현실론이 판을 치는 오늘에 시사하는 바 크다.

대마도로 끌려간 최익현이 단식으로 일제에 항거하면서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자 제자들이 눈물로 하소연했다. 그러나 최익현은 끝내 일본의 음식을 거절하다가 1906년 음력 11월 17일 대마도에서 한 많은 일생을 마치고 말았다. 이때 유서를 임병찬에게 전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엎드려 생각하오니, 신이 여기에 들어온 이후로 한 술의 쌀이나 한 모금의 물이 모두 적의 손에서 나오니 설사 적이 신을 죽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한 차마 구복을 스스로 더럽힐 수가 없어서 드디어 음식을 안 먹고 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따라시 신왕의 의리에 바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신의 나이 74세이오니 죽은
들 이제 죽히 아까우리오마는 단, 의직을 토벌하지 못하고, 원수를 멸하지 못하고,
국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강토를 수복하지 못하고, 그리고 4천년의 화하정도(華夏正
道)를 더러운 땅에 빠뜨리면서도 물들지 못하고, 3천리의 신왕의 적자들이 어육으
로 되는 것을 구원하지 못했으니, 이 때문에 신이 비록 죽더라도 눈을 감을 수 없
는 것입니다.”

그의 우국애민의 정신과 위정척사사상은 한말의 항일 의병운동과 일제강점기의 민족 운
동, 독립운동의 지도이념으로 계승되었다. 그의 학문은 위정척사운동에 비하여 큰 업적을 남
기지 못하였다. 그는 성리학에 기본을 두고 있는 이항로의 학문을 이어받고 있었으나 이기
론(理氣論)과 같은 형이상학적인 관심보다는 애국의 실천도덕과 전통절서를 수호하는 명분
론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사상과 이념은 역사적 현실에 바탕을 둔 실
천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구국애국사상으로, 또 민족주의사상으로 승화, 발전할 수 있었
다. 여기서 위정척사사상의 역사적 역할과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사진> 최익현 묘비와 동상

그를 기리는 유적들

청양군 목면 송암리에는 최익현의 항일투쟁과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해 1914년 창건한 모
덕사가 있다. 모덕사가 건립된 후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여 1945년 해방까지 일제의 탄
압으로 근근히 내려오던 이사우는 광복직후인 1946년 4월 23일 김구, 이시영을 제향하였다.
그리고 계속된 정화사업을 통해 1982년에는 유물전시관이 건립되었고 1985년에는 장서각인
춘추관을 건축하였으며 1989년에는 영당을 신축하였다.

모덕사는 문화재자료 152호로, 선생의 영정과 위패가 봉안되어 있고, 유품도 전시돼 있다.
고택, 중화당과 장서각, 영당, 춘추각, 유물전시관 외에 관리사무소가 있다. 앞쪽에 있는 우

목저수지와 어우러져 경관이 아름답다. 매년 4월 13일 항일의거거념 만암선생 추모제가 열린다. 강기 포천, 진북 고창, 진남 구례 등 곳곳에서 제향(祭享)을 올리며 그의 높은 지조와 절의를 기리고 있다.

그리고 청양 칠갑산에는 1972년 세운 최익헌선생동상이 있다. 청양 시외 버스 정류장에서 쉽게 탈수 있는 공주 경유 대전행 버스를 타면 25분만에 한치고개에 닿는다. 거기서 우측길로 오르면 칠갑산장과 칠갑정이 있고, 한치고개 위에 놓인 칠갑교를 건너에 있다.(좌대높이 4m30cm, 폭2m70cm 동상높이 4m)

한편 그의 묘소는 예산 광시면 관음리에 있다. 1910년 논산군 노성면으로부터 지금의 위치로 이장되었다고 하며 현재 주변에 잔디가 깔리고 깔끔히 정리되어 있다. 최익헌의 묘 좌측으로는 비석이 세워져 있다. 또한 묘의 입구에는 춘추대의비(春秋大義碑)가 세워져 있는데 대의비는 화강석재의 대좌와 이수, 오석의 비신 등 3매의 별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참고문헌>

- 李離和, 1990, 「韓末 儒生層의 現實認識과 義兵鬭爭; 崔益鉉의 思想과 政治活動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15, 국사편찬위원회
- 윤병석, 1992, 「면암 최익헌의 위정척사론과 호남의병」, 『한민족독립운동사논총』, 수춘박영석교수화갑기념논총간행위원회
- 李振杓, 1993, 「勉庵 崔益鉉의 衛正斥邪論」, 『진산한기두박사화갑기념 한국종교사상의 재조명』 하, 원광대 출판국
- 吳瑛燮, 1996, 「華西學派의 保守的 民族主義 研究 -그들의 衛正斥邪論과 義兵運動을 中心으로-」, 翰林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博士學位論文
- 金鎬城, 1996, 「勉菴 崔益鉉 研究 -倡義와 評價」, 『정치외교사논총』 제14집, 韓國政治外交史學會
- 吳瑛燮, 1998, 「甲午更張~獨立協會期 勉菴 崔益鉉의 上疏運動」,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8,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 琴章泰, 1999, 「勉菴 崔益鉉의 性理說과 修養論」, 『大東文化研究』 第34輯,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 金祥起, 1999, 「湖西地域 華西學派의 形成과 民族運動」, 『大東文化研究』 第35輯,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 金炳佑, 2001, 「高宗의 親政體制 形成期 政治勢力의 動向」, 『大丘史學』 第63輯, 大丘史學會

Ⅳ.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1. 관련자원의 현황 및 과제

1) 전통시대 충남 관련 인물의 특징

- ▶ 충청남도에서 내세울 수 있는 차별적인 인물과 특징이 두드러짐
- ▶ 그러나 일반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인물과 관련 유적도 포함되어 있음

(1) 백제 문화와 정신

백제문화의 우수성은 일찍부터 논의되어 왔지만 그 실체가 불확실하였다. 그런데 1971년 무령왕릉이 발굴되면서 백제문화의 실체가 확인되었으며, 1993년 부여 능산리사지에서 출토된 백제금동대향로를 통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백제문화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부여에 백제역사재현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백제시대 문화유적의 정비·복원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백제시대 역사와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어 백제사의 복원이 자칫 물질문화 중심의 복원에 치우쳐 그 내면에 흐르는 사상과 정신에 대한 부분은 소홀하게 다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백제사 복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물질문화의 내면에 흐르는 정신과 사상에 대한 이해와 구명이 필요하며, 이는 당시를 이끌어 간 인물들에 대한 조망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지만 백제가 패망국이라는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백제시대 역사와 문화의 긍정적 복원에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음도 사실이다. 특히 인물들에 대한 평가는 충신과 아침의 무리로 구분되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기도 하다. 다만 인물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변하므로 재평가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백제의 마지막 왕이었던 의자왕이라고 하겠다. 기존에 의자왕하면 삼천궁녀로 대변되듯이 황음무도(荒淫無道)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부각되었으나 현재는 그에 대한 공과(功過)를 구분하여 평가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백제 멸망기에 보여준 성충·홍수를 비

롯한 계백과 같은 인물의 충의·절의 정신은 이후 국가적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그 가치가 더욱 증폭되어 왔다고 하겠다.

- ▶ 백제시대의 찬란한 문화 : 聖王, 武寧王, 武王, 義慈王, 謙益, 惠聰, 觀勒, 阿非知, 都彌婦人, 階伯, 黑齒常之, 豐, 成忠, 興首, 福信, 道琛

(2) 고려왕조를 떠받쳤던 충청인

고려시대에도 충청도에서는 여러 인물들을 배출하였다. 대표적인 건국공신, 광종 임금때 개혁정치를 뒷받침했던 승려, 대표적인 명현,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사상의 도입을 주도했던 학자, 그리고 고려 왕조의 마지막 충신 등등은 충청의 자랑이라 할 것이다. 그 면면은 다음과 같다.

- ▶ 고려 건국에 참여했던 공신들 : 朴述熙 卜智謙
- ▶ 고려 초기 불교사상을 주도했던 승려 : 法印國師 坦文
- ▶ 고려시대 명현들 : 韓文俊, 柳淑, 李詹, 鄭仁卿
- ▶ 성리학을 도입하였던 사상가들 : 李穀, 李穡, 吉再, 李存吾, 白頤正, 白文寶, 李齊賢
- ▶ 고려왕조와 함께 했던 충신 : 崔瑩

(3) 성리학과 호서의 선비

조선의 사회와 문화는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사상을 배경으로 성립한 사회였다. 초기에는 다양한 사상들이 각축을 벌였으나, 선조~인조 임금 때를 계기로 성리학은 주도적인 위치를 확고하게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그 화려한 꽃이 소위 최근에 회자되는 '진경시대', 그리고 '진경문화'인 것이다.

일제강점기 이후 조선시대 정치·사상사는 부정적으로만 기술되어 왔다. '진경문화론'은 소위 '식민사관' 또는 그 연장선상에 위치한 인식을 불식시키면서, 조선시대의 문화유산을 재평가하려는 노력의 결실이다. 그리고 영·정조의 화려한 문예의 부흥을 설명하려는 노력이다. 그러한 속에서 '주자 성리

학', 속칭 주자학파는 구별되는 '조선 성리학', 즉 조선화한 성리학의 발전을 논의하기도 한다.

성리학을 이념으로 시대를 이끌고, 수입 학문을 자기화시켰던 조선시대 유학자의 계보 속에는 충청의 선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여말선초 성리학 도입기의 대학자 백이정, 이제현, 이곡·이색 부자 등을 필두로, 숙종~정조의 약 130년 넘게 정치와 학문을 주도했던 호서 산림 세력, 실학과와 개화파를 잇는 징검다리로서 조선 후기 사상사를 화려하게 장식했던 추사 김정희의 학문과 예술 등이 그러한 예들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조선시대 성리학에 대한 시각은 부정적인 편이며, 다만 긍정적인 견해가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을 뿐이다. 그 흐름을 살펴보면,

- ▶ 1970년까지의 일제식민지사관 영향 : 유교망국론, 당쟁론 등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함
- ▶ 1970년대의 부정적 시각 심화 : 봉건시대론, 실학사상 등에 관한 연구로 유교부정론 심화
- ▶ 1980년대 이후 재평가 작업 : 근세사회론, 유교긍정론의 등장으로 성리학, 예학, 정치사상, 사회사상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 최근 경향 : 특히 조선성리학, 조선예학의 특성과 장점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충청도의 유학자 및 관련 유적은 이러한 시대적 추이에 대비하여 관리하여야 할 대상들이다. 우선,

- ▶ 충청도 선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해소에 미흡한 부분을 지속적인 분야별 연구 및 홍보를 통하여 불식시키고,
- ▶ 관련 유적과 유품에 대한 발굴과 정리를 통하여, 자원의 활용기반을 마련한 후에,
- ▶ 정비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및 관광 자원화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관련 인물들을 시대순으로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 ▶ 성리학을 도입하였던 사상가들 : 李穀, 李穡, 吉再, 李存吾, 白頤正, 白文寶, 李齊賢
- ▶ 조선시대 정치와 학문을 주도했던 호서 사림 세력 : 宋翼弼, 金長生, 金集, 宋時烈, 宋浚吉, 尹繼, 尹拯, 權認, 趙翼, 姜栢年, 韓元震, 李東, 任聖周, 徐起
- ▶ 영·정조의 문예부흥기를 주도했던 학자 : 金正喜, 洪大容, 李重煥, 蔡濟恭, 金萬重, 申光洙, 姜世晃, 金鎮圭

(4) 호국·충절인

충효열(忠孝烈)은 전통시대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윤리항목[綱常]이었다. 소위 조선시대 삼강오륜은 결코 범할 수 없는 절대 윤리로서 기능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여자의 정절을 강요하고 칭송하였던 열(烈)의 덕목이 명맥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변화했고, 효의 경우에도 실천 윤리로서의 의미는 많이 퇴색되었다. 그러나 충절의 경우는 전혀 성격을 달리한다. 그 사회적 중요성은 여전히 줄지 않았고, 교육적 효과는 꾸준히 강조되고 있다.

한편 산업사회에서 역사·문화자원은 상품으로 개발되었을 때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다. 그런데 충절 부문의 상품화 여지는 적은 편이다. 정부의 확고한 의지로 출발한 독립기념관의 내방객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은 그 일례라 할 것이다. 특히 일정 부분 엄숙함과 경건함이 따른다는 점은, 여가 또는 관광 활동과 배치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즉 여가 또는 관광에서는 긴장의 완화, 일상성의 파괴 등의 뒤따르는 경향이 큰데, 충절 관련 대상들은 이러한 수요층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지역 이미지 제고를 통한 간접적 효과는 결코 무시할 수 없으며, 교육적 효과 또한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문화 콘텐츠의 주 대상으로서, 차별적 경쟁력의 확보대상으로서의 의미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답사코스의 개발에서도, 다른 자원과 연계 개발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자원의 다양화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통시대의 문화유산, 특히 유교유산의 일부로서 여타 자원과의 연계를 고려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 충절 관련 충청남도 인물들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 ▶ 고려왕조와 운명을 같이 했던 충절 : 崔瑩
- ▶ 단종의 폐위를 막지 못한 한, 200년 후에 되살아난 충절 : 김종서, 사육신 가운데 3인(成三問, 朴彭年, 李塏), 金時習
- ▶ 왜란과 호란을 극복했던 힘, 명장과 의병 : 李舜臣, 金時敏, 鄭忠信, 靈圭, 趙憲, 南以興
- ▶ 조선 말 호국에 온몸을 던졌던 선비와 의병 : 閔宗植, 李南珪, 金福漢, 崔益鉉, 宋秉璿, 李商在, 李鍾一
- ※ 일제강점기 : 金佐鎮, 韓龍雲, 尹奉吉

(5) 내포불교의 화려한 문화

사회적 실천 윤리로서 성리학을 도입하고, 자기화시키는 과정에서 호서의 유학자들이 큰 몫을 담당했음은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양상은 종교 사상에서도 마찬가지였으니, 고대로부터 이어지는 내포 불교의 전통은 눈부신 바가 있다.

내포 불교의 전통은 고대로부터 시작된다. 특히 가야산 인근지역은 한국에서도 놓칠 수 없는 불교유적의 보고인데, 태안반도에서 충청남도 내륙으로 이어지는 마애불로 대표되는 유적은 유구한 불교 역사를 증명해주는 구체적인 증거들이다. 마애불은 내포지방에 집중되어 있는데, 태안 백화산, 서산 운산면 용현리, 예산 삼교읍 용화산 등지의 마애불, 그리고 예산 봉산면 사면 석불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백제시대부터 고려시대에 이르는 불교사찰들이 대거 분포하고 있다. 가야산 남쪽의 수덕사(修德寺), 남연군 묘역에 있었던 가야사지(伽耶寺址), 서산 운산면의 개심사·문수사·보원사지(普願寺址), 서산 해미면의 일락사, 서산 부석면의 간월암과 부석사, 홍성 용봉산의 용봉사와 광경사지, 보령 미산면 성주리의 성주사지 등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적들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사실조차 알려진 바가 드물다. 다만 신라 말 구산선문(九山禪門) 가운데 한 곳인 성주산문(聖住山門)을 개창한 낭혜선사 무염(朗慧禪師 無染)의 행적이 전해지고, 고려 왕건을 도왔던 법인국사 탄문(法印國師 坦文)의 유적이 보원사지에 전해지는 정도이다.

내포불교의 전통과 알려진 인물들은 오히려 최근에 올수록 화려하다. 한국 조계종의 개창조인 태고 보우선사(太古 普愚禪師)가 홍주목에서 출생하였으

며, 이성계를 도와 조선왕조를 개창한 무학 자초선사(無學 自超禪師)의 유적이 서산 무석면 일원에 산재해 있다.

내포 불교는 근대에 와서 더욱 꽃을 피웠다. 근대 한국 선종(禪宗)의 중흥자인 경허 성우(鏡虛 惺牛, 1849-1912) 선사의 고족 제자 만공 월면(滿空 月面, 1871-1946)의 자취가 수덕사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것이다. 결성 출신의 만해 한용운(卍海 韓龍雲, 1879-1944), 신 여성을 대표할 수 있는 김일엽과 나혜석, 고암 이응로 등은 모두 만공과의 인연으로 수덕사를 출입하였던 인물들이다. 내포불교와 관련된 인물들은 아래와 같다.

- ▶ 내포불교와 조계종파의 시작과 끝을 장식한 선사들 : 朗慧禪師 無染, 法印國師 坦文, 太古 普愚, 無學 自招, 鏡虛 惺牛
※ 근대불교 관련 인물 : 滿空 月面, 韓龍雲, 一葉

(6) 계룡산의 불교유적과 충절인

계룡산은 자체가 이미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명산이다. 더욱이 동학사, 갑사, 신원사 등 고찰이 위치하고 있고, 대전광역시에 인접하고 있어서, 근교의 나들이 코스로서 뿐만 아니라, 호남고속도로를 통하여 외부에서 접근하기 쉬운 관계로 외지의 내방객들도 적지 않은 곳이다.

그러나 막상 명산이라는 사실, 그리고 유서가 깊은 고찰이라는 점만이 알려져 있을 뿐, 이 지역과 관련된 역사적 인물들에 대해서는 일반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역대 수많은 충절인들을 모신 사우, 숙모전(肅慕殿)이다. 숙모전은 김종서, 사육신(성삼문, 박팽년, 이개), 김시습 등 충남의 대표적인 충절 뿐만 아니라, 역사상의 충절 대부분을 망라한 사우이다. 또한 임진왜란 당시 승병장이었던 영규 대사의 묘소는 갑사에서 가깝다.

계룡산이 근교 나들이 코스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사실들은 볼거리를 다양화한다는 점에서 활용 가치가 큰 자원이라 할 것이다. 또한 다른 인물 관련자원과의 답사코스를 개발할 때에도 활용가치가 크리라 본다.

- ▶ 계룡산의 충절 : 金宗瑞, 死六臣(成三問, 朴彭年, 李塏), 金時習, 靈圭大師 등

(7) 내포교회의 선지자와 성지

충청남도에는 한국 천주교회의 요람이기도 했다. ‘내포교회’로 통칭되는 관련 유적들은 모두 선각자들과 관련된 종교 성지들이다. 내포교회, 충청도의 천주교는 아직 한국에 천주교가 정식으로 도입되기 전, 홍유한(洪儒漢)이 홀로 이를 신앙하기 위해 여사울(餘村)로 내려와 산 데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같은 마을의 이존창(李存昌)이 권철신(權哲身)의 문하에 가서 글을 읽다가, 1784년 이승훈(李承薰)에게서 세례를 받고 돌아와 전교한 것이 내포교회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원래 1831년 조선교구 창설을 전후한 시기, 천주 신앙은 중국 동북부를 거쳐 조선의 국경 도시인 의주 - 평양 - 서울로 이어지는 통로로 전파되었다. 그러나 박해가 거듭되면서 정부의 국경 경비가 강화되었고, 새로운 경로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개척된 새로운 루트가 바로 동양 전도의 거점이던 마카오에서 상하이를 거쳐 한반도 중부 해안으로 이어지는 서해 루트였다. 그리고 천주교의 전래가 서해의 뱃길이 있어서 가능했다면, 교세의 빠른 확산은 삼포천이나 무한천 등 수로의 덕이었다. 이 경로를 통해 유입된 천주사상은 금북정맥을 넘어서 충청도 내륙으로 확산되어 갔다.

더욱이 내포는 주민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천주 신앙 소공동체로의 교회가 창설된 지방이다. 그리고 그 모체는 여사울(예산군 신암면 신종리의 한 마을) 사람 이존창에 의해 조직된 ‘여사울 천주신앙 공동체’였다. 여사울에서 시작된 천주 신앙의 씨앗은 빠른 속도로 내포 각지로 파급되었고, 내포 출신의 김대건과 최양업(崔良業) 신부를 배출하였다. 여사울의 생가와 공소는 ‘내포의 사도’ 이존창과 관련된 유적이며, 숭피성지는 최초의 신부 김대건의 출생지이고, 그와 함께 서품을 받았던 최양업 신부의 출생지는 다락골이다.

이와 함께 조선시대 말 이후 민중의 여망을 담고 번성했던 신도안 지역 역시 주목할 만한 대상이다. 다만 그 인물들의 행적이 잘 알려진 바가 없는 관계로 향후 연구과제로 남는다 할 것이다. 내포교회와 관련된 인물들은 아래와 같다.

▶ 한국 천주교사의 화려한 불꽃, 내포교회 : 李存昌, 金大建, 崔良業, 姜完淑

(8) 기타

이 외에도 충청도와 인연이 깊은 명인들은 다방면에 걸쳐 발견할 수 있다. 전라도 좌·우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서편제와 더불어 조선 후기 이후 판소리의 3유파로 발전하였던 중고제가 있다. 그러나 현재 중고제는 전승 단절의 위기를 맞고 있어서, 일반에게는 낯선 이름일 뿐이다. 대표적인 명창들은 아래와 같다.

▶ 판소리 3유파 가운데 하나였던 중고제 관련 명창: 李東伯 金昌龍 高壽寬

선비의 고장에서는 문장가들도 여럿 배출하였다. 조선 초 이후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명문들을 쏟아냈던 선비들은 끊이지 않았다. 여류 문인들의 전통도 무시할 수는 없다. 다만 이들에 관한 연구가 미진하여 일반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대표적인 문장가들의 면면은 아래와 같다.

▶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문장가 : 徐居正, 申欽, 金萬重, 申光洙
▶ 면면이 이어지는 여류학자의 흐름 : 南平曹氏, 任允曄堂, 浩然齋

2) 대상인물 및 관련유적 관리 현황분석

▶ 인물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인한 일반의 관심 저조
▶ 관련 유적에 대한 정비 미흡
▶ 교육 및 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용 부족

(1) 백제 인물 및 관련유적 관리현황

가) 관련 인물 : 聖王, 武寧王, 武王, 義慈王, 謙益, 惠聰, 觀勒, 阿非知, 都彌婦人, 階伯, 黑齒常之, 豐, 成忠, 興首, 福信, 道琛

나) 관련 유적

번호	종류	명칭	소재지
1	산성	공산성	공주시 산성동, 금성동, 옥룡동
2	고분	송산리고분군	공주시 금성동
3	박물관	공주박물관	공주시 중동
4	당간지주	반죽동 당간지주	공주시 반죽동
5	제사유적	정지산 백제유적	공주시 금성동
6	산성	부소산성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관북리
7	사지	정림사지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8	사지	능산리사지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9	고분	능산리고분군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10	나성	부여 나성	부여군 부여읍 염창리, 능산리, 가탑리, 석목리 일원
11	박물관	부여박물관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12	관광단지	백제역사재현단지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13	산성	성흥산성	부여군 임천면 군사리
14	사지	군수리사지	부여군 부여읍 군수리
15	와요지	정암리와요지	부여군 규암면 정암리
16	사지	왕흥사지	부여군 규암면 신리
17	사적 및 명승	구드래 일원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18	산성	노성산성	논산시 노성면 송당리
19	산성	황산성	논산시 연산면 표정리
20	묘소	계백장군묘소	논산시 부적면 신흥리
21	전적지	황산벌전적지	논산시 연산면 일대

다) 문제점

- ▶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 : 이로 인해 백제시대 유적·유물에 대한 정비 및 활용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보존관리도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임
- ▶ 백제시대의 경우 각각의 인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유적과 유물은 매우 적은 편이며, 일부는 후대에 조성된 것들임.
- ▶ 따라서 현존하고 있는 관련 유적·유물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함께 인물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새로운 문화요소를 개발해 내는 작업이 필요함
- ▶ 현재 공주와 부여 소재 백제시대 문화재를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청양·보령·서산·태안·예산 등과 연계한 조사·연구·정

비가 상대적으로 소홀함

- ▶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의 경우, 백제의 문화재를 발굴하고 정비·복원함으로써 잊혀진 백제문화를 재조명하는데 주안점을 두기 보다는 관광위락단지 조성과 지역개발에 너무 치중하는 경향이 있음

(2) 고려시대의 충청인

고려시대에 충청남도에서 배출한 인물들의 활동 또한 결코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인물들을 포괄하는 주제를 설정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관련 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영의 경우, 조선시대의 호국·충절인과 함께 논하는 것이 좋으며, 성리학자의 경우, 굳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구분할 필요는 없다. 법인국사 탄문의 경우에도 내포불교의 전통 속에서 살펴보아야 할 듯하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분하여 논하지 않을 것이다.

(3) 충청도 명현 및 관련유적 관리현황

- ▶ 조선시대 성리학에 대해서는, 그 공(功)보다는, 일방적으로 과(過)만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임
- ▶ 도민, 또는 관련 후손조차도 스스로 부정적 시각을 불식하지 못함
- ▶ 그런 가운데 소중한 관련 유품과 유적이 방치되고 계속 망실되고 있음

가) 돈암서원 일원

- ▶ 관련 인물 : 사계 김장생, 신독재 김집 등
- ▶ 관련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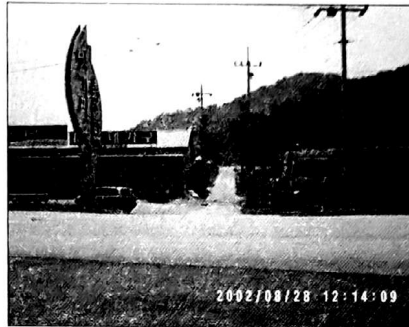
번 호	종 류	명 칭	소재지
1	서원	돈암서원	연산면 임리
2	비	돈암서원 묘정비	연산면 임리
3	비	양성당중수비	연산면 임리
4	사묘	김국광 사당	연산면 고정리
5	사묘	모선재	연산면 고정리
6	사묘	영사재	연산면 고정리
7	사묘	김장생 사당	연산면 고정리
8	사묘	염수재	연산면 고정리
9	사묘	영모재	연산면 고정리
10	총효비	열녀 양천허씨 정려	연산읍 고정리
11	총효비	효자 김재경 정려	연산면 고정리
12	묘	광산김씨 묘역	연산면 고정리
13	신도비	김장생 신도비	연산면 고정리
14	묘	김겸광 묘소	연산면 고정리
15	신도비	김겸광 신도비	연산면 고정리
16	신도비	김계휘 신도비	연산면 고정리
17	묘	기계유씨 묘소	연산면 고정리
18	사묘	김집 사당	연산면 임리
19	비	김장생 유허비	연산면 임리
20	선정비	김한수영세불망비	연산면 임리
21	유지	양성당지	연산면 임리
22	석각	돈암[돼지바위]	연산면 임리
23	유지	김장생 생가지	연산면 임리
24	종가	김장생의 종가(재실과 사당)	

▶ 문제점

- 충청남도 유학을 대표할 수 있는 돈암서원의 경우,
- 진입로의 문제 : 돈암서원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도 진입로를 찾기 힘들
- 좁은 지하통로 : 소형 승용차조차 통과하기 어려움
- 주변 민가가 정비되지 않았고, 뒷산에 조성되었던 송림지대가 경작지로 이용되면서 역사적 경관을 해치고 있음
- 돈암서원~고정리[사계 종가·묘역·재실 등이 위치]간 옛길을 이용하면, 충분히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폐도(廢道)로 방치되고 있어서, 2개소의 관련유적의 연계 효과를 얻지 못하는 상황임



돈암서원 진입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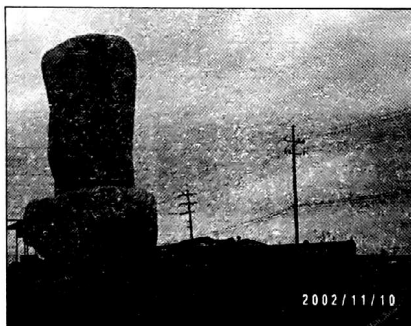
돈암서원 진입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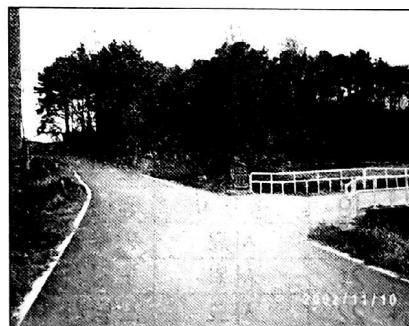
돈암서원 앞 전경



돈암서원 입구



고정리 입구



사계묘역과 양천허씨정려 갈림길



묘역과 증가 갈림길 안내석



김겸광신도비 보존상태

나) 논산시 노성면 일원

- ▶ 관련 인물 : 윤황(尹煌) 5형제, 윤훈거(尹勛舉), 윤순거(尹舜舉, 1596~1668), 윤문거(尹文舉, 1606~1672) 등 세칭 '팔거(八舉)' 여덟 중형제, 윤선거(尹宣舉, 1610~1669) · 윤증(尹拯, 1629~1714) 부자

▶ 관련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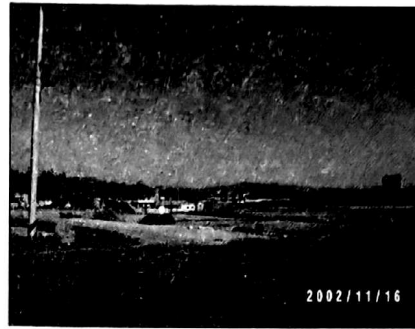
번호	종류	명칭	소재지
1	향교	노성향교	노성면 교촌리
2	사묘	궐리사	노성면 교촌리
3	석물	궐리사 석주	노성면 교촌리
4	석물	궐리사 공자상	노성면 교촌리
5	기념비	박상규 기념비	노성면 교촌리
6	충효비	열녀 공주이씨 정려	노성면 교촌리
7	사묘	유봉영당[명재영당]	노성면 병사리
8	학당	파평윤씨 종학당	노성면 병사리
9	누정	종학당 정수루[정수암]	노성면 병사리
10	유지	의창지	노성면 병사리
11	사묘	윤전 재실	노성면 병사리
12	사묘	파평윤씨 재실[병사]	노성면 병사리
13	묘	병사리 파평윤씨 묘역	노성면 병사리
14	묘비	윤창세 묘비명	노성면 병사리
15	신도비	윤전 신도비	노성면 병사리
16	신도비	윤순거 신도비	노성면 병사리
17	신도비	윤진 신도비	노성면 병사리
18	충효비	효자 윤상정 정려	노성면 죽림리 원고개
19	충효비	열녀 완산이씨 정려	노성면 호암 1리 장선마을
20	사묘	양무공영당	노성면 죽림리
21	서원	노강서원	광석면 오강 1리
22	사묘	노당사	광석면 신당리
23	묘	윤문거 묘소	광석면 갈산 2리
24	신도비	윤문거 신도비	광석면 갈산 2리

▶ 문제점

- ① 돈암서원과 더불어 고종 때 훼손되지 않았던, 충청남도의 대표 서원인 노강서원의 경우,
- 진입로의 문제 : 농로 수준의 진입로로서 대형 차량이 출입하기 곤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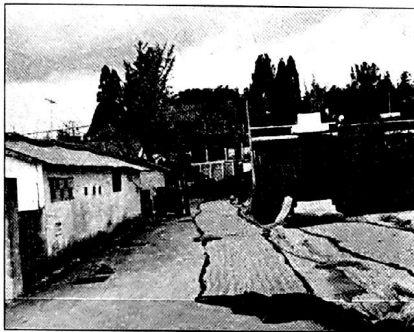


노강서원 동편진입로



노강서원 서편진입로

- 서원 소유지에 난립한 주변 민가가 정비되지 않았고, 서원의 부속채였던 건물마저 보수되지 않은 채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서 역사적 경관이 크게 훼손됨



노강서원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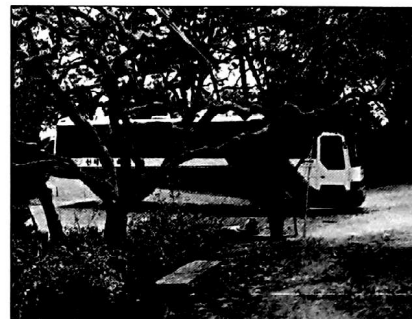


방치된 노강서원 부속채

- ② 노성향교와 윤증고택이 위치한 교촌리 유적의 경우,
- 진입로와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방문차량이 출입하기 곤란하며,



윤증고택 진입로



윤증고택 앞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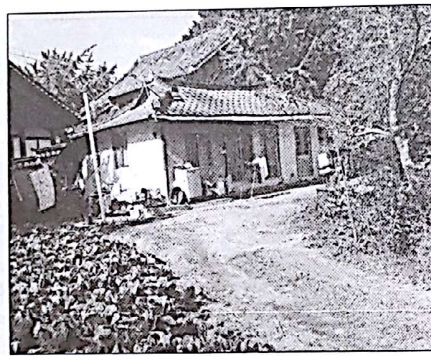
· 현재 정비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주변에 민가와 축사·비닐하우스 등이 난립하여 경관을 해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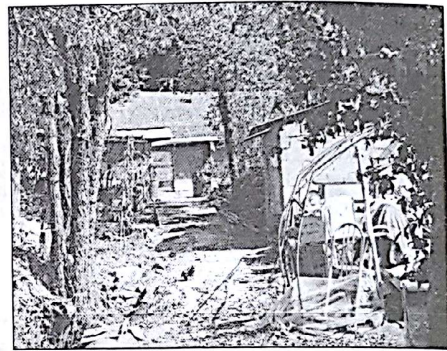
윤증고택



윤증고택 연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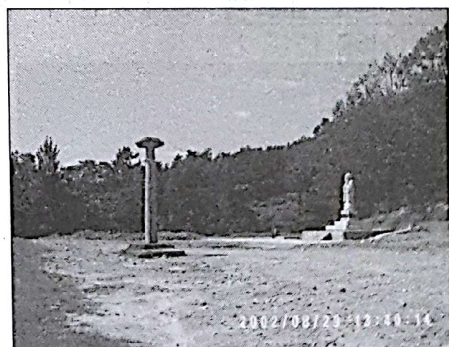
윤증고택과 노성향교 사이 부속채



윤증고택 주변 민가



궐리사 전경



궐리사 석주와 공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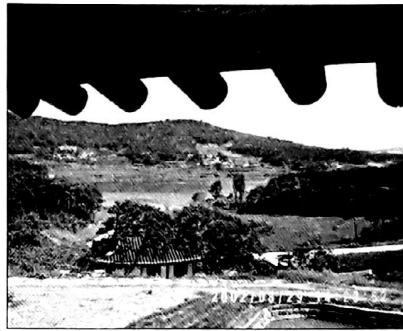
- 윤증고택과 권리사 사이 이동로가 정비되지 않아서, 연계효과를 얻지 못함

③ 병사리 묘역과 종학당의 경우,

- 최근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종학당 진입로의 경우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며, 묘역 주변 민가와 도로 정비도 요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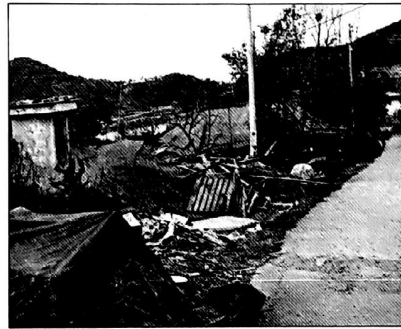
종학당



종학당 주변 전경



종학당 진입로



파평윤씨 묘역 주변

다) 논산시 강경읍 죽림서원 일원

- ▶ 관련 인물 : 사계 김장생, 우암 송시열 등

▶ 관련 유적

번 호	종 류	명 칭	소재지
1	서원	죽림서원	강경읍 황산동
2	비	황산서원비	강경읍 황산동
3	亭·閣	팔괘정	강경읍 황산동
4	亭·閣	임리정	강경읍 황산동
5	亭·閣	덕유정과 팽나무	강경읍 동흥리

▶ 문제점

- 주변에 민가가 밀집하고, 경내 시설의 관리상태가 미흡하여, 활용 이전에 기초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대상임



팔괘정에서 바라본 죽림서원과 임이정



팔괘정 전경



팔괘정 관리상태



죽림서원 주변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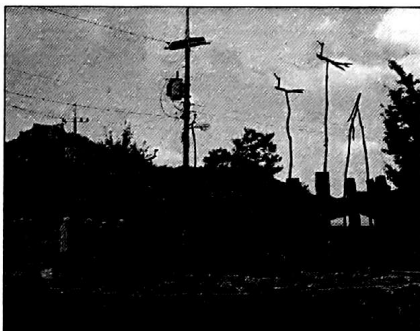
라) 아산시 송악면 외암민속마을

- ▶ 관련 인물 : 고불 땡사당, 외암 이간
- ▶ 관련 유적

번 호	종 류	명 칭	소재지
1	고택	참판댁	송악면 외암리
2	고택	건재고택	송악면 외암리
3	마을	외암민속마을	송악면 외암리
4	서재	강당사	송악면 강당리
5	일괄유물	이간선생 목판 등	송악면 외암리
6	일괄유물	퇴호선생 일괄유품	송악면 외암리
7	고택	맹씨행단	배방면 중리

▶ 문제점

- 민속마을 지정 후 영화나 드라마의 촬영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 체험을 중시하는 관광추세에 맞추어 최근 내방객이 급증하는 추세임
- 그런데 충청도의 대표적인 반촌(班村)으로서, 외암 이간과 퇴호 이정렬 선생의 유품이 대거 소장되어 있으나,
-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민속마을로서, 건축물 위주의 정비계획만 추진되면서,
-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데에 미흡한 면이 많음
- 최근 민속관이 건립되었으나, 전시계획에 대한 복안은 마련되지 못한 상태임



마을 입구 장승과 솟대



드라마 촬영 모습

마)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 추사고택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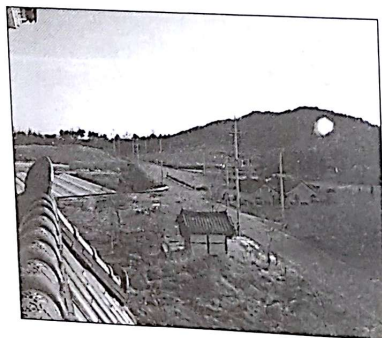
▶ 관련 인물 : 추사 김정희

▶ 관련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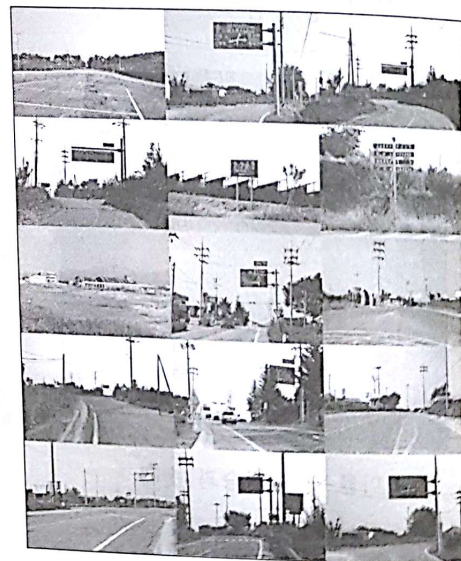
번 호	종 류	명 칭	소재지
1	일괄유물	김정희종가유물	신암면 용궁리
2	노거수	백송	신암면 용궁리
3	고택	추사고택	신암면 용궁리
4	일괄유물	김정희선생유물	신암면 용궁리
5	정려	화순옹주홍문	신암면 용궁리
6	묘역	김정희의 묘	신암면 용궁리
7	묘역	월성위의 묘	신암면 용궁리

▶ 문제점

- 추사에 대한 사회적 지명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 일괄 유적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도 내방객들의 관심을 끌만한 요소가 많은 관계로,
- 추사고택은 외부로부터의 접근이 용이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 최근 내방객들이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는 답사지임
- 그러나 현재까지 도로체계가 미흡하여 다른 자원과의 연계가 힘든 상황임



추사고택 부근 현황



추사고택 인근 도로 안내판

(4) 충청남도의 호국과 충절

- ▶ 충청남도는 최영으로부터 단종 폐위, 임진왜란, 홍주의병, 그리고 항일 운동으로 이어지는 충절의 맥이 끊이지 않은 지역이나,
- ▶ 기초적인 조사·연구 및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 ▶ 외부로부터의 접근이 어려워 교육·홍보 및 활용상의 어려움이 많았던 자원임
- ▶ 최근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이후, 내방객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요망되는 역사 자원임

- ▶ 관련 인물 : 金宗瑞, 死六臣 3인(成三問, 朴彭年, 李塏), 金時習, 李舜臣, 金時敏, 鄭忠信, 靈主, 趙憲, 南以興, 閔宗植, 李南珪, 金福漢, 崔益鉉

※ 일제강점기의 관련 인물 : 金佐鎭, 韓龍雲, 尹奉吉

▶ 관련 유적

번 호	종 류	명 칭	소재지
1	산성	임존성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
2	정려·묘소	김종서의 묘소와 정려	공주시 장기면 대교리
3	서원지	노은단	홍성군 홍북면 노은리
4	묘소	성삼문 묘소	논산시 가야곡면 양촌리
5	사우	매죽헌 사우	연기군 금남면 달전리
6	비석	박팽년선생유허비	대전시 동구 가양동
7	사우	현충사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8	묘역	칠백의총	금산군 금성면 의총리
9	출생지	김시민 장군 출생지	천안시 병천면 가전리
10	비	영규대사 비	공주군 계룡면 월암리
11	사당	진충사	서산시 지곡면 대요리
12	사당	충장사	당진군 대호지면 도이리
13	묘역	홍주의사총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14	사당	모덕사	청양군 목면 송암리
15	묘소	최익현선생 묘소	예산군 광시면 관음리
16	묘소	김복한선생묘	홍성군 서부면 이호리

17	고택	이념규고택	예산군 대술면 상항리
18	기념탑	이념규선생순국기념탑	아산시 송악면 평촌리
19	생가지	김옥균 생가지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20	묘소	김옥균 묘소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21	서원(사당)	용동서원(문충사)	대전시 동구 용운동
22	생가지	이상재 생가지	서천군 한산면 종지리
23	생가지	충애사	태안군 원북면 반계리

▶ 문제점

- 천안시는 독립기념관이 유치될 정도로 호국·충절인들을 많이 배출한 지역이나,
- 김시민, 이동녕, 이범석 등 독립기념관 인근의 관련 유적의 정비가 미흡한 상황이며,
- 천안과 더불어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홍성군 일원의 유적의 경우에는 관내 도로망 정비가 미흡하여 연계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음

(5) 내포불교 관련유적

- ▶ 불교사의 한 축을 담당하는 문화유산임에도,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 ▶ 조사·연구가 미진하고, 정비 계획 및 사업도 부진한 상태이며,
- ▶ 관광자원으로 활발하게 활용되지 못하여 왔으나,
- ▶ 최근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이후, 내방객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요망되는 역사 자원임

- ▶ 관련 인물 : 朗慧禪師 無染, 法印國師 坦文, 太古 普愚, 無學 自招, 鏡虛 惺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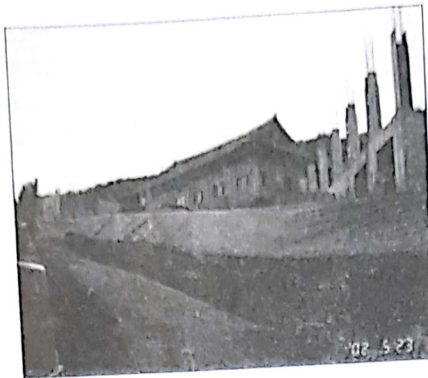
※ 근대불교 관련 인물 : 滿空 月面, 韓龍雲, 一葉

▶ 관련 유적

번 호	종 류	명 칭	소재지
1	석불	태안마애불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2	석불	서산마애불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3	석불	사면석불	예산군 봉산면 화전리
4	고찰	수덕사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5	고찰	개심사	서산시 운산면 신창리
6	고찰	문수사	서산시 운산면 태봉리
8	사지	보원사지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9	사지	성주사지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10	사지	가야사지	예산군 덕산면 상가리
11	사지	안국사지	당진군 정미면 수당리

▶ 문제점

- 현재까지 내방객을 위한 기초적인 기반·편의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로서,
-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이후 관광객의 급증으로 인하여 관련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그러나 진입로 확·포장, 주차공간 마련 등과 함께,
- 연구 및 고증 작업이 생략된 채, 경내 대규모 건물을 증·개축하고 있는 바,
- 전통 사찰로서의 경관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고,
- 수덕사의 경우(사례)
 - 수덕사 전면 경관을 가로막는 강당시설[황하정루]
 - 인도식 건물로 이전하여 증축되는 암자[견성암]
 - ※ (김)일엽 스님이 거처했던 견성암 터는 밭으로 경작되고 있음
-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고려는 물론,
- 간단한 안내책자 발간에도 소홀한 실정임
 - ⇒ 해당 유적이 전 국민이 향유하여야 하는 역사유산이라는 사실은 망각한 채,
- 전체적으로 해당 사찰의 사세(寺勢) 확장의 기회로 생각할 뿐, 방문자들을 위한 배려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됨



개축 공사중인 견성암



옛 견성암 터



수덕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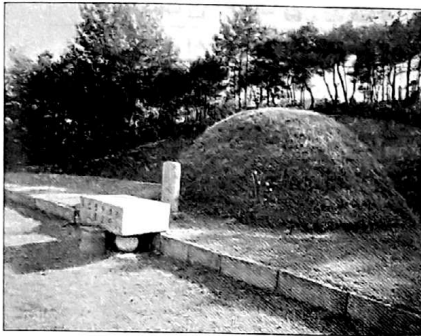
(6) 계룡산의 불교유적

- ▶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관광명소로서,
- ▶ 도시에 인접하였고,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 ▶ 연계 관광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음

▶ 관련 인물 : 靈圭 大師, 金宗瑞, 死六臣(成三問, 朴彭年, 李塏), 金時習

▶ 관련 유적

번 호	종 류	명 칭	소재지
1	고찰	동학사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2	고찰	갑사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3	고찰	신원사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
4	고찰	개태사	논산시 연산면 천호리
5	사지	구룡사지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



영규대사 묘소



신원사 대웅전

▶ 문제점

- 대전 및 공주 시내를 물론,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관광명소로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으나,
- 유적에 얹힌 역사와 관련 인물들에 대한 안내책자가 부족하며,
- 인접한 문화자원임에도 연계 관광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음

(7) 내포교회 관련유적

- ▶ 한국 천주교사를 대표할 수 있는 유적지임에도 불구하고,
- ▶ 대표적인 일부 유적에 대한 기초 단계의 정비가 이루어진 상태로서,
- ▶ 대다수의 유적지는 정확한 위치조차 조사되지 못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음

- ▶ 관련 인물 : 李存昌, 金大建, 崔良業

▶ 관련 유적

번호	종류	명칭	소재지
1	순교지	갈매못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2	성당	공세리 성당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3	탄생지	다락골	청양군 화성면 농암리
4	탄생지	솔외성지	당진군 우강면 송산리
5	순교지	부여 지석리	부여군 충화면 지석리
6	교우촌	소학골	천안시 북면 납안리
7	교우촌	수리치골	공주시 신평면 봉갑리
8	공소	신리 공소	당진군 합덕읍 신리
9	탄생지	이존창 생가터	예산군 신암면 신종리
10	성당	합덕성당	당진군 합덕읍 합덕리
11	순교지	해미읍성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12	순교지	황새바위	공주시 교동

▶ 문제점

- 한국의 대표적인 천주교 성지로서, 많은 순례자들이 방문하고 있으나,
- 천주교 자체의 사업으로 일부만이 정비되었을 뿐이며, 대다수의 성지는 그 위치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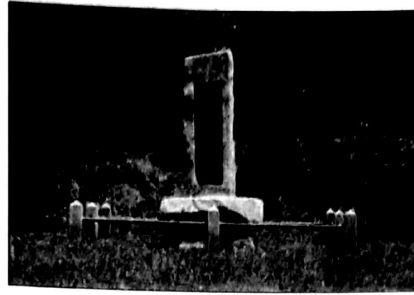
다락골 줄무덤



다락골 순교탑



수리치골 성지



부여 지석리 성지

<조사·확인이 필요한 천주교 성지 현황>

처형지 및 순교자 무덤	
처형지	定山, 德山, 沔川, 大興, 禮山, 新昌
순교자 무덤	목천 納安里 순교자 묘역, 신평 성당 무명순교자 묘
순교자의 출생지와 교우촌	
예산	간양골·수철리
면천	개안말, 농바위 점, 원마루
홍주	길아들기, 원모리, 옥금재, 대전골, 서면, 엄섬리, 중안이, 통포안
공주	국실, 돛병리, 유구 관불산, 진밭, 질울, 천(청)장리, 서재요골, 골남리, 도간리, 마런동, 먹방리, 버스리, 번개면 동의울, 산유리, 서면, 소항리, 용수골, 점골, 직바위, 집티
덕산	황무실, 섬라(島村), 가야산 밑, 개간실, 가(개)야골, 거동리, 구례골, 봉명골, 삼다리, 신프런, 황금리
목천	서덜골, 장사동, 복구정, 복후경, 북면 배장골, 칠안 공심리
서산	강당리, 용나인
신창	창말, 남방재, 龍塘浦, 단정리, 조원동
홍산	巨柒, 도양골, 구신, 방고개
남포	간재, 서지동, 예목리
서천	산막골, 정수동, 절미, 최막골
기타 병인 박해 때의 교우촌	
	・결성 : 성머리(金化숙 베드로), 덕머리, ・논산 : 강경리, ・비인 : 때안말, ・아산 : 구만리, ・연산 : 중보실, ・온양 : 배여동, ・직산 : 양지, 농촌, ・진잠 : 앞재, ・천안 : 노로지, 대거리, 속풀, 염나무골, 해사동, ・해미 : 삼진리, 원벌, 역말, 이문, 장생동

- 종교 유적지로서, 한편으로는 천주교단과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타 종교의 형평성 문제의 제기가 우려됨

▶ 충청남도의 차별적인 특징이 두드러짐

- 백제의 인물과 문화
- 고려 말 이후 학계를 주도했던 학맥
- 면면이 이어지는 호국·충절의 전통
- 계룡산과 내포의 불교전통
- 조선말의 새로운 전통, 내포교회
- 종고제 판소리

⇒ 지속적인 분야별 연구-홍보-활용의 필요성

▶ 일부 분야의 경우, 현재까지 부정적 시각이 우세하고, 이로 인하여 관련 유적이 방치되고 계속 망실되고 있음

⇒ 기초 조사·연구를 통한 분위기 일신의 필요성

<재평가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주요 대상>

- 백제의 인물과 문화
- 사계 이후의 기호학맥(畿湖學脈)
- 내포불교
- 내포교회
- 종고제 판소리

2. 개발 방향

1) 기본방향

- ▶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기초연구의 활성화
 - 백제문화에 대한 재평가 작업
 - 조선시대 호서학맥에 대한 객관적 연구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한 역사적 정체성 확립	관광자원으로 활용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자총과 목적을 세분한 연구결과의 간행 - 답사코스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도 - 테마공원 형태의 야외 전시기법을 응용하여, 누구나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본 연구는 충청남도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적으로 삼는다. 앞서 언급했듯이, 충청남도는 백제시대의 왕도였으며,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도 기호학맥의 주류로서 성리학을 주도했다는 점을 자랑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런데 최근 한국사의 연구 동향을 보면, 우려할 만한 부분을 감출 수 없다. 신라와 고구려에 비하여 백제 왕조에 대한 관심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패망국이라는 이유만으로, 평가절하되는 경우는 허다하다. 대표적인 사례는 의자왕이다. 삼천궁녀의 전설을 낳은 황음무도한 이미지가 각인된 것이다.

왕조의 몰락이라는 사건을 기준으로, 선 : 악이라는 이분법적 기준이 절대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의자왕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이면에는 절대 충신 계백이 있다. 그러나 인물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다. 이제 각 인물에 대한 공과(功過)를 구체적으로 살피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러한 재평가 작업은 잃어버린 백제 역사를 복원하는 데에도 일정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조선시대 기호학파에 대한 무관심 내지는 무분별한 비판까지 가해지는 데에는 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퇴계 이황 선생을 축으로 하는 영남학파에 대해서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나왔고, 이제 국제적인 관심사로 부각하고 있다. 이에 뒤질세라, 또 다른 남명 조식 선생에 대한 재조명 작업도 사회적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에 비하면, 율곡 이이 선생을 종장(宗長)으로 삼는 기호학맥의 정통을 자랑하는 충청도 사림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기 짝이 없다. 전문 연구자의 논문에서, 충청도와 연고가 깊은 인물을 다룰 때, 출생 배경 등에 관한 논의 자체가 아예 없음은 가장 좋은 예에 속할 것이다. 그리고 관심 부족은 부정적 시각이 강화되는 계기가 된 듯하다. 현재 조선시대 충청 사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도가 심해지고 있다. (소설 『영원한 제국』과 평전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에서 묘사되는 허구적 사실이 미치는 사회적 파장은, 그 자체가 연구 대상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인물사 연구는 단순히 역사적 정체성의 확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의의도 갖는다. 백제로부터 조선시대로 이어지는 면면한 정신적 흐름을 통하여 '인물의 고장'임을 일깨우고,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강조된 과(過)에 못지 않는 공(功)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현재 한국사가 지역성에 기반한 편협성을 내포하고 있음에 대하여 반성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조사와 집대성의 필요성이 있다.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연구와 체계적인 정리를 진행한다면, '인물의 고향'으로서의 본 면모를 알리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일차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교정하여야 하겠지만, 그를 위해서는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겠고, 또한 그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발굴이 동시에 진행되어야만 한다.

한편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음에도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일반에게 덜 알려지지 경우도 적지 않다. 충청남도의 경우, 호국·충절의 전통은 어디에도 손색이 없는데, 특히 천안·아산권, 그리고 홍성군 일원은 그러한 특징이 두드러진 지역이다. 유관순, 이순신, 이동녕, 홍주의병, 한용운, 김좌진 등등은 한국을 대표할 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포불교의 전통은 한국 불교사의 한 축을 담당했었다. 태안, 서산, 예산

등에 산재한 마애불과 백제 이래의 고찰들은 모두 그와 연관된 유적들이다. 그리고 조선 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대표할 수 있는 천주교사상의 도입에서도 삼교전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은 '내포교회'라 불릴 정도로 중심지였던 곳이다.

이러한 자원들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유산들이다. 교통의 불편함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 이후 내방객들이 급증한다는 사실은, 결코 이러한 문화유산들의 잠재적 가치가 적지 않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아울러 관련 정비사업이 추진된다면 이와 관련된 관광산업 등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전망할 수도 있다. 정비사업의 경우, 연계효과에 대한 고려, 특히 연계도로망의 정비를 포함하여야 함을 제안하는 바이다.

정비사업은 충분한 연구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들이 일반인에게 소개될 수 있다면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화보가 포함된 대중적인 소개책자의 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충청남도의 경우, 소개책자는 물론, 간단한 팸플렛조차 타 시·도에 비하여 매우 빈약한 편이다.

한편 그 소개방식도 대상과 용도에 따라 달라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일반인에 대한 소개서는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역사문화 교재와는 달라야 하며, 같은 학생이라 할지라도 여행지침서는 교재와는 달라야 한다.

단순히 책자의 발간에 그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 도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방문하여 그 숨결을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도시 또는 관광지에서 가까운 녹지, 특히 관련 인물 유적이 가까운 곳으로서 고속도로 등을 이용하여 접근하기 용이한 지점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내 유품전시와 함께 야외 조각공원을 조성한 후, 우선 관련 후손이나 문중의 도움을 얻고, 그들이 지속하여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인물 관련 탐방코스의 개발 또한 흥미로운 테마라 할 수 있다. 관련 유적이 남아 있다면, 체류형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한다면, 충분히 일반인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답사코스의 개발에 있어서는 연계도로망이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아울러 지적하게 될 것이다.

충청남도청 홈 페이지에 관련 자료를 수록하여, 후손을 포함한 관련 연구자들에 의한 추가 자료의 확보를 기하고,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학습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관련 여행정보 등을 덧붙이면, 이 자료는 여행 가이드북의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충청남도가 배출한

인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여론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2) 관련 추진 사업 (예시)

(1) 기초연구의 활성화

본격적인 후속 연구



교육용 지역사 교재 간행
관광용 여행 가이드북 배포
사진화보집 간행
충남인물사전 편찬

앞에서 언급했듯이, 충청도 역대 인물에 대한 연구는 시작도 하지 못한 단계라 할 수 있다. 조선 후기 가장 영향력이 컸던 인물에 속하는 사계 김장생 부자, 우암 송시열, 동춘당 송준길, 명재 윤증 선생 등등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서가 간행되기도 전에, 그 인물들에 대한 비판의 글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따라서 **후속하는 본격적인 연구는 필수적**이라 할 것이며, 각론으로 나누어 분야별 연구를 진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축적된 학술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다양한 용도의 책자를 발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 교재**, 그리고 역사탐방객들을 위한 **여행 가이드북**을 간행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교육용 교재와 가이드북을 간행할 경우, 모두 대상 연령층을 구분하여 독자층과 눈높이를 맞추어야 한다.

관련 **사진화보집**의 간행 또한 고려해볼 만한 사안이다. 특히 영상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책자의 발간과 아울러 홈페이지에 관련 사진, 그리고 동영상을 올린다면, 특히 관광의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교육과 관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술 연구에 참조할 수 있는 본격적인 **인물사전**의 편찬도 고려할 수 있다. 한국인물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인물사전의 미비점, 특히 충청남도와의 인고를 밝혀냄으로써, ① 지역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② 전문가로 하여금 인고지에 남아 있을 수도 있는 추가 자료 수집을 위한 지침서의 기능, 그리고 ③ 향후 관련 인물을 자원화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2) 답사코스의 개발

역사 탐방코스는 테마별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중적인 관광지가 아닌 관련 유적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급자의 입장에서 테마별로 특화하여 이에 부합하는 코스를 개발하고, 일반에게 널리 홍보하며, 그와 관련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충남인물사』와 관련한 테마, 그리고 대상코스는 아래와 같이 구상할 수 있다.

- (1) 옛 선비의 자취를 찾아서
- (2) 호국과 충절의 기백을 찾아서
- (3) 고승의 발자취를 따라
- (4) 내포교회의 성지를 따라
- (5) 찬란한 백제문화를 찾아서

3) 답사 코스 (예시)

(1) 옛 선비의 자취를 찾아서

가) 논산시 연산면 일원

- ▶ 위치 : 연산면 임리·고정리 인근
- ▶ 관련 인물 : 김장생, 김집, 송시열, 송준길, 성삼문, 박팽년, 이개, 계백

▶ 자원 현황

- ① 돈암서원 (충청남도 지정 사적 제383호)
- ② 고정리 종가 · 사당 · 묘역 · 재실
- ③ 충곡서원

▶ 답사 코스 : 돈암서원 - 고정리 종가 · 재실 등 - (계백장군 묘역) - 충곡서원

▶ 특징

- 도보답사가 가능한 3~4km 구간에 밀집하고 있는 충청도의 대표적 유교유적지임
- 돈암서원에 숙박이 가능하며, 교육 · 학술 활동과 연계가 가능함
- 고정리 일원에 다수 분포하는 재실을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으면, 별도의 시설 건립 없이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운용이 가능함
- 당일 또는 1박 2일 코스로 개발하되, 노성면 코스와 연계하면 2~3일 답사코스로 개발이 가능함

▶ 문제점

- 내부의 연결 도로망이 미비하여, 차량 이용에 많은 불편이 따름
- 특히 돈암서원 진입로의 경우, 대형 차량의 출입이 거의 불가능하고,
- 소형 차량의 경우에도 사고의 위험이 따름
- 주변 정비가 되지 않은 관계로, 내방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없음
- 관련 유적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책자도 발간되지 못한 상황임

▶ 정비 · 활용 방안

- 진입로의 확보
- 연계도로망 정비
 - 돈암서원 - 고정리 간 옛 오솔길 정비
 - 고정리 - 탐정저수지 간 도로 확 · 포장
- 돈암서원 주변 민가 정비
- 관련 유품의 정리 및 해제 (자료집 발간 포함)
- 관련 교육 또는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 예시 : 선비의 일상 체험, 종가생활 체험, 전통 예학 교육 프로그램
- 학술 모임의 활성화 방안 구상 및 지원체계 확립

나) 논산시 노성면 일원

▶ 위치 : 광석면 오강리 - 노성면 읍내리 · 교촌리 · 병사리 · 장구리 일원

▶ 관련 인물 : 윤증, 윤선거

▶ 자원 현황

① 노강서원 (도 지정 유형문화재 제30호)

② 노성면 장구리 고택 · 사당 · 묘역

③ 노성면 병사리 학당 · 묘역 · 영당 · 재실

④ 노성면 읍내리 · 교촌리 향교 · 서원 · 고택 · 정려 · 유품

▶ 답사 코스 : 노강서원 - 장구리 유적 - 병사리 묘역 - 교촌리 유적

▶ 특징

- 가까운 거리에 관련 유적이 밀집한 충청도의 대표적 유교유적지임
- 교통이 불편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근 (천안-)공주-논산 간 국도가 확 · 포장되면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내방객의 점증이 예상됨
- 병사리 재실 등을 이용한 숙박이 가능하며, 교육 · 학술 활동과 연계가 가능함
- 종학당의 전통교육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유지 · 존속되고 있으며, 외부인에게 개방할 의사를 피력하고 있으므로, 이를 체계화시킨 살아 있는 전통교육 프로그램의 계발 · 운영이 가능함
- 당일 또는 1박 2일 코스로 개발하되, 연산면 코스와 연계하면 2~3일 답사코스로 개발이 가능함

▶ 문제점

- 노성향교와 윤증 고택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경우, 교통사고의 발생이 문제가 될 정도로 미흡하며,
-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내방객들이 불편을 경험하게 됨
- 윤증 고택에 이웃한 지점에 사용치 않는 축사 등이 방치되어 있어서 경관을 훼손함
- 종가 및 문중에서는 외부인에게 개방할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현재까지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로, 일반인들은 내부 관람이 불가능한 상태임
- 소장 유품이 계속 망실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 문중에서(?) 관련 유적에 대한 소개책자를 발간하였으나, 대중적

인 수준은 아님

▶ 정비·활용 방안

- 노성향교와 윤중 고택으로 진입하는 도로 정비
- 주변 편의시설 확충
- 자체적으로 운용되는 전통교육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재검토
- 관련 유품의 망실을 예방하고, 일반에게 전시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다) 논산시 연산면-노성면 연계 방안

- ▶ 답사 코스 : 돈암서원 - 고정리 종가·재실 등 - (계백장군 묘역)
- 충곡서원 - 노강서원 - 장구리 유적 - 병사리 묘역
- 교촌리 유적

라) 아산시 남서부-예산시 북동부 일원

- ▶ 위치 : 아산시 읍내동 - 송악면 외암리 - 예산군 대술면 상항리·방산리 - 신암면 용궁리 일원

- ▶ 관련 인물 : 최영, 맹사성, 이간, 김정희, 이남규

▶ 자원 현황

- ① 맹씨행단 (국가 지정 사적 제109호)
- ② 아산시 송악면 외암민속마을 (국가 지정 중요민속자료 제236호)
- ③ 예산군 대술면 상항리와 방산리 유교 자원
- ④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 추사 관련 유적

- ▶ 답사 코스 : 아산시 온양민속박물관·맹씨행단·외암민속마을 - 예산군 대술면 상항리·방산리 - 신암면 추사 관련 유적

▶ 특징

-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인물과 관련된 유적들이 다수 분포함 (추사, 고불)
- 체류형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한 지역이 많음 (외암, 상항·방산)
- 최근 내방객이 급증하는 추세의 유적지가 포함되어 있음 (외암, 추사고택)

▶ 문제점

- 연계 도로망이 미흡하여, 내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음
- 내방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소개책자도 발간되지 못한 상황임
- 관련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못하여, 단순한 경유지로 그치고 있음
- 외암민속마을의 경우, 구역 내 소위 '변형가옥'이 다수 남아 있고, 주변에 경관을 훼손하는 신축건물이 들어서 있음
- 현재까지 거주환경의 개선이라는 혜택이 있으나, 주민의 일상생활의 불편이 크고, 경제적 이익이 가시화되지 못한 상태이므로, 주민들의 반발도 거센 상황임

▶ 정비·활용 방안

- 추사고택 인근 도로망의 정비
- 관련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
- 외암민속마을 프로그램의 다양화
-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또한 주민생활 편의를 고려한 개발이 필요함
- 대술면 상항리·방산리 관련 유적의 문화재 지정 검토
- 기본적인 편의시설 확충

마) 대전 - 강경간 답사코스

- ▶ 위치 : 대전 가양동·송촌동 - 공주시 반포면 - 논산시 연산면 - 논산시 강경읍
- ▶ 관련 인물 : 서기, 김장생, 송준길, 송시열, (이색, 길재, 사육신)
- ▶ 자원 현황
 - ① 우암사적공원
 - ② 동춘당 (보물 209호)
 - ③ 공주시 반포면 충현서원 (도 지정 기념물 제46호)
 - ④ 공주시 반포면 동학사 경내 숙모전 (도 지정 문화재자료 제67호)
 - ⑤ 논산시 연산면 돈암서원 인근 관련 유적
 - ⑥ 논산시 강경읍 사계·우암 관련 유적
- ▶ 답사 코스 : **대전 우암사적공원 -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 동학사 - 논산시 연산면 - 논산시 강경읍**
- ▶ 특징
 - 호서 유학의 주류를 형성하였던 서인-노론 학맥의 적통에 해당

- 되는 인물들의 관련 유적을 볼 수 있는 답사코스임
- 특히 정통론에 입각한 노론계의 사상적 경향을 엿볼 수 있는 유적들임
 - 대전시의 우암과 동춘당 관련 유적은 근린공원으로 개발되어 있어서,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 문제점

- 숙모전의 경우, 일반인들은 동학사의 부속채 정도로 인식하는 수준임
- 강경읍 관련 유적의 경우, 접근이 어려울 정도로 주변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정비·활용 방안

- 강경읍 황산 주변 정비 및 최소 편의시설
- (돈암서원 주변) : 생략
-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용의 필요성

(2) 호국과 충절의 기백을 찾아서

가) 천안-아산 권역

- ▶ 위치 : 천안시 병천면·목천면 - 아산시 염치읍·송악면 - 예산군 대술면

- ▶ 관련 인물 : 김시민, 이순신, 이남규

- ※ 근·현대 인물 : 유관순, 이동녕, 이범석

▶ 자원 현황

- ① 독립기념관
- ② 유관순열사 관련 유적
- ③ 김시민장군 출생지
- ④ 이동녕 생가
- ⑤ 이범석 생가

- ▶ 답사 코스 : 유관순 관련 유적 - 김시민장군 출생지 - 이동녕 생가 - 이범석 생가 - 독립기념관 - 현충사
(- 이남규 기념탑 - 이남규 고택)

▶ 특징

- 한국의 대표적인 호국 관련 유적지 2곳[독립기념관과 현충사]을

- 축으로 삼는 곳으로서 지명도가 높고,
- 정부고속도로를 통하여 외부로부터 접근하기 용이함

▶ 문제점

- 천안시 목천면 일원의 유적지를 이동하는 도로망이 정비되지 못하였고,
- 이동녕과 이범석 관련 유적의 정비가 불충분하며,
- 이남규 관련 유적의 경우 지명도 떨어짐

▶ 정비·활용 방안

- 정비가 미비한 유적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고,
- 천안시와 아산시간의 공조가 선행되어야 함
- 아산시의 온천자원, 외암민속마을의 전통 민속, 이남규 고택의 뛰어난 자연환경을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나) 임존성-홍주의사총 권역

- ▶ 위치 : 예산 대흥면·광시면 - 홍성 홍북면·홍성읍·서부면·결성면·갈산면

- ▶ 관련 인물 : 흑치상지, 최익현, 민종식, 김복한 등
※ 근·현대 인물 : 한용운, 김좌진

▶ 자원 현황

- ① 임존성
- ② 최익현 묘소
- ③ 홍주의사총
- ④ 김복한 묘소
- ⑤ 한용운 생가
- ⑥ 김좌진 생가

- ▶ 답사 코스 : **임존성 - 최익현 묘소 - 홍주의사총 - 김좌진 생가 - 한용운 생가 - 김복한 묘소**

▶ 특징

- 백제부흥운동과 대한제국 이후의 항일운동 유적지를 연결하는 답사 코스로서 지명도가 높고,
-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하기 용이함

▶ 문제점

- 외부에서 임존성으로 접근하기 어려우나, 대전-당진간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한 주변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 홍성군 서부지역의 관내 도로망이 정비되지 않아서 이동의 불편
함이 있고,

· 한말 의병의 대표격인 홍주의병에 대한 홍보가 미흡함

▶ 정비 · 활용 방안

· 임존성의 경우, 대홍동헌 · 예당저수지 · 이성만형제묘제비 등과의
연계효과를 고려한 정비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 홍주의병의 경우, 그 활동상과 중요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 교육과 홍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고승의 발자취를 따라

가) 계룡산 주변

▶ 위치 : 계룡산 주변 (논산시 연산면 - 공주시 반포면 · 계룡면 일
원)

▶ 관련 인물 : 영규, 김복한, (이색, 길재, 사육신, 김종서, 김시습)

▶ 자원 현황

① 개태사

② 동학사

③ 갑사

④ 신원사

▶ 답사 코스 : 개태사 - 동학사 - 갑사 - 신원사

▶ 특징

· 전국적인 명성이 높은 계룡산에 위치한 명찰들로,

· 특히 대전시민들의 나들이 코스로 지명도가 높음

▶ 문제점

· 도로 등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이 충분하고,

· 거리상으로는 당일 관람이 가능하나,

· 출입에 따른 제한 등으로 먼거리를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이 소
요되어, 하루 답사가 불가능함 (특히 외지에서 방문하는 경우)

▶ 정비 · 활용 방안

· 테마 답사를 원하는 내방객들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예시 :

서틀 버스의 운행, 관람료 인하 등)

·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하나의 패키지 상품으로 홍보하는 절차가 필요

나) 가야산의 내포불교

▶ 위치 : 서산시 운산면 · 해미면 - 예산군 덕산면 · 봉산면 일원
▶ 관련 인물 : 탄문, 경허, 한성준 (만공, 한용운, 이응로, 나혜석, 김일엽)

▶ 자원 현황

- ① 천장암
- ② 수덕사
- ③ 개심사
- ④ 문수사
- ⑤ 서산마애불(국보 제84호)
- ⑥ 보원사지(사적 제316호)

▶ 답사 코스 : 천장암 - 수덕사 - 가야사지 - 사면석불 - 서산마애불 - 보원사지 - 문수사 - 개심사

▶ 특징

- 내포불교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유적들임
-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으로 내방객들이 급증하는 추세임

▶ 문제점

- 수덕사를 제외하면, 관련 유적에 대한 소개와 편의시설의 미비로 단순한 경유지로 인식되고 있음
- 가야산 내포불교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미흡

▶ 정비 · 활용 방안

- 진입로 정비 및 편의시설의 확충
- 종합적인 소개 · 홍보의 필요성
- 내방객 급증에 따른 훼손 방지대책의 필요성

(4) 내포교회의 성지를 따라

▶ 위치 : 아산시 인주면 - 당진군 우강면 · 합덕읍 - 예산군 신암면
- 해미읍성 - (서해안고속도로) - 보령시 오천면 오천성 · 갈매못

▶ 관련 인물 : 이존창, 김대건, 최양업

▶ 자원 현황

- ①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성당
- ② 당진군 우강면 송산리 솔외성지
- ③ 당진군 합덕읍 합덕리 합덕성당
- ④ 당진군 합덕읍 신리 신리 공소
- ⑤ 예산군 신암면 신종리 이존창 생가지
- ⑥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해미읍성
- ⑦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오천성과 영보리 갈매못

▶ 답사 코스 : 아산시 공세리 성당 - 솔외성지 - 합덕성당
- 신리공소 - 이존창생가지 - 해미읍성 -
오천성 - 갈매못

▶ 특징

- 내포교회의 대표적인 '성인'들과 관련된 유적지들임
- 특히 천주교 신도들의 주된 순례지로 지명도가 높음
- 천주교회에서 자체 사업으로 꾸준히 정비·관리되고 있음
- 서해안고속도로 등 외부로부터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있어서 내
방객의 꾸준한 증가가 예상됨

▶ 문제점

- 종교적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음
- 자원의 성격상 기타 관련 자원과의 연계 개발의 어려움이 큼
- 교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숙박시설 등이 있어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의 미비로 이동상의 어려움이 많음

▶ 정비·활용 방안

- 도로 등 기반시설의 확충 요망
- 지역과의 연계개발방안 모색
- 천주교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

(5) 찬란한 백제문화를 찾아서

▶ 위치 : 공주시·부여군·논산시 일원

▶ 관련인물 : 聖王, 武寧王, 武王, 義慈王, 謙益, 惠聰, 觀勒, 阿非知,
都彌婦人, 階伯, 黑齒常之, 豐, 成忠, 興首, 福信, 道琛

▶ 자원현황

- ① 공주 공산성
- ② 공주 송산리고분군
- ③ 공주 공주박물관
- ④ 부여 부소산성
- ⑤ 부여 정림사지
- ⑥ 부여 능산리고분군, 나성
- ⑦ 부여 부여박물관
- ⑧ 부여 백제역사재현단지
- ⑨ 성흥산성
- ⑩ 계백장군묘소
- ⑪ 황산벌전적지

▶ 답사 코스 : **공산성-송산리고분군(무령왕릉)-(정지산유적)-대통사지-공주박물관-부소산성-추정왕궁지-구드래나루-정림사지-궁남지-군수리사지-부여박물관-능산리사지-능산리고분군-나성-왕흥사지-성흥산성-백제역사재현단지-은산 별신당-계백장군묘소-황산벌전적지-황산성**

▶ 특징

- 백제 웅진 및 사비시기의 왕도가 위치하고 있어 백제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들이 분포하고 있음.
- 중요 유적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이 용이함
- 유적의 정비 및 각종 편의시설이 다른 시대의 유적에 비해 비교적 잘 되어있음
- 문화유적 뿐만 아니라 출토유물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어 백제인 생활상을 이해하는데 좋음.
- 특히 부여에 백제역사재현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므로 이를 유적과 연계하여 활용할 경우 더욱 효과적임.
- 현재 시기별로 민속문화가 공주·부여 등에서 행해지고 있으므로 인물·유적과 연계하여 활용할 경우 체험관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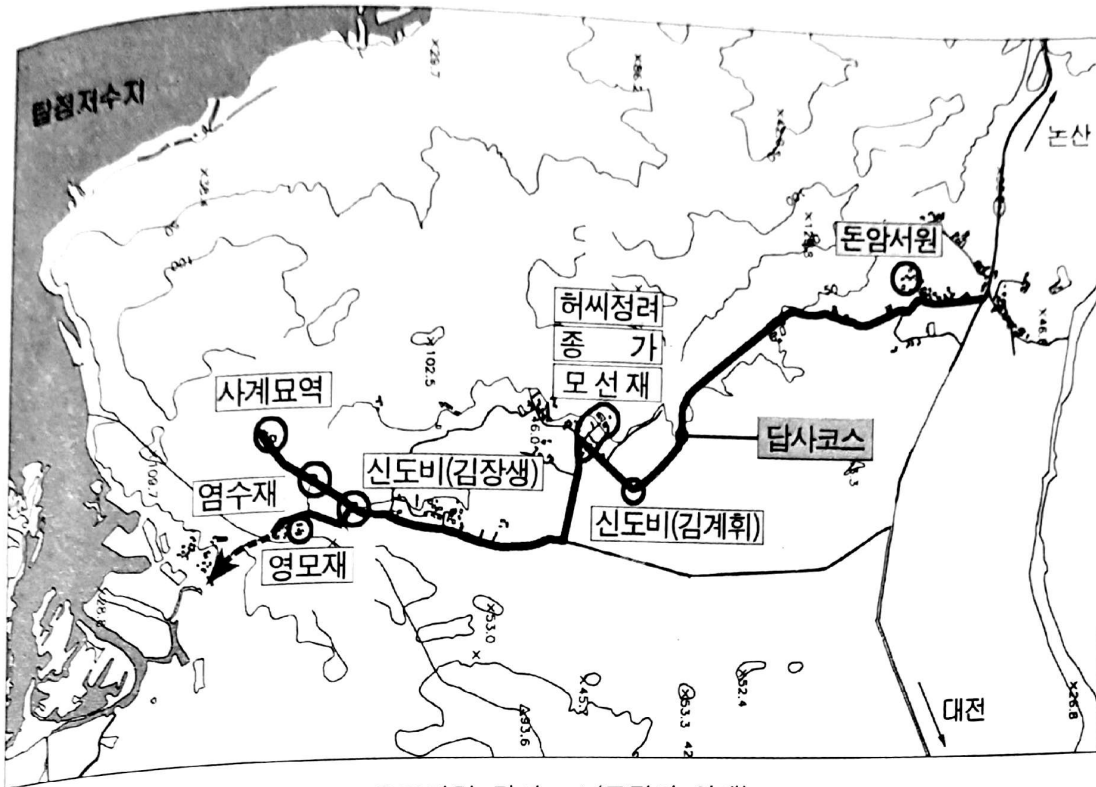
- 유적의 정비가 단위문화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변 경관에 대한 정비가 소홀
- 답사시 현장에서의 유적에 대한 안내 및 역사·문화, 유적의 형성

배경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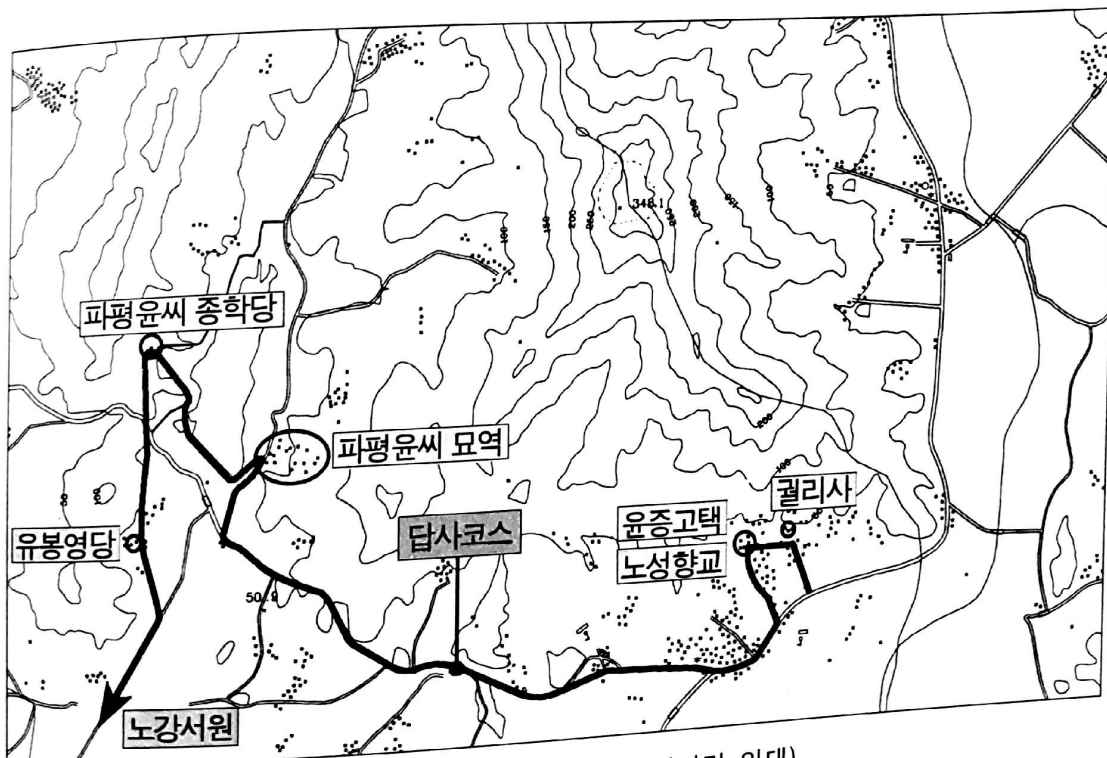
- 대규모 단체관광객의 방문시 이들을 수용할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이 부족

▶ 정비·활용방안

- 단위유적 뿐만 아니라 주변 경관까지 포함한 보존관리
- 공주·부여의 경우, 금강이라는 자연자원과 연계한 활용방안 수립
- 공주·부여의 경우 고도에 대한 별도의 관리방안 마련
- 각종 편의시설(숙박시설 등) 및 문화유산 해설사의 충원 및 효율적 활용



유교관련 답사코스(고정리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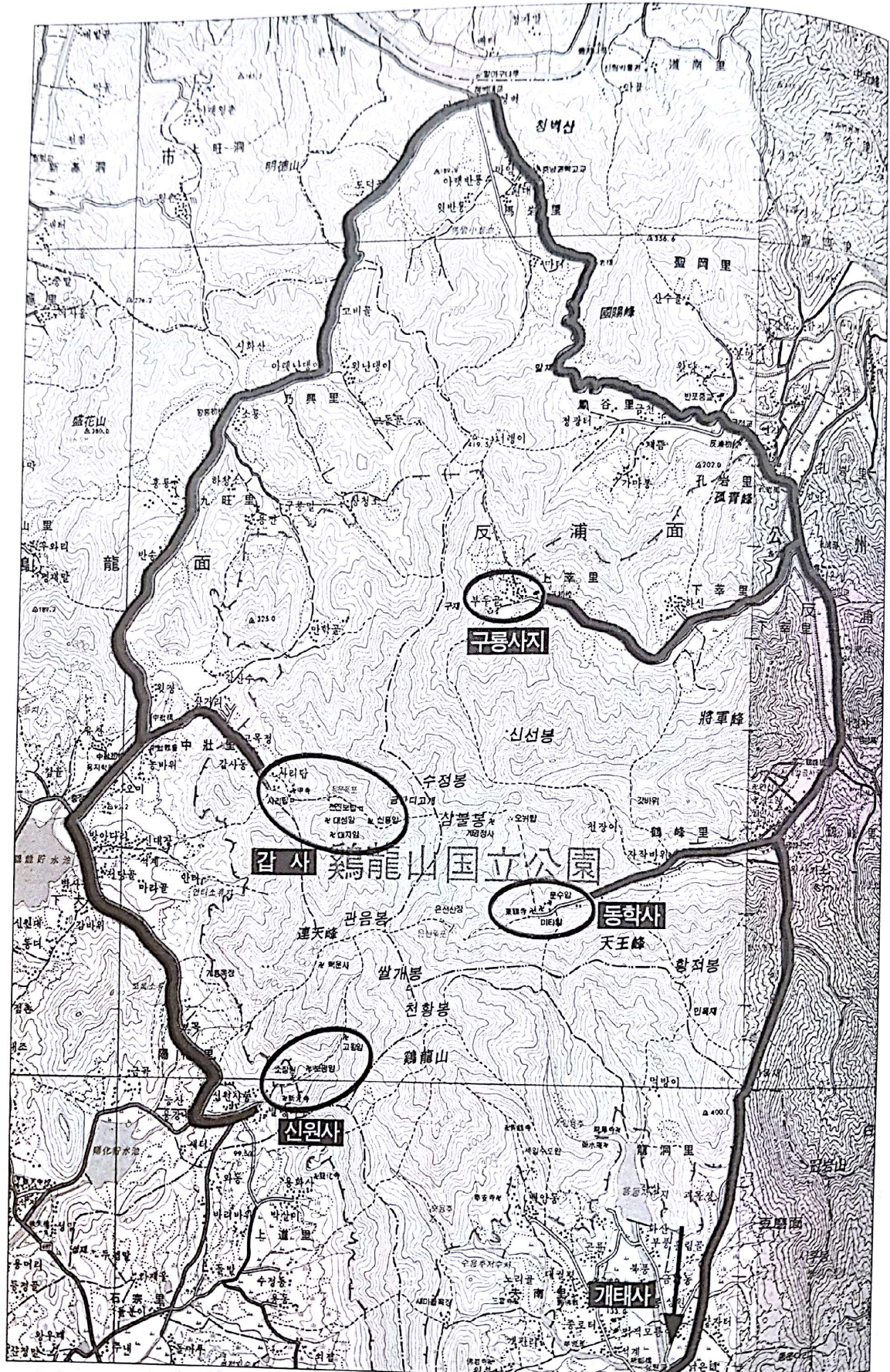
유교관련 답사코스(교촌리-병사리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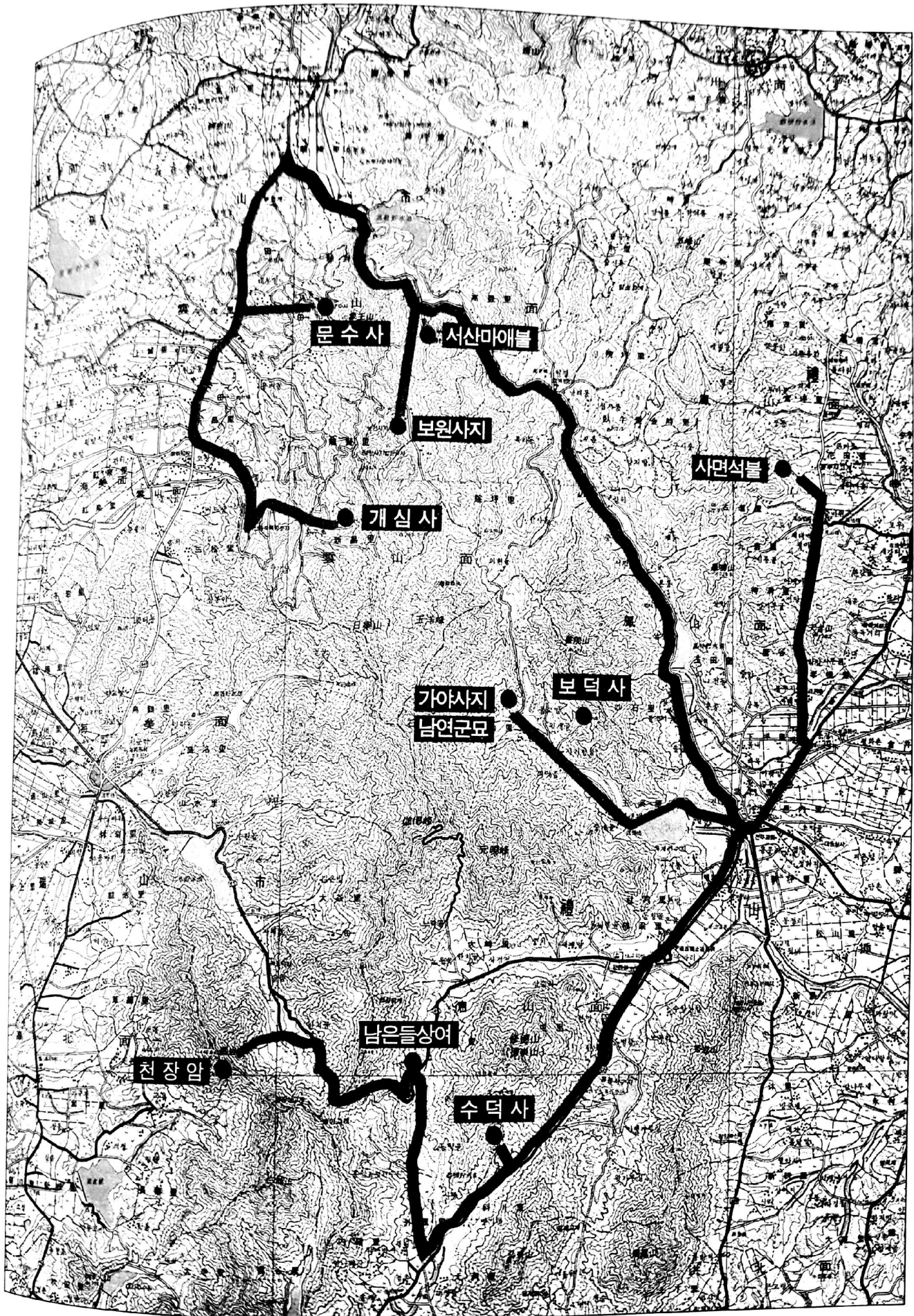
호국관련 답사 코스(천안-아산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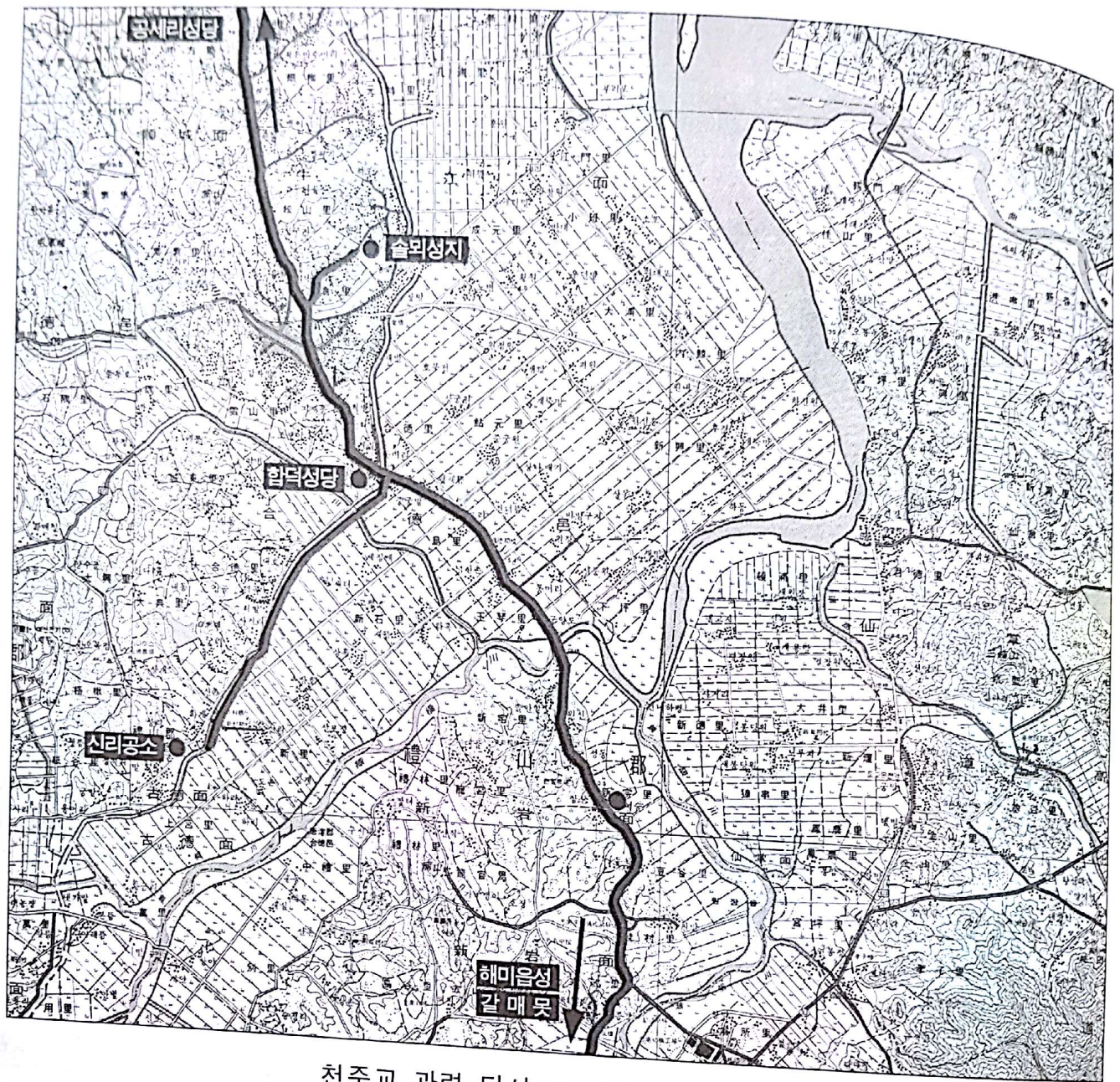
호국관련 답사 코스(예산 임존성-홍성 권역)



불교 관련 답사 코스(계룡산 주변)



불교 관련 답사 코스(가야산 주변)



천주교 관련 답사 코스(내포교회 성지)

4) 교육·문화 프로그램의 개발

- * 선비의 일상 체험
- * 산사의 생활 체험
- * 천주교 교우촌의 생활 체험
- * 예절교육 프로그램 : 향교와 서원 활용

가) 후보지 (예시)

장 소	특징	운영방안
돈암서원	한국 禮學의 산실	부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학술회의와 연계
종 학 당	대표적인 문중 교육장	기존에 운영되는 문중교육의 확대

나) 사업 내용

항목	내용
추진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예학의 상징 지역 기호유교문화권의 중심지였으며 많은 유교문화자원이 현존하는 호서(내륙) 지역의 거점으로, 특히 논산시는 한국예학의 상징적인 지역임. ○ 교육과 체험 위주의 문화사업 지향 하드웨어 중심의 문화사업에서 교육과 체험 위주의 소프트웨어 중심의 문화사업으로 변화하는 추세임. ○ 현대예절 교육의 요구 증가 오늘날 가정·직장·사회 등 각 분야에서 현대 예절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과 요구가 점증하고 있으나, 사회적으로 이러한 교육 기회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사업이 절실함.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절 아카데미 개설 운영 ○ 유교문화유적답사·예절체험
사업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민의 자부심고양 ○ 평생교육 기회 확대 ○ 청소년 인성교육 강화
교육 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시대에 맞는 시민의식 함양 및 예절의식 정립 ○ 도민의 자부심 고양 ○ 영상매체 등 각종 교육기자재 활용으로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 예학의 명소 방문답사를 통한 현장 교육 실시 (숙박 고려) ○ 교육 대상자에 알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효과 제고 ○ 홍보 매체(신문, 방송, 인터넷) 활용, 시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다) 청소년 예절 체험·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	교육내용	교육방법
전통예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가짐예절 : 마음가짐, 몸가짐, 옷차림 한복입기 ○ 인사예절 : 절하기, 평소의 인사법 등 ○ 언어예절 : 고은말, 존칭어 바로 쓰기 ○ (부모님 함자 바로 알고 대답하기) 	video 시청 실습교육 병행
다도예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도예절 : 전통 다도, 다과·음료 바로 잡고 먹기 	현지답사
현대예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예절 : 바르게 걸기, 바르게 받기 ○ 방문예절 : 남의 집에 방문했을 때의 예절 ○ 식사예절 : 어른과의 식사예절, 과일 및 간식 먹을 때의 예절 	video 시청 교육 병행
대동 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두가 하나되는 신나는 사물놀이 마당 	참여
답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학의 유적 답사 : 돈암서원과 종학당 등 향교, 서원, 재실, 사당, 정자, 종가 방문 	현지답사
고종 및 재연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당교육 재연 및 합숙교육 (여름방학) ○ 학술제 : 인물, 혹은 유교문화관련 전국규모 학술회의 개최 ○ 매년 특화 이벤트 개발 체험 기회 제공 : 강학, 시회, 전통 관혼상제례, 과거, 종가 시제, 사당제, 투호레, 다례, 향시, 유가연, 사직, 성황, 석전제, 서원제향, 향약(동약), 향음례, 향사례, 향회, 세일사(시제), 회갑진찬연, 기로연 	

라) 비교 자료

■ 세계 유교 문화 축제

항 목	내 용
기 간	2001. 10. 5 ~ 10. 31
장 소	안동시 낙동강변축제장, 도산서원, 국학진흥원 등
주 제	<p>- 퇴계 탄생 500주년 기념사업</p> <p><새천년, 퇴계와의 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 천년을 맞아 유교의 새로운 가치를 재정립 하고 유교 문화 를 현대적으로 실천 · 생활화하기 위함 - 한국유교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하기 위함
행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주년 기념사업 퇴계기념공원 조성(도산서원 주변) ○ 퇴계일대기 영상물제작(CD, VTR 등) ○ 퇴계일대기 도책 제작(액자, 병풍 등 홍보기념품) ○ 유학만화문고 제작(만화퇴계, 만화활인심방, 만화성학십도 등)
국제 학술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제 : "퇴계와 함께, 미래를 향해" ○ 초청규모 : 15개국 90명 정도(유학관련 저명한 학자) ○ 유학관련 학술회의와 퇴계학 관련 학술회의 병행 개최 ○ 청년유교포럼 : 국내 외국인학생, 대학생 등 토론 · 특강
세계 유교문화	<p>1. 전시 주제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 · 의 · 예 · 지 · 신 등 유교의 사상과 문화 소개 의 · 식 · 주 등 생활유교 및 동아시아 유교문화 전시 <p>2. 퇴계기념 전시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계의 학문과 사상 등 <p>※ 전시물은 행사종료후 국학진흥원에 상설 전시</p>
주요이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야제, 개막제, 폐막제, 유교제의 및 의례마당 ○ 전통예술 및 무예마당, 대동마당, 참여마당, 사이버마당 ○ 인터넷 유교문화제, 창작판소리, 마당놀이 '퇴계', 퇴계에 술제

■ 선비문화축제 - 문화관광부 선정 민속축제 (국비지원)

항 목	내 용
기 간	2001. 8.16~19/4일간
장 소	산청군(덕천서원)/합천군/진주시.
주 제	남명 조식 선생 탄신 500주년 기념 문화축제
행사 내용	기념행사, 기념관·유물전시관 건립, 생가·서원복원 등
주요이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고교생문예작품공모전 ○ 남명선생탄신 500주년 기념강연회 ○ 서예전시회, 서사극 공연 ○ 국제학술회의 ○ 남명유적지탐방, 청소년 남명사적지 답사, 남명유적지 탐방, 사물놀이, 진주오광대 공연 ○ TNT힙합(한여름밤의 축제), 타악합주 "천년의 소리" ○ 서사극 "선비정신의 표상-남명" 공연 ○ 의병출정식, 불꽃놀이 ○ 전통민속예술공연, 전통유림행사 재현 ○ 연극 "산너머 개똥아" 공연 ○ 전국한시백일장
기타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악공연, 풍물패공연, 서사극 순회공연 ○ 기념홍보물 제작, 다큐멘터리 제작, 방영 ○ 남명일대기 홍보 테이프 제작 배포 ○ 남명선생 캐릭터 상품개발 (티셔츠, CD, 테이프 등) ○ 도서발간 (남명전기, 남명설화선, 문인자료집) ○ 유물전시관/석상제막식

대전지역 유교 문화 축제 현황

명칭	장소	내용	주최	후원	시작 연도
동춘 당문 화제	동춘당 근린공 원	1. 학술대회 • 동춘당 세미나 • 호연재 세미나 • 호연재 詩낭송 • 호연재 서예작품전시 • 호연재 백일장 시상 2. 송모 및 축제마당 • 송모제례 • 전통혼례 • 다례공연 • 가훈 써주기 • 개막 축하공연 (하늘, 땅 사람의 소리) 3. 전통과 현대의 어울림 • 한시 백일장 • 휘호대회 • 줄넘기대회 • 투호놀이 • 소리울림	대덕구 대전매일 주관 : 대덕문화 원	대전광역시 한남대학교 대전대학교 회덕향교 은진 송씨 동춘당 문 정공파	1996년
우암 문화 제	우암 사적공 원	1. 南澗祠秋享 2. 經書講讀 3. 文藝白日場 4. 道義生活 事例發表 5. 揮毫大會 6. 漢詩白日場 7. 學術發表	南澗 祠儒會	大田廣城市 東區廳 忠南大學 校 宋子學 研究所	1996년

5) “충남 인물 사이버 전시관” 운영 (예시)

- ▶ 인터넷 활용이 보편화되는 상황 속에서, 특히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교육·홍보의 기회로 활용하고,
- ▶ 도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추가 자료를 통한 비판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 ▶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 ▶ 동시에 향후 추진될 도사박물관 또는 ‘충청 인물 테마 파크’ 관련자료를 확보하는 기회로 활용함

3. 관련 시설사업 계획 (예시)

1) “충남 인물 테마파크” 조성 (예시)

충남인물박물관 건립

- 道史博物館과 연계 검토
- 다양한 전시 기법 관련 프로그램 운영

▶ 야외 조각공원 조성

- 위치 : 관광지 또는 교통상의 요지
- 추상적 형상화를 통한 조각휴게공원
- 조각대전 개최를 통한 관심 제고
- 관련 시·군과 후손의 참여 유도

충청남도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은 도민들에게 널리 교육·홍보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관련 유품을 수집·정리·전시할 수 있는 **박물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박물관은 관련

자료의 지속적인 조사, 새로운 자료의 발굴 및 정리, 그리고 교육과 홍보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고문서 등의 역사자료의 경우, 일반인이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다양한 전시 기법과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해당 인물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조각 등을 설치한 **야외 조각공원의 조성**이다.

그 경우라 할지라도 단순히 흉상을 건립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 전달되는 메시지가 약할 뿐만 아니라, 일반의 호응을 얻기도 어렵다. 독립기념관의 전시 또는 홍주읍성 주변에 건립된 흉상 등이 이에 해당하는 사례라 할 것이다.

오히려 그 **인물과 업적을 추상적으로 형상화**되, 관람객이 어깨동무를 하고, 때로는 걸터앉을 수도 있는 **조각휴게공원**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전시물의 제작은 그 자체가 홍보수단이 될 수 있다. **조각대전을 개최**하고, 응모자들에게 관련 인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 뒤에, 응모작을 대상으로 심사를 한다면, 일반의 관심을 모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시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어렵다면, **순차적으로 전시품을 조성**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충청도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을 우선적으로 선정한 뒤에, 순차적으로 사업을 벌이는 방안이다. 이 경우 **관련 지역과 문종의 경쟁 의식을 고취**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는 바, 그들을 위한 집회장소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이라면, 특히 **관광지 또는 교통상의 결절점**을 택하여, **관련 후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한 인근 지역을 경유하는 **내방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곳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관련 유적지가 밀집한 지역이라면, 연계의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개발 사업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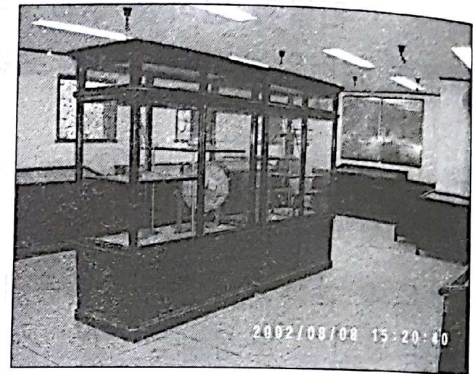
국학진흥원 전시실



국학진흥원 전시실



도산서원 박물관



도산서원 박물관 내부

2) “충청문화타운” 조성 (예시)

- ▶ 충청남도에서 전승되는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 ▶ 분산된 형태로 교육·전승·제작·공연된다면 외부인을 유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 따라서 경쟁력을 갖춘 자원들을 한 곳에 모으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 후보지 : 외부로부터 접근이 용이한 관광지
- ▶ “충청문화타운” (가칭)을 조성할 경우 아래와 같은 아이템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임
 - 충청문화타운은 道史博物館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 지정문화재 또는 명인의 작품·공연을 주 대상으로 하면서,
 - 경연대회 등을 개최하여 입상한 대상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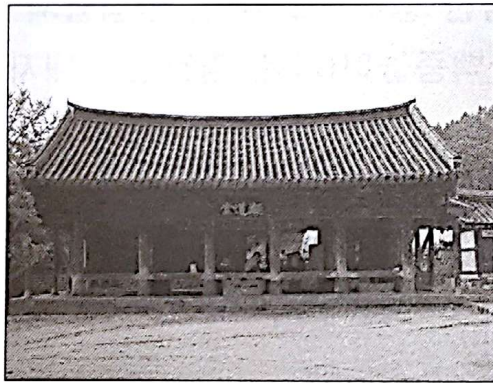
<활용 가능 자원 현황>

- 음악 : 종고제(고수관, 김창룡, 이동백), 박동진, 내포제시조, 걸성농요, 산유화가, 금산 물폐기농요, 용정리 상여소리, 용현리 상여소리, 세도 두레풍장
- 서예 : 추사 김정희, 김진규
- 그림 : 이응로
- 무용 : 한성준 (승무, 태평무, 학무)
- 연극 : 박첨지놀이
- 공예 : 지승공예, 소목장, 도자 (이삼평), 보령 남포벼루, 서천 부채장, 홍성 땡땡이장, 단청장, 불상조각장
- 음식 : 궁중요리, 민속주 (두견주, 소곡주, 백일주, 연엽주-외암이간, 인삼백주, 구기자주
- 직조 : 한산모시, 청양 춘포짜기
- 제의 : 은산별신제(백제 도침과 복신?), 탄천 장승제, 정산 동화제, 황도 봉기풍어제, 금산 농바우끄시기, 안섬당제
- 놀이 : 저산팔읍길쌈놀이, 연산백중놀이(사계 김장생), 내지리단잡기
- 무속 : 설위설경

<별첨 자료> 답사 코스 관련 지원 현황

■ 논산시 연산면 일원 자원현황

- ① 돈암서원 (충청남도 지정 사적 제383호) : 1634년에 창건되었고, 조선 고종조 흥선대원군의 서원 훼철령에도 철폐되지 않았다. 충청남도를 대표할 수 있는 사계 김장생, 신독재 김집, 우암 송시열, 동춘당 송준길을 모셨으며, 호서와 호남 북부를 영도하는 위상을 가졌었다. 원래 임리 '숲말'에 위치하였으나, 침수의 피해로 1881년 현 위치로 옮겼다. 4명의 명현을 모신 사당은, 첨차를 2중으로 올린 공포, 그리고 장식성이 강한 요소들을 응용하여 위계를 높이려는 의도로 건축되었고, 강학 공간으로 이용되었던 응도당은 예서(禮書)의 구조를 그대로 고증한 건축양식으로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외에 양성당, 정회당, 장판각 등의 건축물이 남아 있다. 현재 한국 철학, 한국사 등을 전공하는 여러 학자들이 모여 강독하고, 학술모임을 개최하는 장소로 애용되고 있다.



돈암서원 응도당



돈암서원 제례

- ② 고정리 종가·사당·묘역·재실 : 고정리 일원은 광산 김씨 일문의 세거지로서, 고가, 사당, 묘역, 재실 등이 집중 분포하고 있는 유교문화 유적의 보고이다. 부조묘(不祧廟)로는 정정공(丁靖公) 김국광(1415~1480)의 사당, 사계 김장생의 사당, 재실로는 모선재(慕先齋), 영사재(永思齋), 염수재(念修齋), 영모재(永慕齋) 등이 있으며, 열녀 양천 허씨 정려(烈女 陽川許氏 旌閭, 도 지정 유형문화재 제109호), 효자 김재경 정려가 있고, 묘역 일원은 도 지정 문화재기념물 제47호로 지정되었으며, 김장생·김점광·김계휘 등의 신도비가 있다.



양천허씨 정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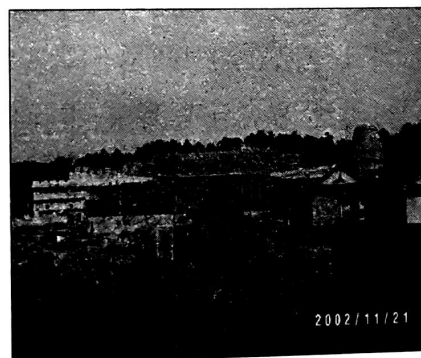


사계 묘역

- ③ **충곡서원** : 광산 김씨 묘역이 위치한 고정리 고정산 너머 탐정저수지와 인접한 부적면 충곡리에 위치한 서원(도 지정 기념물 제12호)이다. 1692년 창건 당시 계백(階伯)을 비롯한 박팽년(朴彭年)·성삼문(成三問)·이개(李塏)·유성원(柳誠源)·하위지(河緯地)·유응부(兪應孚)·김익겸(金益兼) 등 8인을 제향되었다. 계백과 사육신은 한국의 대표적인 충신이며, 광산 김씨 또한 병자호란때 강화읍성에서 순절한 인물이다. (후에 10인을 더하여 지금은 18인을 봉안하고 있음) 1871년(고종 8) 대원군의 서원 훼철령으로 철폐되었다가 1935년에 이르러 사우만 중수하였는데, 1977년 대대적으로 복원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웃에 계백장군의 묘로 전해지는 무덤이 있으며, 최근 대대적인 성역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충곡서원



계백장군 묘역 박물관 (공사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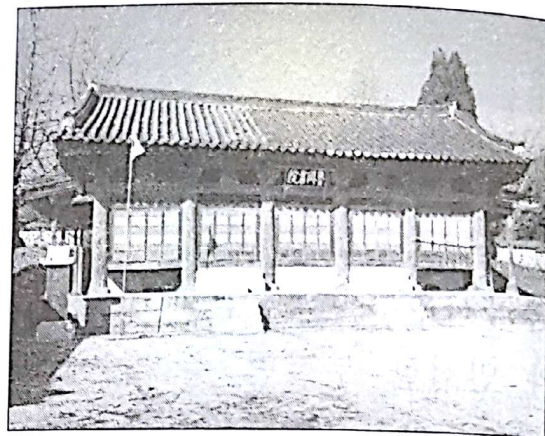
■ 논산시 노성면 일원 자원현황

- ① **노강서원** (도 지정 유형문화재 제30호): 1675년에 창건되었고, 서원훼

철령에도 충청도에서 돈암서원과 함께 철폐되지 않았던 서원이다. 노성을 세거지로 삼았던 소론의 핵심 과평 윤씨 일문의 명현 4인(윤황·윤문거·윤선거·윤증)이 모셔진 곳이다. 4인을 모신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건물이며, 정면 5칸, 측면 3칸, 그리고 가운데 대청마루 3칸의 강당, 동·서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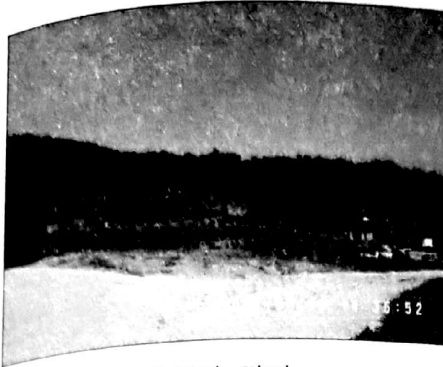
노강서원 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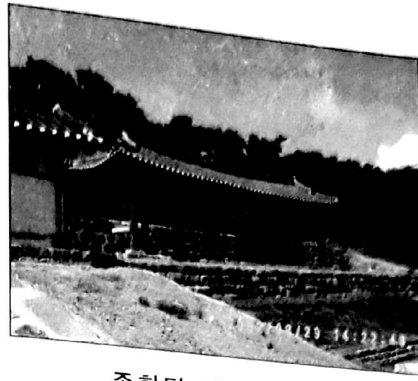
노강서원 강당

② 노성면 장구리 고택·사당·묘역 : 조선 영조 때 이축(移築)한 윤황 선생 고택(도 지정 민속자료 제8호)은 대대로 종가로 사용되었으며, 비슷한 시기에 이 건한 것으로 추정되는 윤황 사당, 신도비, 윤황선생 묘역(논산시 지정 향토유적 제 11호) 등이 전해진다.

③ 노성면 병사리 학당·묘역·영당·재실 : 병사리 묘역 아래에는 1744년 창건된 명재(明齋) 윤증을 제향하는 유봉영당(酉峰影堂, 도 지정 문화재 자료 제280호) 및 재실[敬勝齋]이 전해진다. 영당은 조선조 건물 양식으로 크게 훼손되지 않아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으며 문화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종학당(宗學堂)은 조선시대 이후 지금까지도 후손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통 교육을 실시하는, 그야말로 살아 있는 전통문화유산이다. 종학당과 이웃한 묘역과 재실[丙舍] 또한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



종학당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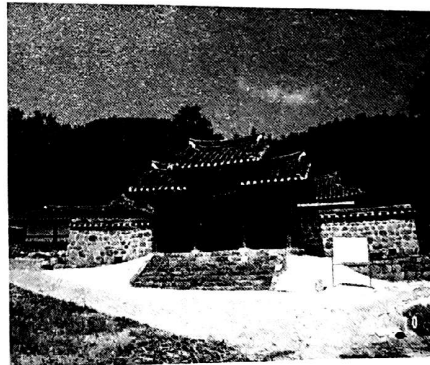


종학당 경내 정수루

- ④ 노성면 읍내리 · 교촌리 향교 · 서원 · 고택 · 정려 · 유품 : 옛 노성 고을의 향교와 윤증 선생 고택(국가 중요민속자료 제190호)이 나란히 위치하고 있다. 윤증 고택에 소장된 일괄 유품은 또한 국가 중요민속자료 제22호로, 소장 책판은 논산시 향토유적 제12호로 지정되어 있어 중요성이 더해진다. 교촌리 입구에는 윤증 선생의 모친이었던 공산 이씨 정려가 위치한다. 한편 이곳에서 동쪽으로 약 200m 떨어진 곳에는 공자(孔子)의 영정을 봉안한 켈리사(도 지정 기념물 제20호)가 남아 있다.



윤증고택 전경



켈리사 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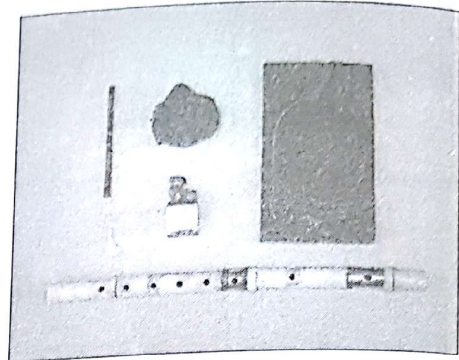
■ 아산시 남서부-예산시 북동부 일원 자원현황

- ① 땡씨행단 (국가 지정 사적 제109호): 아산 설화산 기슭에 위치한 현재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민가이다. 원래 고려 말 최영 장군의 집이었는데, 손녀 사위 고불 땡사성에게 물려주었다고 한다. 고택, 구과정, 은행데, 손녀 사위 고불 땡사성에게 물려주었다고 한다. ㄷ자형의 맞배집으로 목재는 나무 두 그루를 망라해 일컫는 이름이다. ㄷ자형의 맞배집으로 목재는 나무 두 그루를 망라해 일컫는 이름이다. 안채 뒤편에는 땡사성과 부친 땡희도의 위광술이 되다시피 그을렸다. 안채 뒤편에는 땡사성과 부친 땡희도의 위

패를 모신 사당이 있다. 관련 유품도 국가 지정 중요민속자료 제225호로 지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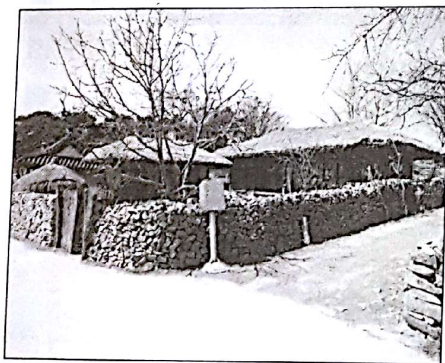


맹씨행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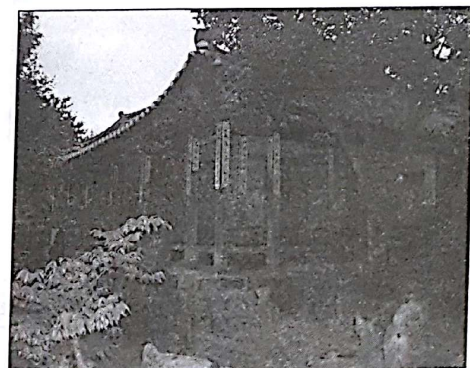


맹사성 유품

- ② 아산시 송악면 외암민속마을 (국가 지정 중요민속자료 제236호) : 예안 이씨의 집성촌으로, 참관택(중요민속자료 제195호)과 건재고택(同 제233호)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최근 복원된 초가와 돌담길이 전통 마을로서의 정취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또한 관련 유품이 일괄로 전해지면서 전시관 건립이 진행중이다. 호서 반촌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서울 및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로 최근 내방객이 급증하는 추세이며, 마을 청년회를 통한 각종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검토되고 있다.



외암리 이기선 가옥



건재고택 사랑채

- ③ 예산군 대술면 상항리와 방산리 유교 자원 : 상항리 이남규선생 고택(도 지정 有形文化財)과 방산리 이광임선생 고택(도 지정 有形文化財), 그리고 조경학적 가치가 높은 아계 이산해선생의 묘역과 관련유품, 2

개의 정려가 전해진다. 이웃한 상항리의 석불(石佛, 도 지정 有形文化財)과 장북리 삼층석탑 (문화재자료)가 있다. 경관이 수려하여 담사코스로 손색이 없으며, 장기적으로는 자체적인 개발 사업도 고려할 가치가 있다.



이남규 고택



이산해 부조묘

- ④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 추사 관련 유적 :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추사 김정희 선생과 선대의 관련 유적이 밀집한 곳이다. 영조의 차녀 화순옹주와 혼인한 월성위가 하사받은 집으로 '궁말'이라는 지명 또한 이에 서 비롯된 것이다. 현재 영당, 안채, 사랑채, 대문간이 남아 있으며, 그 외에도 추사가 심었다는 백송, 월성위와 화순옹주 내외의 묘소, 화순옹주의 정려, 추사의 묘소, 경주김씨의 墳庵이었던 화암사 등이 전해진다. 최근 기념관이 건립되고, 주변 진입로 또한 정비되었으나, 인근 간선도로망이 미흡하여 내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예산읍·삼교읍·고덕면·덕산면 등에서 접근하기가 곤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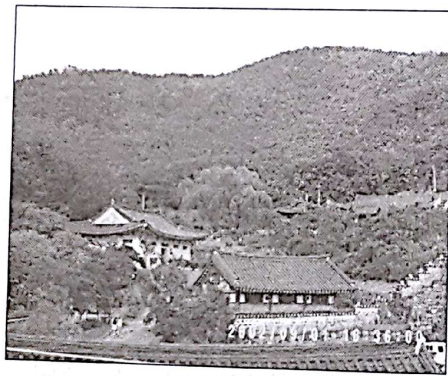
추사고택



월성위와 화순옹주의 묘역

■ 대전 - 강경간 답사코스 자원현황

- ① 우암사적공원 : 대전 자양동에 위치한 우암사적공원은 우암 송시열(1607~1689)과 사육신의 하나인 박팽년 선생이 살던 곳을 공원화한 지역이다. 남간정사와 기구정은 말년에 낙향하여 건축한 서재 겸 후학 교육의 장소였으며, 지금 남간사에는 우암 송시열, 수암 권상하, 석곡 송상민 세 분을 모시고 있다. 그 외에 이직당, 심결재, 건퇴재, 명숙각, 인함각 등이 복원되어 있으며, 1907년 화재로 소실되었던 판목을 복원하여(1929년) 보관하는 장판각, 유품을 보관·전시하는 유물관 등이 있다. 대전시민의 근린공원으로 조성되었으며, 원래의 모습에서 벗어난 경우가 많아서 논란이 빚어지기도 하나, 연못과 시냇물, 우람한 고목, 소나무, 대나무 등이 함께 어우러진 옛 정원까지 다시 조성되었다.



우암사적공원 전경



우암사적공원 유물관

- ② 동춘당 (보물 209호) : 송준길이 자신의 호를 따서 1653년 건축한 별당으로 대전 송촌동에 위치하고 있다. 편액은 송준길이 세상을 뜬 뒤 6년째 되던해(1678년)에 우암 송시열이 친필로 쓴 것이다. 별당 서북쪽에는 사당·사랑채·안채 등으로 된 고택도 남아 있다. 송촌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근린공원(약 17,000평)으로 조성하였으며, 연못 3개소, 민속그네, 화장실, 팔각정, 간이체육시설, 벤취, 음수대 등 휴게시설이 갖추어져 있는데, 매년 4월 동춘당문화제가 거행되고 있다.



동춘당공원 내부 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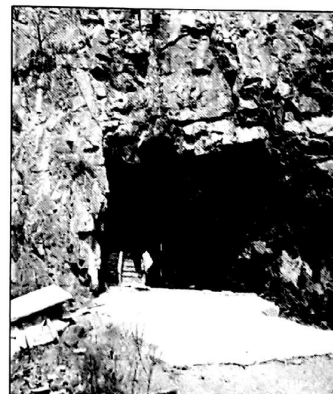


동춘당공원 산책로

- ③ 공주시 반포면 **충현서원** (도 지정 기념물 제46호) : 1581년(선조 14) 충청남도에서 최초로 세워진 서원이다. 현재 1925년에 복원한 사당을 중심으로, 그 앞에 2기의 서원비(書院碑)와 하마석(下馬石), 그리고 최근에 세워진 강당과 관리사가 남아 있다. 창설당시 주자(朱子)가 중앙에 모셔지고, 공주의 석탄 이존오 등이 배향되었는데, 후에 조현·김장생·송준길·송시열 등을 추가로 모시고, 최근 서원 창건에 핵심 인물이었던 고창 서기도 함께 모시게 되었다. 고창 서기가 제자를 교육하였다고 하는 연정 옆의 연못은 모두 메꾸어졌다. 그의 출생과 관련한 전설이 전해지는 공암굴은 무속인들이 많이 출입하고 아들을 비는 부녀자들의 기도처였으나, 최근 기독교 신자가 개인적인 기도처로 점거하고 있다.



충현서원



공암굴

- ④ 공주시 반포면 동학사 경내 **숙모전** (도 지정 문화재자료 제67호) : 동학사 입구에 위치한 사우로서, 1456년에 창건되었으며, 원래 숙모전(肅慕殿)과 삼은각(三隱閣)·동계사(東鷄祠)가 함께 있었다. 숙모전은 원통하게 죽은 어린 왕 단종과 세조에게 항거한 충신 열사의 혼을, 삼은각은 고

려말의 충신 포은 정몽주·목은 이색·야은 길재의 위패를, 그리고 동계사는 신라 눌지왕 때의 충신 박제상의 충혼을 기리는 제각이다.



숙모전



숙모전 제례

- ⑤ 논산시 강경읍 사계·우암 관련 유적 : 강경읍내 황산포구가 있었던 구룡지에 위치하고 있는 죽림서원(도 지정 문화재자료 제75호)과 관련 유적들이다. 서원은 1626년 창건되었는데, 조광조·이황·이이·성혼·김장생·송시열 등 6인을 모셨으며, 서원훼철령으로 철폐되었다가, 1965년 복원하였다. 사우(10평), 동재(憲章堂, 15평) 등이 남아 있다. 서원 창건의 직접적 동기는 사계 김장생이 왕래한 자취가 있기 때문이라 하며, 은진 송씨의 원거지였던 곳이다. 이웃한 임의정(도 지정 유형문화재 제67호)은 사계 김장생이 후학을 교육하던 곳이며, 팔괘정(도 지정 유형문화재 제76호)은 우암 송시열이 율곡 이이를 추모하며 건립하여 후학을 교육하였다고 한다. 현재 주변에 민가가 밀집하여 접근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죽림서원 전경



팔괘정 뒤편 바위언덕 전경

- ① 김시민장군 유적 : 천안시 병천면 가천리. 충무공 김시민(1554~1592) 장군은 17세 때 부과 급제한 후 훈원 주부, 군기시 판관을 거쳐 전주판관으로 있던 중 임진왜란을 만나 2만여 왜군을 무찌르고 전주목사에서 순직하니 조정에서 영의정에 추증하고 충무공 시호를 내렸다. 이곳은 장군이 어릴 때 뛰어놀던 거북바위와 인근 연못의 이무기를 활로 쏘아 잡았다고 하는 곳으로 射蛇處라는 표석이 세워져 있다. 이 유적을 중심으로 장군의 출생지와 사당이 있던 곳으로 전해지는 터가 있으며, 장군의 후손들의 집성촌이기도 하다.
- ② 아우내 3·1운동 독립사적지 : 천안시 병천면 병천리 산 73-2. 3·1 운동기념비와 매봉산 아래의 추모각이 모두 기념물 58호이다. 기념비는 병천 시가지가 내려다 보이는 구미산에 위치한다. 4각의 기단석 위에 계단을 만들고 위로 올라갈수록 좁혀가다가 화장암 받침을 두고 오석의 사다리꼴 비신을 세웠다. 비문은 '기미독립운동 때 아우내서 일어난 장렬한 자취라'라고 각서되어 있으며 좌, 우, 후의 삼면의 비신에 삼일운동 기념비문이 각서되어 있다. 비문은 정인보가 짓고 김충현이 썼다.
- ③ 유관순 열사 유적 : 천안시 병천면 탑원리 338-1. 탑원리 매봉산 기슭에 1969년에서 73년까지 연차적으로 보수, 정비하였다. 1986년 경역을 확장하고 추모각을 비롯하여 동상, 삼문, 추모광장, 휴게소, 관리사무소, 봉화탑, 봉화대, 생가지, 유인석 가옥, 매봉교회, 기미독립운동기념비 등을 세웠다. 봉화터는 매봉산 정상부에 위치하는데 유관순 열사가 만세운동을 모의하고, 의거 전날 밤 거사를 각지에 알리기 위해 봉화를 올렸던 지점으로 당시 이 봉화를 신호로 인근의 목천이나 천안, 안성, 진천, 연기, 청주의 각지인 24개 지역의 산봉우리에서도 봉화가 올려졌다 한다. 1977년 이곳에 봉화탑을 건립하였고 해마다 2월말에 봉화를 올려 당시의 정신을 기리고 있다. 생가지는 용두리 입구에 위치한다. 유관순 열사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1962년 열사에 대한 각종 기념비적 사업이 진행되면서 복원, 정비되었다. 현재의 생가지는 1991년 12월에 재정비한 것으로 본채는 초가지붕에 ㄱ자 집이며 부속사는 ㄱ자 집이다.



아우내 독립 사적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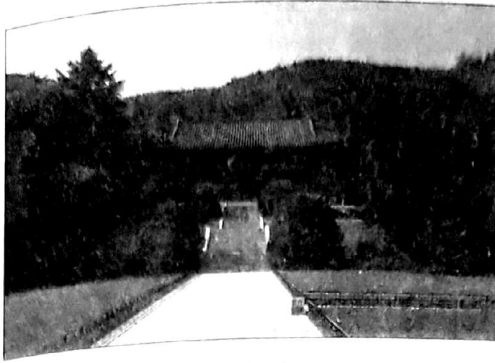


유관순 열사 유적

- ④ **이동녕장군 생가** : 천안시 목천면 동리 79-2. 이동녕(1869~1940)은 독립운동가로서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조약폐기 운동을 전개하다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고, 1935년 김구 등과 한국국민당을 조직, 당수가 되었다. 1962년 대한민국 건국 공로훈장 복장이 수여되었다. 9칸 반의 ㄱ자형 안채와 사랑채가 있었으나 많이 변형되어 원형을 찾기 힘들다. 현재 이동녕 선생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

- ⑤ **이범석장군 유허지** : 천안시 목천면 서리. 이범석(1900~1963)은 1919년 운남에 있는 육군장무학교를 졸업한 후 독립운동에 가담, 1920년 10월에는 청산리전투에서 왜군 1,200여명을 섬멸하는 공을 세웠다. 1941년 광복군을 창설하였으며 정부수립 후 초대 국무총리를 역임하였다. 건물은 동향으로 솟을대문에 좌우 행랑채가 있고 안채는 전통한옥으로 팔작집이며 격자창의 섬세함을 보였다고 한다. 현재는 집터만 남아 있는데 1997년 후손들이 완전히 헐어버리고 '李範錫將軍遺虛址'라는 표석만이 남아 있다. 전언에 의하면 이장군의 생가는 아니고 장군의 서자가 살던 곳으로 장군이 가끔씩 머물다 갔다고 한다.

- ⑥ **현충사** : 이순신장군을 모신 사우(祠宇)이다. 1706년 창건되었고, 이듬해에 사액이 내려졌다. 일제강점기에 퇴락하였을 때에도 이충무공유적보존회와 동아일보사에서 성금을 모아 중건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1967년 국가에서 대규모 성역화사업을 실시하여 현재의 규모로 확장되었다. 유물관에는 『난중일기』 등 관련 유물이 전시되어 있으나, 대부분 모조품이고, 진품은 경상남도 통영시 충렬사에 보관되어 있다.



현충사



이남규 고택

- ⑦ **이남규 고택** : 을사조약 후 일군에 의해 아산 평촌 냇가에서 아들과 함께 순국한 이남규가 살던 집이다. 원래 이 고택은 이산해의 손자 李久가 건축한 것으로 완산이씨 행장에 의하면 1637년(인조 15)에 건축된 건물이라 한다. 고택을 지은 후 정조가 文數라는 宅號를 내렸고, 明賢巨儒가 대를 이었다고 한다. 또한 1846년에 중건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쓴 詩帖 「間谷舊舍重建識喜帖」이 전해오고 있다. 사랑채와 안채가 있는데 사랑채는 정면 6칸, 측면 2칸에 툇마루가 붙어 있는 건물로 동측 퇴칸은 부엌이며 부엌의 상부는 큰사랑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넓은 다락이 있다. 큰사랑방은 남측으로 두통간문이 되어 있고 북측으로는 4분합 미닫이로 두칸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두방의 북측벽은 판자벽에 쌍여닫이로 되어 있다. 큰사랑방에서 대청으로는 3분합 들어열개로 되어 있으며 전면 2칸 대청의 각문은 4분합 띠살문 들어열개로 되어 있다. 1칸 반의 작은 사랑방은 대청마루와 3분합문 들어열개로 되어 있어 큰사랑방과 마찬가지로 전체가 通間이 될 수 있다. 중문을 중심으로 동측은 3칸의 헛간이 있고 서측은 2칸의 행랑방이 있으며 행랑채와 분리되어 안채가 ㄷ자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안채는 서쪽 제일 남쪽칸이 두칸통문의 넓은 부엌으로 되어 있고 그 상부는 건너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락이다. 부엌의 옆에는 2칸통문의 건너방이 있는데 마루방과 툇마루가 있다. 그 다음에는 안채와 사랑채를 바로 이어줄 수 있게 되어 있었던 마루가 있는데 그 통로는 현존하지 않는다. 맨 북쪽의 2칸의 마루방과 이 방에서 꺾여 6칸통문의 넓은 대청마루가 있으며 이 대청에 안방이 2칸, 북측으로 옷방이 1칸 이어져 있다. 안채와 사랑채는 같은 수법으로 지어졌는데 기초는 큰사랑방 전면에만 방형 주초석이고 나머지는 모두 활석 주초석이다. 그 위에는 모두 21cm의 方柱가 세워져 있다. 지붕은 홑처마에 팔작지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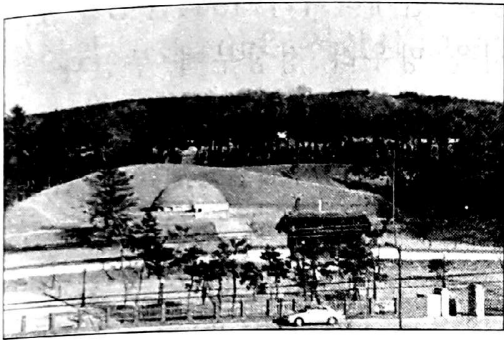
하고 있는데 안채 우측 끝은 맞배지붕을 하고 있으며 대청 전면은 부연이 있는 겹치마로 되어 있다. 이곳은 또한 이남규선생의 장손으로, 약관에 만주·상해 등에 망명하여 독립운동에 참여하였고, 신간회 등 민족운동에도 적극 참여한 平洲 李昇馥이 나서 자라고, 노후를 보낸 집이기도 하다. 근년에 방산저수지가 축조되어 주변 경관이 아름답다.

- ⑧ 임존성 : 大興面과 光時面, 금마면의 경계가 이루어지는 곳에 위치한 봉수산의 정상부에 구축된 石築城이다. 산의 정상부를 둘러싼 테뫼식 山城으로 현재 사적 90호로 보호되고 있는데, 백제부흥운동의 거점이 되기도 한 곳이라 전해지고 있는 곳으로, 성 주위가 2,450m에 달하는 큰 규모이다. 성의 정상부에는 평탄면이 조성되어 있어 建物址가 자리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남벽쪽으로도 넓은 평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곳에서는 百濟시대의 토기편과 瓦片등이 산재되어 있다. 이 봉수산은 산세가 험하며 예당저수지, 삼교, 예당평야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지형으로 공격하기가 매우 어려운 산세를 하고 있다.

- ⑨ 최익현 묘소 : 최익현(1833~1906)은 경주최씨로 자는 贊謙이고 호는 勉庵이다.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화서 이항로의 문인으로 대원군의 실정을 탄핵한 후 유배되었고, 그 이후 경기관찰사, 공조판서, 의정부찬정에 임명되었으나 일체 관직에 나가지 않았다. 격렬한 상소를 수십 회 올렸으며 을사보호조약 때에는 도끼를 메고 반대상소를 하였다. 74세때 항일의병을 일으켰다가 잡혀서 일본 대마도에 구금되어 단식하다가 순국하였다. 건국공로훈장 중장 제1호가 추서되었고, 모덕사를 비롯한 영당과 사당이 10개소에 이른다. 묘소는 1910년 논산군 노성면으로부터 지금의 위치로 이장되었다고 한다. 묘역은 묘비와 석상, 석주가 배치되어 있다. 묘비는 옥개형 이수가 올려져 있는 형태이며 전면에 ‘勉庵崔益鉉之墓 貞夫人淸州韓氏附左’라고 쓰여 있다. 또한 묘의 입구에는 禮山慕賢事業會에서 1972년에 세운 ‘崔益鉉先生春秋大義碑’가 세워져 있다. 대의비의 주변은 잔디를 깔고 철책으로 보호시설을 해서 깨끗이 보호되고, 뒷쪽으로는 소나무 숲이 조성되어져 있다.

- ⑩ 홍주의사충 :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124-2. 1905년 을사조약에 항거하여 일어나 홍주성을 탈환하면서, 일본군과의 격전끝에 순국한 홍주 의병의 유해를 안장한 곳이다. 홍주의병은 민중식을 중심으로 농민 유생

구관리 등이 창의하여 현재의 예산군 광시면에서 출발, 부여군의 홍산면을 거쳐 남포를 지나 홍주성을 탈환하였다. 그러나 우세한 일본군의 화력 앞에 3일간 항쟁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수백명이 전사하고 말았는데, 당시 일본군이 의병들의 시체를 매장하기도 하였으나, 많은 의병들의 시체가 40여년간 방치된 상태로 남아있었다. 이에 해방후 유골을 남산에 안치하고 '丙午抗日紀念碑'를 세우며 추모제를 지냈다. 1949년에 현재의 의사총이 있는 구릉에서 또 다른 많은 유골들이 발견되면서, 옛 홍주의병들의 유해임이 고증되어 현재의 위치에 새로이 의사총을 조성하게 되었다. 의사총 동쪽에는 1972년 홍성군수 신광철에 의해 세워진 倡義祠가 있다.



홍주 의사총



김좌진 장군 생가

- ⑪ 김좌진 생가 : 홍성군 갈산면 행산리 330-1. 백야 김좌진 장군이 태어나 성장하였던 곳이다. 김좌진장군은 고종26년(1889) 김상용의 10세손인 형규의 둘째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18세때 이미 호명학교를 세워 신학문을 교육하기도 하였다. 광복단 사건으로 3년간 옥고를 겪은 후 한성일보 이사로 있다가 3·1운동때 만주로 건너가 북로군정서를 조직하고 총사령관이 되었다. 그리고 사관연성부를 설치하여 독립군 간부를 양성하였다. 1920년 10월 청산리전투에서 일본군을 대파하는 등 민족자주 독립에 앞장섰다. 1925년 김혁, 최호, 나중소 등과 함께 신민부를 조직하여 총사령관이 되었으며 1929년 김종진, 이을규 등과 함께 한족총연합회를 조직하여 수석에 취임하여 재만동포의 교육과 민생에 주력하는 한편, 중국의 항일세력과 연합하여 대일 항전을 준비하던 중 공산당원의 흉탄에 순절하였다. 생가지에는 1991년부터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여 생가와 문간채, 사랑채를 복원하고 관리사 및 전시관을 건립하였다. 충청남도도지정 기념물 76호이다.

⑫ **한용운 생가** : 홍성군 결성면 성곡리 492. 만해 한용운은 1879년 7월 12일 홍성군 결성면 성곡리에서 한응준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본명은 정옥이며, 출가하기 전에는 유천이라고 하였다. 14세 되던 해에 부친의 명으로 혼인하였으나, 2년만에 설악산에 있는 오세암으로 들어갔다. 그 후 18세 되던 해에 고향으로 돌아와 잠시 머물다가 다시 설악산 백담사로 들어가 불문에 귀의하였다.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불교계의 대표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였고 이후 이와 관련하여 옥고를 치르면서 ‘독립의 서’를 짓기도 하였다. 1925년 설악산으로 다시 들어가 ‘님의 침묵’ 등 88편의 시를 탈고하였으며, 장편소설 『흑풍』, 『박명』 등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후 불교청년회, 불교유신회, 만당 등의 단체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다가 1944년 5월 9일 66세의 일기로 입적하였는데, 시신은 서울 망우리 정상부에 부인과 함께 안장되었다. 결성면 성곡리 한용운생가지에는 생가복원에 이어 사당을 건립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였으며, 주변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중에 있다. 복원된 생가는 초가지붕을 엮었으며 방 2칸, 부엌 1칸으로 구성된 일자형 구조이다. ‘한용운’이란 문패가 걸려있고, 내부에는 만해의 영정과 앉은뱅이 책상이 있다. 마당에는 우물과 장독대가 있고, 집 뒤 야산에는 적송과 조릿대가 자라고 있다. 충청남도 지정기념물 제75호이다.

⑬ **김복한 묘소** : 홍성군 서부면 이호리 677 산수동 마을. 金福漢 (1860-1924)은 조선말기의 문신이자 의병장이다. 1860년(철종 1) 홍주읍 조휘곡(지금의 소향리 향산동)에서 출생하였다. 1905년 을사조약이 강제 체결되자 5적의 참소를 간청하는 소를 올리고, 1906년에 민종식과 홍주에서 다시 홍주의병을 일으켜 일본군과 싸우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0년 한일합방 뒤로는 두문불출하였고, 1921년부터는 仁智齋를 세워 후진양성에 온 힘을 기울였다. 묘소는 1984년 5월 17일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169호로 지정되었다.



김복한 묘소



한용운 생가

가야산의 내포불교 자원현황

① 천장암 : 천장암은 서산시 고북면 장요리의 뒷산 연암산의 남쪽 산중턱에 위치하고 있다. 천장암은 원래 백제의 운화선사에 의하여 초창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그 당시의 유지나 유물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믿기 어려운 상태이다. 사역은 법당인 민법당을 중심으로 주변에 소형의 산신각과 요사채를 구비함으로써 가람을 구성하였는데, 사찰이란 명칭보다는 암자란 명칭이 적합할 정도로 소규모이다. 건물은 모두 최근에 지어졌으며 법당 앞으로는 석탑 1기와 최근작인 석등 2기가 위치해있다. 법당의 앞에는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202호로 지정된 고려시대 7층석탑이 1기가 있고, 법당의 내부엔 관음사의 후불탱화로 조성된 1788(정조 12)년의 불화 1점이 걸려져 있다.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제 7교구 본사인 수덕사 말사로 되어 있다. 수덕사의 증홍조인 경허-만공 스님의 수도처로 불교도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② 수덕사 : 덕숭산의 아담한 기슭에 자리한 천년 고찰 수덕사는 백제 법왕원년(599) 지명법사에 의하여 창건되었으며 청도의 운문사와 함께 우리 나라에서 몇 안되는 비구니의 도량이다. 한말에는 경허스님이 머물면서 선종을 크게 일으켰고, 1898년 경허의 제자로 만해 한용운과 쌍벽을 이룬 만공스님이 이 절에 머물면서 많은 후학들을 배출했다. 수덕사 대웅전은 1308년 건축되어 700여년의 세월을 버티고 있는 이 아름다운 건물은 봉정사 극락전과 부석사 무량수전에 이어 현존하는 건물중 3번째로 오래된 건물로서, 고려 충렬왕 34년(1308)에 건립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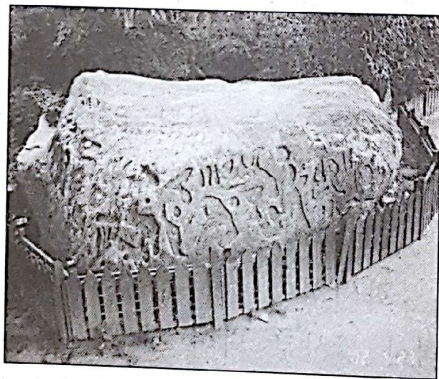
다. (국보 49호) 그 외에도 승당인 청연당과 백련당, 선방인 조인정사가 있고 개곡을 끼고 소림초당, 향운각, 견성암, 전월사, 김선대 등의 암자와 누대가 있으며, 삼층석탑, 여래탑, 다보탑, 부도 등이 배치되어 있다. 김일업, 나혜석, 한성준, 이응로 등 근세가의 지식인들과 관련된 유적들이 산재하여 있다.



향운각



소림초당



이응로화백의 암각화



수덕여관

- ③ 개심사 : 개심사는 서산시 운산면 신창리에 위치한 충남 4대 사찰중의 하나로써 가야산(677.6m) 줄기의 상왕산(307.2m) 기슭에 자리잡은 고찰이다. 백제 의자왕 14년 (651)년에 해감국사가 창건하고, 고려 충정왕 2년 (1350년)에 처능대사에 의하여 중건되었다. 대웅전의 기단만이 백제 때의 것이고, 건물은 조선 1475년 산불로 소실된 것을 다시 중건하였다. 보물 제143호인 대웅전은 창건 당시 기단 위에 조선 성종 15년(1484년)에 중창한 다포식 건축양식으로 그 작법이 미려하여 건축예술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개심사 영상회괘불정(보물 제 1264

호), 명부전, 심검당 등이 있다. 사찰을 중심으로 우기진 숲과 기암괴석 그리고 석가탄신일을 전후하여 만개하는 벚꽃 등은 속세를 잊게 하기에 충분하다.

- ④ 문수사 : 서산 운산면에서 해미면으로 향하는 도로를 따라가다 태봉리 버스정류소에서 내려 북동쪽 산으로 약 2km쯤 올라가면 계곡물을 건너 왼편 언덕에 아담한 사역이 마련되어 있다. 정확한 창건연대는 알 수 없으나 금동아미타불좌상의 복장문에 의하면 적어도 1346년(충목왕 2) 이전부터 문수사가 세워져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극락보전 우측 가운데 칸 벽에 걸려있는 지장보살도는 1774년(영조 50)에 조성된 것이며, 신장탱화와 후불탱화는 1892년, 칠성탱화는 1905년에 각각 조성된 것이다. 현재 문수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 7교구 본사인 수덕사 말사로 되어 있다. 가는 길목에 명종대왕 태실 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다.



개심사



서산마애삼존불

- ⑤ 서산마애불(국보 제84호): 백제 말기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소중한 마애불이다. 중국 남북조 말기인 제나라와 주나라(5, 6세기 말) 양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소위 '백제의 미소'로 불려질 정도의 걸작품으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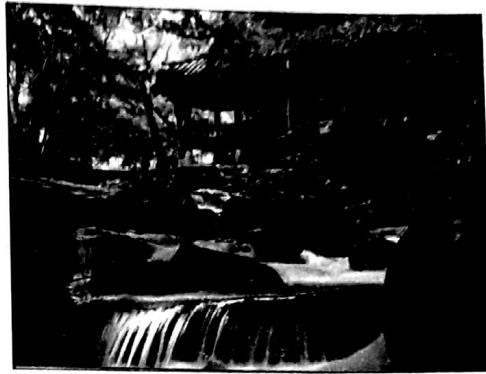
- ⑥ 보원사지(사적 제316호) : 서산마애삼존불의 입구에서 골짜기를 따라 조금만 더 올라가면 보원사지가 있다. 보원사는 백제 때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오층석탑을 비롯하여 금당지, 부도 및 탑비 등이 남아 있다. 오층석탑(보물 제104호)은 고려시대의 작품으로 전형적인 신라양식이다. 부도는 법인국사보승탑(法印國師寶乘塔·보물 제105호)이고, 탑비는 법인국사보승탑비(보물 제106호)로 경종 3년(978) 건립하였다. 이외에도 당간지주(보물 제103호), 석조(보물 제102호) 등이 남아 있다.

■ 계룡산 주변 자원현황

- ① 개태사 : 태조 왕건의 영정을 모셨던 고려의 국립 사찰이다. 왕건은 후백제를 쳐서 30여 고을을 얻고 삼국을 통일해 고려를 개국하기까지 부처님의 은혜와 산신령의 도움이 크므로 이에 보답하기 위해 태조 19년부터 4년 간에 걸쳐 지어졌다. 고려 태조가 친히 원문을 지어 내렸는데 산 이름을 천호산이라 하고 절 이름은 개태사라 했다. 개태사에는 직경 3m, 높이 1m나 되는 대형 가마솥이 있으며, 고려 초기 석불 입상(보물 제 219호)이 있다.
- ② 동학사 : 동학사는 공주에서 대전 방향으로 24km 지점의 국립공원 계룡산의 동쪽에 위치한 사찰로 성덕왕 23년(724) 상원이 암자를 지었던 곳에 회의를 절을 지어 상원사라 하고, 고려 태조 4년(921) 도선이 중창한 뒤 태조의 원당이 되었다. 936년 신라가 망하자 대승관으로 있던 유차달이 이곳에서 신라 시조와 박제상의 초혼제를 지내기 위해 동학사로 이름을 바꾸어 확장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1860년 강원(講院)을 개원한 승가대학은 전국에서 이곳을 거쳐가지 않은 비구니가 없을 정도로 이승(尼僧) 교육의 전당이다. 경내에 숙모전, 초혼각, 삼층석탑, 삼성각 등이 있다. 대전권의 유성온천과 인접해 있고 인근에 계룡산 도예촌이 있어 동학사는 계룡산의 3대 사찰 중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동학사 부도군



동학사 세진정

- ③ **갑사** : 공주시내에서 논산방면으로 19km 지점의 국립공원 계룡산 서쪽에 위치한 갑사는 백제이래 풍부한 불교문화의 본산이 되어 왔던 계룡산의 여러 사찰 중에서도 가장 풍부한 문화유적을 간직한 천년 고찰로써 백제 구이신왕 원년(420)에 아도화상이 창건하였다. 갑사가 전국적으로 알려진 거찰로 발전한 것은 백제 멸망 후 통일신라 때의 일이었다. 위덕왕 3년(556)에 해명대사가 천불전 및 진광명전, 대광명전을 중건하였고 후에 의상대사가 당우 천 여 칸을 중수하고 화엄대학지소를 창건하여 갑사는 이때 신라 화엄종 10대 사찰의 하나로 변창하였다. 보물 제478호인 동종(銅鐘)과 보물 제582호인 선조 2년간 월인석보판목(宣祖 2年刊 月印釋譜版木) 보물 제257호인 부도(浮屠), 갑사철당간 및 지주 등 수 많은 문화유적이 있다.



갑사 대적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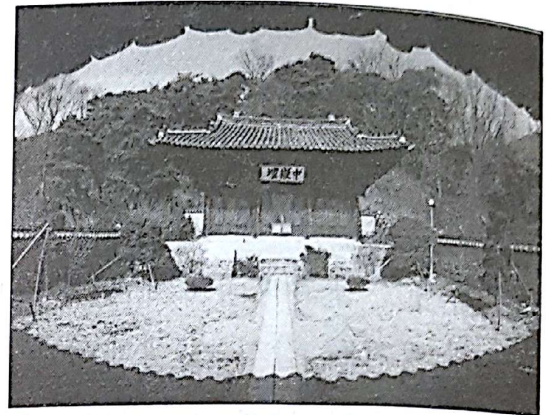
갑사 철당간

- ④ **신원사** : 공주 시내에서 논산 방면으로 24km 지점의 국립공원 계룡산 서쪽에 위치한 신원사는 백제 의자왕 11년(651)에 창건되었다고 전하나 몇차례 고친 후 조선조 고종 13년(1876)에 보연화상이 고쳐짓고 1946년 만허화상이 보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곳은 한 때 태조

이성계가 창입개국의 야망을 품고 기도처로 삼았던 곳이기도 하며, 다른 사찰과는 달리 개룡산 산신제단 즉 개룡단이었던 중악단(中嶽壇, 보물 제1293호)이 있어 매년 개룡산 산신제를 올리고 있다. 또한 신원사에는 국보 제299호인 신원사 괘불(新元寺掛佛), 오층석탑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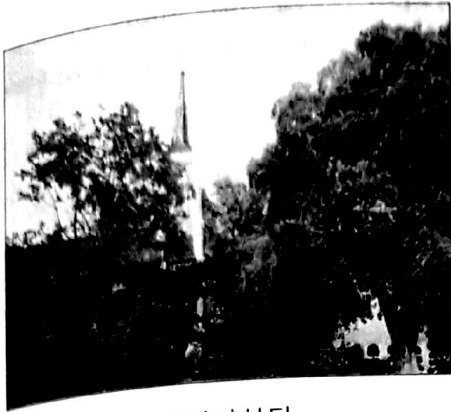
신원사 대웅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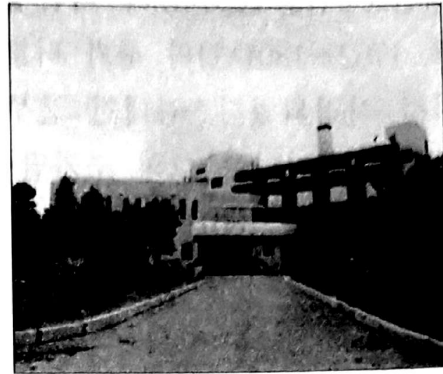
중악단

■ 내포교회 관련 자원현황

- ①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성당 : 조선시대 조창[80칸]이었던 공세창 부지에 1897년 건립한 천주교 본당과 사제관 건물이다. 원래의 건물은 헐리고, 1921년 중국 건축기술자들을 동원하여 지었다. 박익서(사바스), 박원서(마르코) 그리고 박익서(본명 미상) 3형제 순교자 묘소가 있다.
- ② 당진군 우강면 송산리 솔피성지 : 우리 나라 최초로 서품을 받은 김대건 신부의 출생지이다. 김대건 신부 조모의 삼촌인 '내포의 사도' 이존창이 신부의 증조부 김진후[면천 군수 역임]에게 전도를 받은 후, 천주교 가문으로 개종하여 4대에 걸친 순교자가 나왔다. 솔피는 김대건 신부의 가족이 이주한 뒤, 교우촌으로서 의미를 잃었으나, 순교 100주년을 맞은 1946년에 성역화 사업이 시작되었고, 1976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지 개발을 시작하여 동상과 기념탑, 1983년 솔피 피정의 집이 완공되었다. 최근 김대건 일가가 살던 집에 대한 발굴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공세리성당



솔외성지 전경

③ 당진군 합덕읍 합덕리 합덕성당 : 1890년 설립된 양촌 성당(충남 예산군 고덕면 상궁리)이 1899년 현위치로 이전하면서 합덕 본당으로 바뀌었다. 내포교회의 상징이 될 만한 건물로서, 현재의 성당 건물은 1929년에 준공되었다. 언덕 위에 세워졌으며, 빨간 벽돌과 두 개의 첨탑이 인상적이다. 경내에 네 명의 신부 묘지가 있다.

④ 당진군 합덕읍 신리 신리 공소 : 박해 후기의 사적지로, 달레의 『조선천주교회사』 자료를 발굴·제공한 성 다블뤼(Daveluy, 安敦伊) 주교가 활동하였던 교우촌이었다. 그는 김대건 신부와 함께 강경 황산나루로 입국하여 선교사로 활동하였던 인물로서, 1866년 충청도 보령의 수영으로 압송되어 참수당했다. 현재 다블뤼 주교를 포함한 신부들의 유물들이 보존되고 있다. 1927년 합덕 본당의 페랭(Perrin, 白) 신부가 이를 매입한 뒤 순교 기념비를 건립하고 축성식을 갖게 되었다. 원래는 초가집이었으나 해방 후 양철 지붕으로 개량해 소강당으로 꾸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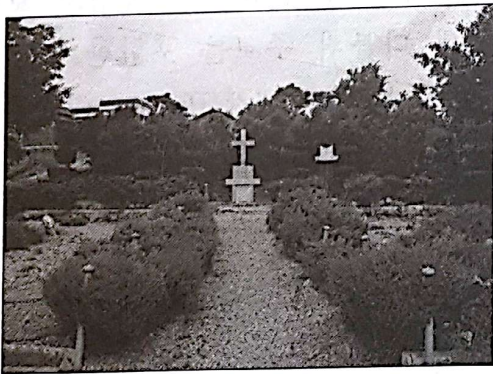
합덕성당 전경



신리공소

⑤ 예산군 신암면 신종리 이존창 생가지 : '내포의 사도' 이존창(루도비코, 1752~1801년)의 생가 터로서, 충청도의 복음 전파는 이곳 '여사울'에서 시작되었다. 김대건 신부의 집안도 그의 진교로 입교했는데, 김 신부의 할머니는 그의 조카딸이 되며, 최양업 신부도 생질(甥姪)의 손자이다. 그는 1801년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고, 그 해 4월 정약종과 함께 사형 선고를 받고, 충청도 공주로 호송되어 황새 바위에서 50세를 일기로 참수되었다.

⑥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해미읍성 : 다른 어떤 순교지보다 참혹했던 천주교 성지이다. 신도들은 읍성 서문 밖에서 처형되었는데, 1866년에서 1868년 사이에는 조산리 들판에 신도들을 생매장하기도 했다. 해미 읍성에는 교우들이 갇혀 있던 감옥터가 있고, 그 옆에는 고문대로 쓰던 '호야나무'가 남아 있으며, 서문 밖 순교지에는 1956년에 서산 성당으로 이전, 보존되었던 자리개 돌다리가 1986년에 원위치를 찾아 복원되었다. 병인박해와 관련된 순교 터 중에서 가장 먼저 사적지로 조성되었다. 해미에서 덕산으로 가는 한티 고개는 신도들의 압송로로, 달래의 『조선천주교회사』에도 그 기록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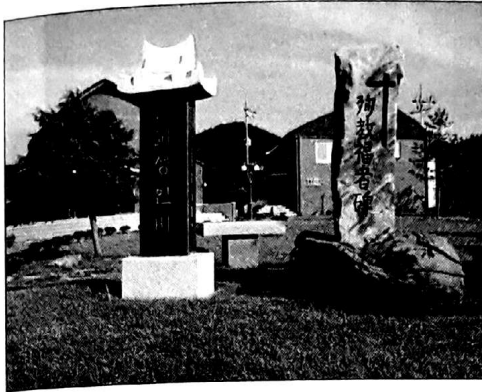
이존창 생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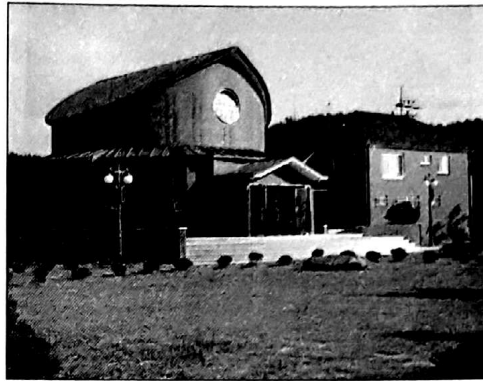
해미읍성

⑦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오천성과 영보리 갈매못 : 1866년 병인박해 때 다블뤼 안 주교, 오매트르 신부, 위앵 민 신부, 황석두 루가, 장주기 회장 등 5명과 500여 명의 신도들이 순교한 곳이다. 다블뤼 주교 일행은 서울로 압송되어 효수형의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 고종비(高宗妃)의 간

택이 예정되어 있었던 관개로, 보령수영(保寧水營)으로 옮겨 치형한 것이다. 갈매못은 1975년 순교 당시의 위치를 확인하고 순교복자 기념비를 세우면서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1985년 다섯 분의 순교 성인 기념비와 야외 제단이 세워졌다.



갈매못 성지 전경



갈매못 성당

■ 백제 관련 자원현황

- ① 구교리 구드래 일원 : 사적 및 명승 제6호이다. 구드래는 낙화암의 남쪽과 부소산 서쪽 기슭의 백마강을 중심으로 한 동네와 그 일대를 말한다. 이 명칭은 『三國遺事』 南夫餘條에 나오는 구들돌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곳은 백제를 내왕한 일본 배들이 구드래 나루터로 들어와 사비도성에 들어갔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백제를 「구다라」라고 부르는 것도 이러한 지명에서 유래한 것이다.
- ② 부소산성 : 사적 제5호이며, 군창지가 있는 지역의 테피식산성과 사비루가 있는 테피식산성,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 있는 포곡식산성으로 이루어진 복합식 산성이다. 그러나 군창지 소재 테피식산성은 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조사한 결과 통일신라시대의 축성으로 밝혀졌으며, 이 군창지 소재 테피식산성을 2구로 구분하기 위하여 축조된 성벽은 조선시대의 축성으로 보고되고 있다. 백제시대에 축조된 포곡식산성 토루의 전체길이는 2,495m이다. 이 산성은 사비천도와 함께 축성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 이전에도 소규모의 성곽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실시된 발굴조사에서 木柵과 竪穴式 住居址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구드레 일원



부소산성 전경

- ③ 부여 전백제왕궁지 유적 : 충청남도 기념물 제43호로, 1982~1992년까지 발굴조사에 의하여 건물터와 연못자리 등이 확인되면서, 백제왕궁터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왕궁터와 관련된 유구로는 건물터·도로·하수도·연못 및 석축시설이 있다. 연못은 1982~1983년에 옛 박물관 앞 광장에서 확인되었고, 연못 동쪽지역에서는 남북과 동서가 교차된 도로망이 나왔다. 조사 결과로 추정할 수 있는 왕궁터는, 동쪽은 쌍북리와요지, 서쪽은 부여문화재연구소 자리, 남쪽은 논산방면의 가도의 북편 언저리 일대로 볼 수 있다.

- ④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 : 국보 제9호로 미륵사지 석탑과 함께 우리나라 석탑양식의 계보를 정립시키는 데에 귀중한 자료이다. 세부수법에 있어서는 맹목적인 목조양식의 모방에서 탈피하여 정돈된 형태와 세련되고 창의적인 조형을 보이며 전체적으로 장중하고 명쾌하여 격조 높은 기품을 보이고 있다. 당나라의 장수 소정방이 백제를 평정한 紀功이 楷書로 새겨져 있으므로 平濟塔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 ⑤ 부여 정림사지 : 사적 제301호이다. 남에서부터 中門·석탑·금당·강당이 일직선상에 세워지고 주위는 회랑으로 구획된 백제의 사찰이다. 해방 전에 실시된 1차 발굴조사 결과 1탑 1금당식의 전형적인 백제절터로 밝혀진 바 있으며, 고려시대 명칭이 정림사였음이 알려졌다. 그 후 1979~1980년, 1983~1984년에 걸쳐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를 통하여 다수의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활석제 三尊佛편을 비롯하여, 각종 塑造像, 기와 및 陶製 벼루를 포함한 토기 각종이 발견되었다.

- ⑥ **부여 나성** : 사적 제58호로 부여읍 가탑리·임창리·석목리·용정리·능산리·구교리·동남리·군수리일대를 둘러싸고 있다. 전체길이는 약 8km에 달하는데, 남쪽은 백마강에 면하고 있으므로 나성이 축조되지 않았으며, 내부에는 부여 시가지와 금성산, 그리고 적지 않은 면적의 농경지가 포함된다. 나성은 구릉을 이용해서 축조된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삼을 수 있다.



정림사지



부여나성

- ⑦ **부여 궁남지** : 사적 제135호이다. 마래방죽이라고 부르는 늪지였으나 『삼국사기』에 나오는 궁남지로 추정하고 있다. 『三國史記』백제본기 제5 무왕조에 「穿池於宮南 引水二十里 四岸植以楊柳 水中築島嶼 擬方丈仙山」이라는 기록을 참고로 하여 궁남지라고 부르고 있다. 현재의 연못은 1965~1967년에 복원한 것으로, 원래 자연늪지의 1/3 정도 규모이다. 1990~1993, 1997년에 시굴 및 발굴 조사를 하였는데 주변에서 水田유적이 나오고 수로와 관계된 유적이 연못 안에서 확인되었다. 또 이곳에서 백제시대 목간과 새머리모양의 조각을 비롯하여 토기·수막새 등이 나왔다.

- ⑧ **성흥산성** : 사적 제4호로 임천면 동편의 성흥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둘레가 약 1,200m, 높이가 3~4m에 달하는 석축산성이고 있다. 1996년 동문지와 남문지를 발굴조사한 결과 백제 때 초축하였을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여, 백제산성을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 임천지역은 원래 백제 가림군으로 일명 가림성이 라고도 하였는데, 성흥산성이 바로 가림성으로 비정되고 있다.

- ⑨ **부여 군수리 사지** : 사적 제44호이다. 군수리 절터는 궁남지 서쪽의 낮은

구릉에 있는 절터로, 1935·1936년 2차에 걸쳐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절터는 중문·탑·금당·강당이 남북 일직선상에 배치되어 있는 一塔一金堂式의 가람으로 강당의 좌우에 鐘樓·經樓로 추정되는 건물터가 있다. 이 모든 건물이 회랑으로 둘러져 있으며 목탑이었다. 출토유물은 臘石製 여래좌상(보물 제329호), 금동보살입상(보물 제330호), 蓮花忍冬文壇, 연꽃무늬 수막새, 막새부분에 指頭文을 가진 평기와 등이다. 특히 납석제 여래좌상과 금동보살입상은 금구슬·小玉과 함께 목탑터의 중앙부에 있는 心礎石 부근에서 출토되었는데 6세기 중엽경의 백제시대의 불교조각의 우수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성흥산성



군수리사지

- ⑩ 부여 왕흥사지 : 사적 제427호이다. 寺城 내에는 민가가 많이 위치하였으나 현재 모두 철거하고 발굴조사를 진행중이다. 주변에서 礎石, 長大石이나 瓦片이 다수 발견된다. 기와편은 魚骨文 계통의 고려 이후의 것이 많으며 「王興」이라는 銘文이 새겨진 기와조각도 발견되었다. 『三國史記』, 『三國遺事』 등의 기록에서 옛 규암나루터 건너편에 있었다고 기록하는 백제시대의 王興寺와 지리적으로 거의 일치하고 있어서 法王 2년(600)부터 짓기 시작하여 武王 35년(634)에 완공한 백제의 국찰이 이곳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⑪ 공주 송산리 고분군 : 사적 제13호이다. 송산리 고분군은 공주시 중심부에서 서북방으로 약 1km 지점, 해발 130m의 宋山을 북쪽의 주산으로 한 송산 중턱의 남쪽 경사면, '송산소'라는 지역에 위치한다. 송산리 고분군에 자리잡고 있는 고분들은 웅진 도읍기에 재위하였던 백제의 왕들과 왕족들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다. 6호분은 벽 네 면의 일부에 사신도를 그려 넣은 벽화고분이다. 武寧王陵은 공주시 금성동 송산리

고분군 내의 전축분인 6호분과 석실분인 5호분의 가운데 뒷면에 자리한 백제 제25대 무령왕(501~523, 세위)과 왕비가 합장된 능으로, 1971년 7월 5호의 석실분과 6호 전축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배수로 작업 중 발견되어 발굴조사 되었다. 연도 입구에 놓여진 지석에 의하면 무령왕은 523년 5월 사망, 525년 8월에 왕릉에 안치되었고, 왕비는 526년 11월에 사망, 529년 2월에 안치되었다. 그리고 왕릉은 왕이 죽기 11년 전인 512년에 이미 축조 준비가 되어 있었음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왕릉에서 출토된 유물은 모두 108종 2,906점에 이르고 있다. 중요한 것으로는 연도 입구에서 銅鉢과 靑磁六耳壺, 誌石 2매, 石獸 등이 발견되었고, 현실에서 銅鉢과 靑磁六耳壺, 목관 관재와 왕의 것으로 보이는 금제관식 1쌍, 금제 뒤꽂이 1점, 금귀걸이 1쌍, 은제과대와 요패 1벌, 금동신 1쌍, 單龍 頭大刀와 金銀裝刀子 각 1점 등과 왕비의 것으로 보이는 금제관자 2개 금동신 1쌍 등이 출토되었다. 그밖에 청동 거울 3점, 청동용기, 銀製托盞 등이 있는데 국보로 지정된 것만도 12점에 이른다. 무령왕릉은 백제 왕릉 가운데 피장자와 축조 연대를 확실히 밝혀 주는 지석이 출토되어 주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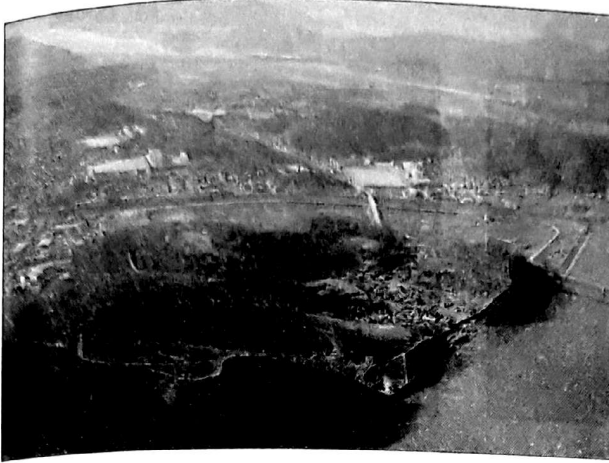
- ⑫ 정지산 백제유적 : 정지산유적은 송산리 고분군과 무령왕릉이 자리한 구릉이 북향하여 금강에 잇대어져 있는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艇止山 정상에 위치한다. 유적은 대부분 백제가 웅진에 수도를 두었던 시기의 집자리와 국가에서 제사를 지냈던 시설이며, 일부 사비 도읍기의 무덤과 통일신라 및 고려시대의 무덤 등이 조사되었다. 이 시설물 내외에서는 화려한 장식이 부착된 장고형 그릇받침 약 10여점, 세발토기 10여점, 뚜껑접시 약 20여점, 벽돌 5점, 기와 등이 출토되었고, 화려한 문양이 시문된 경질 토기가 많이 출토되었다. 출토 유물과 유구, 유적의 전체적인 모습을 종합해보면 이 시설물은 특수한 필요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만든 것으로 보이며, 그 성격은 國家祭祀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 ⑬ 웅진동 곰나루 : 곰나루는 ‘熊津’이 의미하듯 公州와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위치는 공주시 웅진동의 무령왕릉 서쪽에 전개된 낮은 丘陵山의 지대와 금강변 일대를 말한다. 이 지역은 서쪽으로 흐르는 錦江이 방향을 갑자기 꺾어 남쪽으로 흐르는 곳으로 강변의 모래벌과 松林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이 곳이 공주와 관련된 곰나루 전설의

발원지로서 유명하며, 신라시대에는 西濱, 조선시대에는 南濱으로 숭배되어 왔고 熊津水神祭를 지내던 사당까지 존재했던 곳이다. 곰나루의 남쪽 평원지대는 이른바 '소정방뜰'이라 하여 백제가 멸망할 때에 唐將인 蘇定方이 금강을 거슬러와 당시 웅진을 공격하면서 주둔하였던 곳으로 전해지며, 소정방이 將臺로 사용하였던 축대가 최근에까지 남아 있었으나 현재는 토사의 퇴적으로 인하여 묻혀 보이지 않는다.

- ⑭ 공산성 : 사적 제12호인 공산성은 금성동·산성동에 걸쳐 있는 公山에 축조된 고대 성곽으로 산 전체가 성곽 및 관련 시설로 이루어져 있다. 熊津城·雙樹山城·公山山城·公州山城 등으로 불리는 공산성은 1936년에 사적으로 지정되어 보호되어 오다가, 1985년에 이를 다시 사적공원으로 지정하여 개발이 진행중이다. 축성시기는 문주왕 원년(475) 이래 성왕 16년(538) 때까지 64년간 수도였던 熊津을 수비하기 위해 웅진시대에 국력이 안정되고 축성이 많이 된 동성왕 때로 보고 있다. 그러나 웅진천도 이전에 이미 성곽의 시설이 있었다는 견해도 있다. 성의 명칭도 당시는 熊津城이라 하였으나 고려시대 이후에는 공산성, 조선 인조 이후에는 雙樹山城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능선과 계곡을 따라 쌓은 포곡형이며, 원래는 土城이었으나 조선 선조, 인조 시대에 대부분 현재와 같은 石城으로 개축되었다. 성곽의 총 길이는 2,660m로 외성을 제외하면 2,193m가 된다. 현재의 성벽은 높이 약 2.5m, 너비 약 3m로 대부분이 보수되었다. 한편 822년에 金憲昌의 난이 일어났다 이곳에서 평정되었으며, 1623년 李适의 난 때 인조가 피난했던 역사적 일화가 얹혀 있다.

- ⑮ 반죽동 대통사지 : 대통사는 백제 성왕 4년(526)에 창건된 사찰로 사지가 공주시 반죽동에 당간지주와 함께 남아 있다. 대통사에 대하여 《三國遺事》 흥법조에는 “大通元年丁未 爲梁帝創寺如熊川州 名大通寺”라 적고 있다. 이는 대통 원년, 즉 성왕 4년에 중국 양나라의 帝를 위해서 「大通寺」라는 절을 창건하였고 이 절이 웅천주 즉 공주에 있다는 내용이다. 현재 대통사지로 추정되는 공주시 반죽동에서는 「大通」명의 와편이 출토되었고, 더불어 이곳의 많은 불적에 의해 쉽게 그 위치가 확인되고 있다. 현재 대통사지 역내에는 민가 및 시가지가 조성되어 있어 사적은 상기 유적 이외에는 찾기가 어렵다.



공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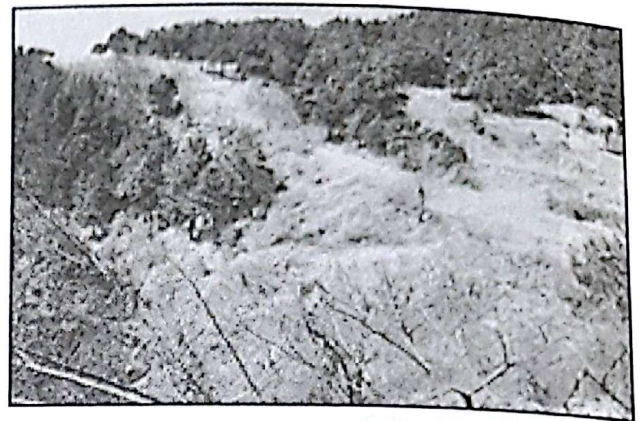


대통사지 당간지주

- ①⑥ **노성산성** : 공주 · 논산 · 연산으로 갈라지는 곳에 있는 표고 348m의 산봉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테뫼식 산성이다. 돌로 쌓은 산성으로 둘레는 950m이다. 성내에서 삼국시대 토기편과 기와편을 비롯하여 후대의 유물도 많이 발견된다. 석축의 일부분은 조선시대에 고쳐 쌓은 곳도 있으나, 백제시대에 만들어진 산성으로 추정된다.
- ①⑦ **황산성** : 연산 · 논산평야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해발 264m의 험준한 산봉우리를 감싸고 있는 테뫼식 석축산성이다. 성안에서는 백제토기를 비롯하여 고려 · 조선시대의 유물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기와편에 찍힌 “大安元年”은 1209년(고려 희종 5년)에 해당한다. 이로 보아 백제시대에 쌓아서 고려까지 존속하다가 조선시대에 폐쇄된 듯하다.
- ①⑧ **계백장군 유적 전승지** : 백제 계백장군의 묘로 추정되는 곳이다. 전란이 끝난 후 백제 유민들이 장군의 시신을 거두어 이곳에 매장하였다고 한다. 40~50년 전에 묘가 노출되었을 때 철제무기가 나온 적도 있다고 하며, 주위에 충장산 · 충훈산 · 수락산이라는 지명이 있고, 묘소 일대를 가장골이라고 부르고 있다. 계백 장군은 의자왕 때의 인물로 성충 · 홍수 등과 함께 백제의 삼충신으로 꼽힌다. 660년 나당연합군이 백제왕도를 공격하자 계백은 결사대 5천명을 이끌고 탄현을 넘어오는 신라군 5만군을 막기 위해 황산벌에 나가 최후의 결전을 벌였다. 죽음을 각오한 군사들의 용맹으로 4번의 싸움에서 이겼으나 마침내 적은 군사로 인해 장렬한 최후를 맞았다. 묘소 주변에 있는 충곡서원에 주향으로 모셔졌고, 부여의 삼충사에도 배향되었다.



계백장군 전승지



황산성